2019년도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충 청 북 도 의 회
(정 책 복 지 위 원 회)

목 차

□ 결과 보고서 (요약) 2

Ⅰ. 연수 목적 4

Ⅱ. 국외출장 개요 5

Ⅲ. 방문대상지 주요현황 9

Ⅳ. 일자별 활동사항 26

Ⅴ. 공무국외출장 후기 48

Ⅵ. 정책 제안사항 124

※ 기타참고 자료 ..... 132~203

❶ 공무국외출장 관련 5분 자유발언 132

❷ 위원회 공무국외출장 활동사항 현지 언론보도 136

❸ 유럽 기관방문시 정책복지위 자체 홍보자료 139

❹ 방문국가별 주요 현황 143

❺ 주요 정책별 유럽선진국 주요현황 146

❻ 기타 도정정책 현황자료 180

❼ 주요 타시도 우수사례 (경기상상캠퍼스) 195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요약)

□ 총 평

○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새로운 방향 제시 (1일 1기관 이상 방문)

○ 활동사항 실시간 공개를 통한 투명한 연수 추진

○ 국외출장 활동 결과물에 대한 정책화 추진

-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거론된 당면현안 해결방안 모색

○ 연수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및 의견수렴 (귀국 후 토론회 개최 등)

□ 해외 우수사례 및 국내 시사점(문제점 등)

<독일 평생교육센터>

○ 독일 전역에 920여개의 시민대학 다수 존재 (평생교육의 일상화)

○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역 평생교육에 대한 도민 욕구 충족을 위해 충북평생교육진흥원 기능보강 및 제도 개선 필요

<독일 마더센터>

○ 마더센터는 출산 후 부모가 겪는 어려움과 갈등을 지원하는 것에서 출발

○ 지역여성과 아동의 욕구를 반영하여 지역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만들고,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과 이웃 공동체를 재건하는 역할 담당

○ 국내에는 마더센터 개념이 생소하며, 특히 충북은 마더센터가 없는 실정

<독일 장애인 일자리창출 사회적기업>

○ 독일에는 장애인 직업교육 전문기관 600여개 운영 중

○ 장애인들과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능력향상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 취업연계와 보수교육 등을 병행

○ 직업교육 과정을 거친 장애인들의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수준을 보장

<독일 레버쿠젠 시청, 시의회>

○ 완전한 지방분권 실현으로 지방정부 개념에서 각 부서별 부서장이 지방장관의 역할로 지역정책을 총 책임

○ 전체 공직자의 64% 정도가 여성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등 여성의 사회참여 활발 (직장 내 여성간부 비율은 40% 이상)

○ 탈권위적인 의회 회의장 구성으로 의회와 집행부서간 상호존중의 입장에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등 합리적인 시스템으로 운영

<독일 국제장애인용품 전시회>

○ 전 세계 장애인들의 편의제공과 장애인용품 산업 발전을 이끌어 주는 박람회로 장애인복지 필요성과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자리

○ 국내의 경우 우수한 제품 생산능력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기기 특성상 장애인들이 보조기기를 접하기는 어려운 실정

<네덜란드 호그벡 치매마을>

○ 이용자 생활을 기반으로 마을의 요소(종교, 공원, 쇼핑 등 편의시설)을 포함하도록 구성된 마을형 노인요양시설

○ 국내의 경우 지역생활, 장기요양, 의료 등 다영역을 포괄할 컨트롤 타워 구축 및 치매프로그램 운영 확대 노력 필요

<네덜란드 스타트업빌리지>

○ 예비창업 기업간 서로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동반상승효과

○ 국내의 경우 '경기도 상상캠퍼스' 등 청년들을 위한 대규모 공간이 존재하나 충북의 경우 그 수준이 미약한 실정

□ 주요 정책제안 (세부내용 124p~131p)

○ **충청북도 교육 안전망 구축을 위한 평생교육 기능 강화**

○ **충북마더센터 설치 필요**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체계 확대 필요**

○ **치매 관리사업 개선책 마련 필요**

○ **도민과 청년들을 위한 복합 문화공간 조성 필요**

- 2019년도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 도민 행복 실현을 위한 복지서비스 정책 발굴 등 도정현안 문제해결을 위해 정책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연 수 목 적

□ 연수목적

○ 유럽 선진국 복지정책 현황 및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도정 복지정책 적용 및 의정 연구자료 활용

○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가정 육아환경 개선 등 올바른 성평등 정책실현에 대한 현지조사 및 제안사항 발굴

○ 평생교육제도 운영실태 조사 및 우수정책 사례 연구

○ 노인 치매예방, 장애인 보조기기 활성화 및 청년일자리 창출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자료수집

○ 기타 공공시설 사회적 약자 편의시설 조사 등

□ 추진방향

○ 상임위 성격 및 연수 목적에 맞는 연수 대상지 및 방문기관 섭외

○ 5분발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거론된 당면현안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연수 추진

※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 발굴 → 도민 실생활 개선 초점

○ 도의회 자체 홍보책자 제작, 배부로 공식방문 기관에 대한 상임위 방문취지 이해와 충북도의회 역할 소개

○ 매일 일정종료 후 방문결과 토론, 활동사항 인터넷 공개 등을 통한 신속하고 투명한 연수성과 도출

Ⅱ 국외출장 개요

□ 출장개요

○ 출장기간 : ’19. 9. 17.화 ~ 9. 25.수, 7박 9일

○ 방문국가 :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 독일 평생교육센터 등 7개 공식기관 및 4개 주요현장 방문 (총 11개소)

○ 출장인원 : 9명 (정책복지위원 6, 전문위원실 3)

- 단장 1명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상돈)
- 단원 5명 (최경천 부위원장, 박형용·심기보·육미선·이상욱 위원)
- 행정지원 3명 (이강근 수석전문위원, 배상준·김기범 주무관)

□ 출장자 주요 업무

구분	직위	성명	업무내용
공통과제	전체의원	-	▸ **유럽 선진국 복지 이해 및 도정접목 방안 연구** - 유럽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동향전반 - 도내 복지제도 개선을 위한 우리의 역할 등 강구
1조 **(여성 평생교육 등)**	위원장	**박상돈**	▸ **여성복지 정책방향 제시** - 마더센터 운영 분석을 통한 도정적용 방안 연구 - 독일 성평등 정책 비교를 통한 도내 여성복지 발전연구 ▸ **평생교육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 독일 평생교육 운영과정 및 현황 파악 - 우리도 평생교육 운영실태와 비교한 도정 접목
	의 원	**심기보**	
	의 원	**육미선**	
2조 **(청년, 노인치매, 장애인 등)**	부위원장	**최경천**	▸**청년 우수정책 사례 연구** - 유럽 청년정책 사례연구를 통한 도정 접목방안 연구 - 청년일자리, 복합문화공간 등 조성방안 강구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노인치매 예방 연구** - 네덜란드 호그벡 마을 운영사례 파악 및 자료수집 - 충북 치매안심센터 및 안심마을 현황과 비교연구 ▸**장애인 보조기기 등 편익증진을 위한 방안 제시** - 뒤셀도르프 국제 장애인용품 전시회 자료수집 - 우리도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방안 개선 연구
	의 원	**박형용**	
	의 원	**이상욱**	
행정지원반 **(전문위원실)**	수석 전문위원	**이강근**	▸ **의원 공무국외출장 계획 수립 및 추진(총괄)** ▸ **의원지원 총괄 및 현장 기관방문 지원**
	주무관 (행정6)	**배상준**	▸ **공식방문 기관 의전행사 지원** ▸ **공식방문 기관 간담회 내용 요약 및 정리** ▸ **정책 제안사항 요약 및 정리**
	주무관 (행정7)	**김기범**	▸ **의원 공무국외출장 계획 수립 및 추진(실무)** ▸ **현장 토론회 내용 요약 및 정리** ▸ **연수단 사진촬영 및 현장자료 수집 등 지원**

□ 출장 주요일정 (방문지 정리)

국가·도시	기관	일시	주요내용	비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헤센주의회	9.17.(화) 20:00	· 정책복지위 독일 방문에 따른 현지 주의회(광역의회) 의원 및 관계자 환영만찬	
독일 비스바덴	평생교육센터 (VHS)	9.18.(수) 09:00~11:00	· 독일 평생교육 현황 및 센터 운영실태 조사 등 · 충북 평생교육사업 추진방향 모색	청년정책 담당관
독일 랑겐	랑겐마더센터	9.18.(수) 13:30~16:00	· 마더센터 설립취지, 중점사업 등 자료수집 · 저출산극복, 일-가정 양립 및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제안 모색	여성가족 정책관
독일 마인츠	장애인 일자리창출 사회적기업 (INB)	9.19.(목) 13:00~14:30	· 지체장애인 등의 자립적인 생활 보장을 위한 일자리창출 교육과정 현황 등 자료수집 · 도내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 추진방향 모색	노인 장애인과
독일 레버쿠젠	레버쿠젠 시청·시의회	9.20.(금) 09:00~10:50	· 여성 권익증진,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우수정책 수집 · 의회 운영현황 청취 등 우수 의정시스템 벤치마킹	여성가족 정책관
독일 뒤셀도르프	2019. 국제장애인용품 전시회	9.20.(금) 13:30~16:30	· 국내외 장애인 보조기기 현황조사 및 체험 · 도내 장애인 보조기기 발전방안 및 개선모색	노인 장애인과
벨기에 브리쉘	어린이박물관	9.21.(토) 13:00~14:00	· 아동친화 문화시설, 편의시설 체험	복지 정책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중교통(트램) 체험	9.22(일) 13:00~14:00	· 친환경 대중교통(트램) 이용을 통한 장애인 편의시설 체험	노인 장애인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호그벡 치매마을	9.23(월) 14:30~17:00	· 호그벡 치매마을 운영현황, 정책자료 수집 · 국내 치매안심마을, 치매안심센터 등 활성화 및 개선방안 연구	보건 정책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타트업 빌리지	9.24(화) 12:00~13:30	· 청년 취·창업 우수사례 연구를 통한 지역 맞춤형 청년정책 활성방안 모색	청년정책 담당관
네덜란드 헤이그	이준열사 기념관	9.24(화) 14:30~15:30	·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유럽 유일의 독립운동 성지 방문을 통한 애국심 고취	

□ 출장 세부일정

일자	장소(도시)	시간	교통편	일정
1일차 9.17.(화)	인천	12:50	KE905	· 인천공항 출발 (07:30 도의회 → 10:50 인천공항)
	프랑크푸르트	17:40	전용차량 (버스)	· 독일 프랑크푸르트공항 도착
		20:00		▶환영만찬: **헤센주의회** - 라쉬도르프 의원(특임장관) 등 헤센주의회 관계자 독일방문 환영만찬
		22:00		· 숙소도착 및 1일차 활동사항 정리
2일차 9.18.(수)	프랑크푸르트	08:00	전용차량 (버스)	· **(이동)** 프랑크푸르트→비스바덴
	비스바덴	09:00		▶공식기관 방문①: **평생교육센터(VHS)** - 독일 평생교육 현황 및 센터 운영실태 조사 등 - 충북 평생교육사업 추진방향 모색
		11:00		· **(이동)** 비스바덴→랑겐
	랑겐	13:30		▶공식기관 방문②: **랑겐마더센터** - 마더센터 설립취지, 중점사업 등 자료수집 - 저출산극복, 일-가정 양립 및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제안 모색
		16:00		· **(이동)** 랑겐→프랑크푸르트
	프랑크푸르트	18:00		· 석식 및 2일차 활동사항 정리
3일차 9.19.(목)	프랑크푸르트	09:00	전용차량 (버스)	· **(이동)** 프랑크푸르트→마인츠
	마인츠	13:00		▶공식기관 방문③: **장애인 일자리창출 사회적기업(INB)** - 장애인 자립생활 보장을 위한 일자리교육 등 자료수집 - 도내 장애인 일자리창출 추진방향 모색
		14:30		· **(이동)** 마인츠→뒤셀도르프
	뒤셀도르프	18:00		· 석식 및 3일차 활동사항 정리
4일차 9.20.(금)	뒤셀도르프	08:00	전용차량 (버스)	· **(이동)** 뒤셀도르프→레버쿠젠
	레버쿠젠	09:00		▶공식기관 방문④~⑤: **레버쿠젠시청, 시의회** - 여성 권익증진,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우수정책 수집 - 의회 운영현황 청취 등 우수 의정시스템 벤치마킹
		10:50		· **(이동)** 레버쿠젠→뒤셀도르프
	뒤셀도르프	13:30		▶정책현장 방문①: **2019 국제장애인용품 전시회** - 국내외 장애인 보조기기 현황조사 및 체험 - 도내 장애인 보조기기 발전방안 및 개선책 모색
		18:00		· 석식 및 4일차 활동사항 정리

일자	장소(도시)	시간	교통편	일정
5일차 9.21.(토)	뒤셀도르프	09:00	전용차량 (버스)	· **(이동)** 뒤셀도르프→벨기에 브뤼셀
	브뤼쉘	13:00		▶사회적약자 편의시설 점검①: **어린이박물관 방문** - 아동친화 문화시설, 아동 편의시설 점검 및 체험
		18:00		· 석식 및 5일차 활동사항 정리
6일차 9.22.(일)	브뤼셀	09:00	전용차량 (버스)	· **(이동)** 뒤셀도르프→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암스테르담	13:00		▶사회적약자 편의시설 점검②: **대중교통**(트램) **체험** - 친환경 대중교통(트램) 이용을 통한 장애인 편의시설 체험
		18:00		· 석식 및 6일차 활동사항 정리
7일차 9.23.(월)	암스테르담	10:00	전용차량 (버스)	· 공무국외출장 중간결과 정리
		14:30		▶공식기관 방문⑥: **호그벡 치매마을** - 호그벡 치매마을 운영현황, 정책자료 수집 - 국내 치매안심마을, 치매안심센터 등 활성화 및 개선방안 연구
		18:00		· 석식 및 6일차 활동사항 정리
8일차 9.24.(화)	암스테르담	12:00	전용차량 (버스)	▶공식기관 방문⑦: **스타트업 빌리지** - 청년 취·창업 우수사례 연구를 통한 지역 맞춤형 청년정책 활성화 모색
		13:30		· **(이동)** 암스테르담→헤이그
	헤이그	14:30		▶기타현장 방문①: **이준열사 기념관** -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유럽 유일의 독일운동 성지 방문을 통한 애국심 고취
		15:30		· **(이동)** 헤이그→암스테르담
	암스테르담	17:00		· 석식 및 8일차 활동사항 정리
		21:20	KE926	· 암스테르담공항 출발
9일차 9.25.(수)	인천	15:05	KE926	· 인천공항 도착 (15:50 인천공항 → 19:00 도의회 도착)

Ⅲ 방문대상지 주요현황

평생교육센터 VHS (독일 비스바덴)	
방문일시	2019. 9. 18.(수) 09:00 ~ 11:00
주 소	Alcide-de-Gasperi-Str. 4 65197 Wiesbaden
홈페이지 주소	www.vhs-wiesbaden.de
면 담 자	Dr. Philipp Salamon-Menger/Direktor
기관역할	▸ 평생교육법(Hessian Continuing Education Act) 원칙에 따라 개인적, 전문적 및 정치적 분야에서 평생교육 제안 및 보장 ▸ 각자의 이전 교육수준, 사회적지위, 직업, 국적과 종교와 상관 없이 모든 성인과 청소년을 위한 평생교육 제공
방문목적	▸ 독일 평생교육 현황 및 센터 운영실태 조사, 자료수집 등 ▸ 충북 평생교육사업 발전 및 향후 추진방향 모색

주요내용 및 시사점

▪ **독일에는 16개주, 920여개의 다수의 시민대학이 존재**
- 교육을 통한 국가의 민주화 실현 및 국민들의 자아실현을 위한 교육담당
- 비스바덴 평생교육센터: 연간 25천명의 시민이 참여 (전체인구 대비 8.6%)
(독일전체 연간 60만개 이상 프로그램 개설, 600만명 이상 참여)
- 시민대학 프로그램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평생교육의 장으로 이끌어 내는데 큰 역할

▪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생교육에 대한 도민 욕구 충족을 위해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 기능보강 및 평생교육 제도 확대, 개선 필요**









독일 평생교육센터 질의응답 주요내용

질의의원	질의내용 및 답변
박상돈 의원	평생교육센터 운영방식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 **(답변)** 현재 이곳은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음 독일 평생교육센터의 33%는 이 곳과 같은 사단법인 성격이며, 그 외는 시 교육청 산하 등 공공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음 비스바덴 평생교육센터는 9명의 이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명은 시 교육청에서 참여하고, 나머지 8인은 민간으로 구성
심기보 의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업료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 **(답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다양한 할인 프로그램이 존재함 장애인은 20%, 다자녀는 50%까지 수강료를 할인 지원하며, 난민들의 경우 시청 추천서가 있으면 전액 무료 지원임
육미선 의원	수강생들 중에 남녀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 **(답변)** 대학이나 고등교육기관은 남학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시민교육의 경우 여성 비율이 전체 70% 정도로 높은 편임 아울러, 평생교육센터 직원 중 여성의 비율은 80% 수준임
심기보 의원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지원 비율은 어떠한지? ☞ **(답변)** 교육에 대한 모든 권한과 의무는 연방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주정부(지방)가 하는 것으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음 따라서 모든 예산도 주정부에서 집행이 이루어짐 시민대학연합에서 예산지원을 지속 건의하고 있으나, 한정된 재원 속에 예산편성이 이뤄지는 만큼 주정부 차원에서 증액지원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임

랑겐마더센터 (독일 랑겐)	
방문일시	2019. 9. 18.(수) 13:30 ~ 16:00
주 소	Zimmerstr. 3, 63225 Langen
면 담 자	Mrs. Sarah Schöche 랑겐마더센터 원장 외 2명
기관역할	▸ 위험에 처한 가족을 위한 안전망 구축과 함께 여성(어머니) 역량 강화 및 양성평등 제고에 기여 ▸ 청소년 사회통합 지원, 어린이와 가족의 건강 증진 노력 ▸ 다양한 클래스와 인종 배경의 시민들을 융합, 사회를 위해 재능과 기술 기부를 위한 창의적인 플랫폼 제공
방문목적	▸ 마더센터 설립취지 및 중점사업 등 주요 현황자료 수집 ▸ 저출산 극복, 일-가정 양립 및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제안 모색

주요내용 및 시사점

▪ **마더센터는 출산 후 부모가 겪는 어려움과 갈등을 지원하는 것에서 출발**
- 독일에서 1980년 처음 시작되었으며 풀뿌리 여성운동의 결과물로 현재 400여개 운영 중

▪ **마더센터는 지역 여성과 아동의 욕구를 반영하여 지역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만들고,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과 이웃 공동체를 재건하는 역할 담당**
- 성별, 세대 간 갈등을 극복하고 자발적인 참여와 봉사로 이뤄진 지역 공동체 네트워크
- 출산, 육아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건강한 가족개념 정착 기여

▪ **국내에는 마더센터 개념이 생소하며, 특히 충북에는 마더센터가 없는 실정**
- 화목한 가정 및 올바른 육아환경 조성, 노년층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마더센터 설립검토 필요






독일 마더센터 질의응답 주요내용

질의의원	질의내용 및 답변
최경천 의원	대한민국의 경우 핵가족화 되면서 가족간에 소통이 많이 안 되는데 마더센터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지? ☞ **(답변)** 분명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 외에도 가족을 넘어 지역공동체적 측면에서도 소통하고 교류하는 효과가 있음
최경천 의원	그동안 마더센터 운영함에 있어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 **(답변)** 지금은 마더센터가 나름 정착이 되어서 크게 어려운 점은 없으나 설립과정 당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 초기에 지역사회 내에서도 마더센터의 필요성에 대한 의구심과 지속가능한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한 불신이 많이 있었음 5년간의 창립과정을 겪었으며, 현재는 창립 된 지 13년이 지났음
육미선 의원	1980년 마더센터가 시작된 이후 전국에 몇 개 정도 운영되고 있는지? ☞ **(답변)** 독일 전국적으로 약 400개 이상이 존재하며, 헤센주의 경우 39개소가 존재함. 대도시인 프랑크푸르트의 경우 5개의 마더센터가 있으며, 인근 인구 20만 정도의 중소도시의 경우 1개의 마더센터가 존재함
육미선 의원	운영예산 규모와 어떤 형태로 지원을 받고 있는지? ☞ **(답변)** 몇 가지 중요사업에 대해선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음 하지만 일부 사업(예. 요가강좌)의 경우 수익사업을 통해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음. 다만, 국가로부터 받는 예산은 전체 운영비의 50% 정도에 불과하며, 나머지 운영비는 자체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자생적으로 수익금을 창출해 운영하고 있음 마더센터의 경우 공공기관 직영운영이 아닌 자발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상욱 의원	마더센터의 경우 연중휴무 없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는지? ☞ **(답변)** 연말~연초 중 약 14일 정도 휴무일이 있으나, 그 것을 제외하면 휴일이 없이 계속 운영되고 있음 (독일의 경우 크리스마스 기간 전후 14일 정도가 명절기간임)

질의의원	질의내용 및 답변
육미선 의원	운영은 민간에서 하더라도 부지확보 및 시설물 구축은 어떻게 했는지? ☞ **(답변)** 이 곳의 경우 부지는 시에서 무상으로 임대해 주었으며, 건축설계의 경우 지역 건축가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이뤄짐 건축에 있어 필요한 경비는 정부 뿐만 아니라 기부 등 기타경비를 통해 충당함
박형용 의원	마더센터를 관리하는 인력 및 자원봉사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 **(답변)** 마더센터를 관리하는 인력은 31명임. 이들은 자원봉사는 아니지만 소정의 교통비 정도의 실비를 받고 참여하고 있는 자임 이들에게는 연간 2,400유로까지의 세제혜택이 주어짐 그 밖에 마더센터의 경우 80~90명 정도의 자원봉사자들이 있음
최경천 의원	마더센터의 규모를 더욱 확대한다면 어떤 부분을 확대하고 싶은지? ☞ **(답변)** 육아 혹은 어머니를 위한 전시회 추진 등을 하길 원함 일부 지역의 마더센터의 경우 이곳 마더센터 보다 시설규모가 커서 전시회 등을 진행하고 있음. 지역사회공동체 형성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기능이라 생각함

장애인 일자리창출 사회적기업 INB (독일 마인츠)	
방문일시	2019. 9. 19.(목) 13:00 ~ 14:30
주 소	Carl-Zeiss-Straße 2, 55129 Mainz
면 담 자	Treuber 공보관 등 2명
기관역할	▸ 630명 이상 장애인들의 교육과 일자리 연계제공을 위한 사회적기업 ▸ 장애인들의 자립적 생활을 위한 능력제고 역할 ▸ 장애인들에 대한 돌봄서비스 제공, 숙련할 수 있는 직종탐색 및 연구, 그에 대한 교육지원
방문목적	▸ 유럽 선진국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과정 및 중점사항 자료수집 ▸ 도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 추진방향 모색

주요내용 및 시사점	▪ **독일에는 INB와 같은 장애인 직업교육 전문기관 600여개 운영중** ▪ **장애인들의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능력향상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 취업연계와 보수교육 등을 병행** - 직업관련 기술습득 뿐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향상을 위한 교육 등 진행 (스포츠, 문화예술, 기초학문 학습까지 함께 추진) - 정원관리, 원예, 문구점, 원목가공 등 다양한 분야에 장애인들이 취업을 통한 사회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직업교육 과정을 거친 장애인들이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수준을 보장** - 다만, 유럽 역시 국가 주요산업이 과거 제조업에서 첨단산업으로 확산되는 현실로 장애인 직업교실 참가자에 대한 열악한 취업률(3% 이내) 극복은 사회적 고민









독일 장애인일자리 창출 사회적기업(INB) 질의응답 주요내용

질의의원	질의내용 및 답변
육미선 의원	국내의 경우 중증장애인물품 구매율이 지자체마다 1% 이상을 구매하도록 되어 있는데 독일의 경우는 어떠한지? ☞ **(답변)** 구매의무 할당량이 정해져 있지는 않음. 다만, 30인 단위 사업장 기준으로 월별 400유로 이상을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됨.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비용은 세금으로 납부해야 됨
육미선 의원	한국에서는 장애인 생산물품 생산업체가 판로 확보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독일의 경우는 어떠한지? ☞ **(답변)** 업체별 구체적 상황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가령 예를 들면 주변 기업들과의 연대를 통해 소소한 계약을 통한 물품 판매를 추진하고 있음. 아울러 기업별 장애인 고용률이 정해져 있으나 장애인들에게 숙련되고 힘들거나 어려운 일자리를 제공하기엔 한계가 있음
최경천 의원	이 곳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며, 지자체별 지원받는 금액은 어떠한지? ☞ **(답변)** 이 곳에서 교육을 받는 장애인의 경우 1일 기준으로 1인당 60유로의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음. 이 곳의 경우 600여명이 교육을 받고 있으며, 휴일에 경우에도 국가의 지원 수당이 나오고 있음 (연 1,314만 유로) 이렇게 나온 수익금의 경우 직원 인건비, 시설 유지관리비로 충당되며 실질적인 사회적기업 수입금은 없음
의원공통	그 밖에 기업 운영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 ☞ **(답변)** 독일의 경우도 과거 제조업 위주의 산업에서 4차 산업 등 첨단산업으로 국가경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임. 따라서 장애인들이 직업 알선에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 사실임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할 지에 대해선 명확한 해답을 내지는 못했으며,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임

레버쿠젠 시청, 시의회 (독일 레버쿠젠)	
방문일시	2019. 9. 20.(금) 09:00 ~ 10:50
주 소	Friedrich-Ebert-Platz 1, 51373 Leverkusen
면 담 자	마렌푸스키 (레버쿠젠시 명예시장, 시의원) 리시라트 코넬리아 (레버쿠젠시 여성부 국장)
방문목적	▸ 여성 권익증진,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우수정책 수립 ▸ 의회 운영현황 청취 등 우수 의정시스템 벤치마킹

주요내용 및 시사점

- **독일의 경우 완전한 지방분권의 실현으로 지방정부의 개념에서 각 부서별 부서장이 지방장관의 역할로 지역정책을 총 책임**
- **레버쿠젠시 여성부는 1959년 신설 후, 여성단체 관리·성평등·가족 공동체 복지 등 역할 총괄**
  - 연도별 양성평등 정책 실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계층별 소득수준 등을 고려 세부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
- **레버쿠젠 전체 공직자의 64% 정도가 여성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등 여성의 사회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음**
  - 특히, 공직사회 여성간부 비율은 46% 수준, 민간의 경우 40% 내외로 높은 수준
  - 이 밖에 공직구성은 시간선택제 근무자가 1/3 정도 차지하고 있으며, 근무환경의 경우 자택근무도 적극 권유하는 등 유연적인 환경
  - 공직 뿐만 아니라 민간에 있어서도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강화교육에 많은 노력
- **가정폭력 등의 피해를 입은 여성들을 위한 '여성의 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1개소당 연간 160명 정도의 여성 혜택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그 규모를 확대할 방침**
- **레버쿠젠 시의회는 시의 3개구에서 선출된 52명의 시의원으로 구성**
  - 정당별 수는 기독교민주당(현 여당) 17석, 사회민주당 14석, 군소정당이 각 3~5석 정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장 역시 시의원으로서 정당 정책에 따른 사업추진 등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음
  - 탈권위적인 의회 회의장 구성으로 집행부서와 상호존중의 입장에서 본회의 등 의사일정 진행이 매우 합리적으로 이뤄지고 있음







독일 레버쿠젠 시청 질의응답 주요내용

질의의원	질의내용 및 답변
육미선 의원	성평등 실현을 위한 주단위 법이 개정된 시기와 법명은 어떻게 되는지? ☞ **(답변)** 연방기본법의 근거하여 양성평등을 위한 법이 1994년 제정되었고, 법명은 "양성의 평등을 위한 법"임
육미선 의원	여성임원 할당제에 대하여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서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는지? ☞ **(답변)** 공공영역이 아닌 민간영역에서는 그 비율을 강제할 수는 없음. 다만 40%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박형용 의원	이곳 레버쿠젠시에서 추진하는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특별한 점이 있다면? ☞ **(답변)** 일단 남녀간 비슷한 과제와 업무추진을 하고 있고, 업무의 통일성을 위해 주정부와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조율하고 있음. 각각의 업무사항을 통일하는 것이야 말로 성평등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임
심기보 의원	레버쿠젠 의회에서 자체 예산편성권이 있는지? ☞ **(답변)** 정책결정 입안과정을 설명하자면 대부분의 정책제안은 시청에서 나오며, 의회에서는 그러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는 기능을 담당 (다만, 한국과 달리 시의원 중 1명이 시장 역할을 맡고 있음)
최경천 의원	출산율 증가와 관련하여 독일 유치원 지원은 어떠한지? ☞ **(답변)** 주정부 마다 그 규정은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레버쿠젠시의 경우 1일 기본 6시간은 무료이며, 그 외 시간의 경우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이 있음.
의원공통	독일의 출산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 **(답변)** 적극적인 보육지원정책 추진을 위해 현재 독일의 출산율은 해마다 조금씩 증가추세이며, 1.5명 정도로 상승 (국내 0.9명)

2019. 국제장애인용품 전시회 (독일 뒤셀도르프)	
방문일시	2019. 9. 20.(금) 13:30 ~ 16:30
주 소	Am Staad, 40474 Düsseldorf (Messe Dusseldorf Hall)
홈페이지	https://www.rehacare.de
박람회 개요	▸개최기간 : 2019. 9. 18. ~ 9. 21. * 1977년 이후 매년 개최 ▸주요내용 : 의료기기, 약품·위생, 건강·복지·실버산업 등 ▸참가국수 : 43개국 (독일, 한국, 중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전시규모 : 행사장 32,092㎡, 약 4만명 관람
방문목적	▸ 국내외 장애인 보조기기 현황조사 및 체험을 통한 비교분석 ▸ 도내 장애인 보조기기 발전방안, 개선책 모색

주요내용 및 시사점	▪ **독일 뒤셀도르프 국제장애인용품 전시회는 전 세계 장애인들의 편의제공과 장애인용품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주는 대표적인 박람회** - 개최지 독일을 비롯해 대한민국, 중국 등 전 세계 43개국 참여 - 대한민국의 경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43개 기관·업체가 참여 66개 제품 전시 ▪ **본 박람회는 장애인용품 전시, 바이어 상담과 함께 독일 주정부 차원에서 장애인복지 확대 필요성과 향후 정책방향을 설명하는 자리 마련** ▪ **국내의 경우 우수한 제품 생산 능력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기기 특성상 장애인들이 보조기기를 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선진국에 비해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보조기기를 구입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도 차원에서 보조기기 지원 제도 마련 필요** - 특히, 학령기 자세유지가 필요한 장애 아동청소년의 자세유지를 위한 장애아동 청소년유모차형 휠체어 지원사업의 선제적 도입 검토 필요 ▪ **또한 충청북도 보조기기 사업에 있어 유지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리사업 모니터링을 보조기기센터를 통한 추진과 함께 치매예방 관련 보조기기, 제품 등에 대한 도 민들에게 대여 사업을 추진 방향 검토 필요**






벨기에 어린이박물관 (벨기에 브뤼셀)	
방문일시	2019. 9. 21.(토) 13:00 ~ 14:00
주 소	Rue du Bourgmestre 15, 1050 Ixelles
방문목적	아동친화 문화시설, 편의시설 체험
시사점	▪ **도심 속 아동친화 문화시설 설치, 운영을 통해 어린이 상상력 제고와 유아의 시각에 맞춘 미래 직업체험 기회 제공**






네덜란드 대중교통 트램 체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방문일시	2019. 9. 22.(일) 13:00 ~ 14:00
주 소	암스테르담 센트럴역 일원
방문목적	대중교통(트램) 이용을 통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의시설 벤치마킹
시사점	▪ **트램 탑승시 휠체어 진입편의를 위해 출입구내 경사면 설치와 기타 장애인 편의 제공을 위해 등받이 설치 인상적** - 다만, 트램 폭의 협소로 열차 내 휠체어 이동이 불편한 점은 아쉬움




호그벡 치매마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방문일시	2019. 9. 23.(월) 14:30 ~ 17:00
주 소	Heemraadweg 1, 1382 GV Weesp
면 담 자	Iris van Slooten - Klarenbeek / Office Manager
기관현황	▸ 시설면적: 14,310㎡ (4,639평) ▸ 건립비용: 1,920만 유로(한화 약 236억원) ▸ 연운영비: 1,462만 유로(한화 약 180억원) ▸ 인 원 ('19. 9월 기준, 자원봉사자 제외) · 대상자(치매환자) : 169명 · 직원수 : 170여명(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 대상자 5~6명씩 네덜란드 가정 형태로 가구구성 ▸ 운영재정: 국가 사회보장제도 지원, 수득수준에 따라 이용료 부담 ※ 개인 이용 부담금 1인당 월 160~2,300유로
방문목적	▸ 세계적인 치매안심마을로 유명한 호그벡 치매마을 방문을 통한 주요 운영현황 및 정책자료 수집 ▸ 국내 치매안심마을, 치매안심센터 등 활성화 연구

주요내용 및 시사점

- **이용자 생활을 기반으로 마을의 요소(종교, 공원, 쇼핑 등 편의시설)을 포함하도록 구성된 마을형 노인요양시설**
  - 전문 종사자가 편의시설 등에서 환자를 맞이하고 있고 안전한 치매환자 배회를 위한 시설 구조물이 있어 치매에 안심되는 마을
- **국내의 경우 지역생활(재가, 돌봄), 장기요양(시설입소, 주간보호), 의료(치료) 등 다영역을 포괄할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
- **충북에는 타 시도에 비해 우수한 사업 모델이 있으며 이에 대한 확대 노력 필요**
  - (치매안심마을) 진천, 옥천 중심 시범사업을 통해 금년도 14개소 운영
  - (찾아가는 독거노인아카데미) 독거노인의 치매안전망 구축사업, 노인복지영역과 연계한 사업으로 보건과 복지 각 영역이 갖고 있는 특성을 활용한 연계사업
- **치매환자 지역 생활을 지원하는 보조장치 체험 도입(확대) 필요**







네덜란드 호그벡마을 질의응답 주요내용

질의의원	질의내용 및 답변
이상욱 의원	일반 치매요양시설과 달리 호그벡 마을만의 특징이 있다면? ☞ **(답변)** 요양시설의 경우 안전을 위해 치매환자를 침대에 묶어 놓는 등 비인권적인 모습이 존재할 수 있으나, 이곳은 중증의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할 수 있는 최대한 정상인과 같은 삶을 지낼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실천하고 있음
최경천 의원	호그벡 같은 곳이 실질적으로 더욱 확산되고 있지 못한 이유는? ☞ **(답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된 요인이라 생각함. 예를 들어 암스테르담에 있는 요양원은 고층빌딩으로 구성되어 있어 호그벡과 같은 요양시설 구성, 배치를 할 수 없는 현실임. 다만, 네덜란드의 치매요양시설은 인간 중심의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호그벡 마을과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음
최경천 의원	비용부담과 관련하여 개인부담금과 정부지원금 수준은 어떠한지? ☞ **(답변)** 환자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이 있으며, 최저 160유로에서 최대 2,300유로로 부담하고 있음. 그 외 부족분은 정부지원금으로 충당 호그벡 마을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1인당 1일 235~285유로 정도 (건물유지비 포함).
최경천 의원	처음 요양시설 설치 당시 주변 주민들의 반대는 없었는지? ☞ **(답변)** 사실 이곳의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였음. 지금의 치매시설을 설치하기 전부터 기존 요양시설은 존재했던 상황이였음. 아마, 새로운 곳에 치매요양시설을 설치한다면 분명 인근주민의 반대는 있었을 것임. 이는 일반인과 치매환자가 다르다고 인지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꾸준히 설득을 하고 인식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함
의원공통	호그벡 마을 운영에 있어 어려운 점이 있다면? ☞ **(답변)** 이 곳의 시스템은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존 법령, 규칙 등에 정해진 규정과 맞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 예외사항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웠음 두 번째로 일반인의 생각이 아닌 치매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인간중심적 접근으로 시각을 전환해야 한다는 점이 어려웠었음

질의의원	질의내용 및 답변
박형용 의원	치매환자수가 169명인데 반해 직원수는 어떻게 되는지? ☞ **(답변)**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을 합쳐서 약 170명의 직원이 근무함 그 외 자원봉사수를 합치면 그 인원은 더 많을 것임
박형용 의원	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정부지원에는 한계가 있을 것인데 자체 수익 사업은 없는지? ☞ **(답변)** 2018년도 기준으로 호그벡 마을의 자체수익금은 70만유로 정도임. 이는 레스토랑, 극장, 슈퍼마켓 등 운영을 통한 수익금 이였으며, 이는 호그벡 마을이 치매환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임
심기보 의원	치매환자분들 중에 폭력적인 성향을 갖춘 사람이 있을텐데 그런 환자들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 **(답변)** 일반 요양시설의 경우 안전을 위해 일부 환자를 감금하고 비인권적으로 대해주는 사례가 있겠으나, 이곳에서는 모든 환자에 대한 자유가 보장되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폭력적인 성향을 갖췄던 사람들도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으며 행동양식 또한 바뀌게 됨
육미선 의원	치매 병력을 가지신 분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적응하기가 힘들텐데 한 가정에 6~7명이 함께 생활하는 운영 방식에 어려운 점은 없는지? ☞ **(답변)** 일단 서로 잘 맞는 분들끼리 그룹을 이뤄 생활하고 있음 좀 더 구체적으로는 4개의 라이프스타일로 나눠가지고 치매 환자가 이전에 어떤 습관과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왔는지를 분석해서 치매환자 가정을 구성함

스타트업 빌리지 (독일 암스테르담)	
방문일시	2019. 9. 24.(화) 12:00 ~ 13:30
주 소	Science Park 608, 1098 XH Amsterdam
면 담 자	Bert Rap / Events manager
기관역할	▸ 국적과 상관없이 예비청년창업희망자 누구에게 작업공간, 회의실, 인터넷 및 보안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하여 창업 준비를 위한 최상의 조건 제공 ▸ 입주 스타트업 기업들이 다른 기업, 단체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관련 지식과 기술의 공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방문목적	▸ 청년정책 우수사례 연구 및 우리도 개선방안 마련 ▸ 청년 취·창업을 위한 우수사례 연구로 지역 맞춤형 청년정책 활성 방안 모색

주요내용 및 시사점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타트업 빌리지 조성 목적은 첨단 기술 및 과학분야의 예비창업 기업들을 유치하고 서로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동반상승효과를 도모**

- 3개 섹션으로 구분된 39개 컨터이너에서 청년 예비창업기업 입주 (2007년 개소)
- 스타트업 빌리지 입주자들은 2년의 기간 동안 공동작업 공간, 응급실, 인터넷서비스, 법률지원 등의 편의시설을 무상으로 지원하며, 저렴한 비용으로 행사장 등 사용
- 대부분의 스타트업 기업은 다른 기업 및 단체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관련 지식과 기술의 공유가 활발히 이뤄짐

▪ **충북의 경우 최근 청년들의 창업지원 및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하여 충북청년희망센터를 개소하였으나 주요 선진지 유사시설에 비해 그 규모가 협소함**

- 수원시에 위치한 '경기상상캠퍼스'를 롤모델로 삼아, 향후 이전 예정인 자치연수원 부지 등을 활용하여 청년들의 창업, 복합문화공간을 넘어 가족공동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추가 공간조성 마련 필요



네덜란드 스타트업빌리지 질의응답 주요내용

질의의원	질의내용 및 답변
최경천 의원	현재 네덜란드 청년실업률은 어떻게 되는지? (국내 11~12%) ☞ **(답변)** 네덜란드의 경우 2019. 6. 9일 조사 기준으로 3.44% 수준임
박상돈 의원	폐컨테이너를 활용한 공간배치가 인상적인데 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준 사항이 있는지? ☞ **(답변)** 폐컨테이너는 자체적으로 구매한 사항이며, 시설의 배치 및 인테리어 등 작업공간과 관련된 사항은 지역 건축사의 도움으로 설치하게 되었음
박상돈 의원	현재 이곳 시설에 입주한 업체에 대한 임대료는 어떻게 되는지? ☞ **(답변)** 별도의 임대료가 없으며,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창업 전 단계까지 준비과정을 지원해 주는 곳으로 입주 후 2년간 무료로 지원해 주고 있음
육미선 의원	이민자를 대상으로도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 청년들도 이용한 사례가 있는지? ☞ **(답변)** 아직까지 아시아 국가에서 사용한 사례는 없었으나, 자국민이 아니더라도 유학청년 누구나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은 맞음
최경천 의원	국가나 지자체의 예산지원은 어느정도 규모가 되는지? ☞ **(답변)** 약 30% 정도의 지원금을 받고 있으며, 그 외의 경우 일부 시설에 대한 대여료 및 기업체 후원금 등을 통해 충당
이상욱 의원	모든 창업 준비과정이 2년 안에 끝날 수는 없을텐데 2년의 사용기간이 종료되면 무조건 시설에서 나와야 되는 건지? ☞ **(답변)** 창업 준비과정이 2년안에 반드시 끝날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2년의 기간이라면 어느 정도의 창업 결과물이 나옴 해당 실적을 참고하여 1년 단위로 연장여부를 결정하며, 공간이 여유치 않을 경우 약간의 대기시간을 거쳐 재입주하는 방식 진행

이준열사 기념관 (독일 헤이그)	
방문일시	2019. 9. 24.(화) 14:30 ~ 15:30
주 소	Wagenstraat 124, 2512 BA Den Haag
면 담 자	이기항 이준열사기념관장 외 1명
기념관 소개	▸ 1620년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지어진 건물로 370여년간 가정집, 상가, 극장, 호텔 등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1995년 8월 5일 현재의 이준열사 기념관으로 개소 ▸ 1907년 6~7월경 고종황제의 밀명을 받은 이준, 이상설, 이위종 등 세 명의 헤이그 특사가 제2차 만국평화회의 참석을 위해 머문 장소 ▸ 제2차 만국평화회의 참석 무산 후 얼마 뒤, 이준열사가 갑작스럽게 숨을 거둔 장소로 유럽 유일의 독립운동 성지로 남아 나라사랑, 평화사랑 정신을 일깨워 주는 교육장
방문목적	▸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유럽 유일의 독립운동 성지인 이준열사 기념관 방문을 통한 애국심 고취








Ⅳ 일자별 활동사항

▣ 상임위 공무국외출장 추진과 관련하여 계획에 맞는 추진과 연수성과 내실화를 위해 **'도의회 홈페이지'로 공지한 일일 활동사항 보고 (최초시행)**

- 2019.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

유럽 공무국외출장 일일 활동사항 보고

< 연수 1일차 주요일정 (9월 17일) >

▣ 독일 헤센주의회 환영만찬 간담회

- 프랑크푸르트 방문에 따른 독일 헤센주의회(현지 광역의회) 관계자 환영 만찬

❑ 추진목적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독일 방문에 따라 현지 광역의회(헤센주의회) 관계자와의 의정발전 사항 논의 등

❑ 개 요

○ 방문일시 : 2019. 9. 17.(화) 20:00 (현지기준)

○ 장 소 : Batzenhaus (독일 프랑크푸르트 소재)

○ 주요참석 : 15명 정도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박상돈 위원장 등 관계자
- **(헤센주의회)** 마르가레테 치글러-라쉬도르프 의원 등 관계자



성명 : 마르가레테 치글러-라쉬도르프
직책 : 헤센주의회의원 (3선)
약력 : 헤센주(전) 청소년/체육분야 특무관
헤센주(전) 실향민/난민분야 특무관
기독민주당 (CDU)
변호사/약사

○ 주요내용 : 충북도의회 독일 프랑크푸르트 방문에 따른 현지 헤센주의회(광역의회) 의원 및 관계자 환영 만찬

❑ 세부 추진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20:00~20:10	'10	환영인사 및 참석자 소개	박상돈 위원장 등
20:10~20:50	'40	만찬간담회	
20:50~21:00	'10	기념촬영 및 기념품 전달	직지(直旨)보타이

❑ 활동사진





〈 독일 헤센주 소개 〉

주도(州都)는 비스바덴이며, 인구수는 607만명이다. 동서로 흐르는 마인강(江) 이남은 라인 평원으로 이어지는 평야이며, 주의 중앙부까지 뻗어 있다. 동서 양 측면과 북부는 주로 산지와 구릉지로 이루어져 그 사이를 라인강의 지류 란강, 베저강의 지류 풀다·베라 등의 강이 흘러 복잡한 지형을 이루며, 산지 사이에는 분지가 있다.

주민의 2/3가 프로테스탄트, 1/3이 가톨릭교도이다.
주의 최대도시는 프랑크푸르트암마인이며, 행정·경제·문화면에서 주의 중심을 이룬다. 그 밖에 비스바덴·오펜바흐·다름슈타트 등의 상공업도시가 집중한다. 주요공업은 화공약품·전기기구·기계·자동차·기관차·광학기기 등이다.
남부에서는 포도재배·원예농업이 활발하고 양질의 포도주를 만들며, 중·북부에는 삼림이 많다.



- 2019.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

유럽 공무국외출장 일일 활동사항 보고

< 연수 2일차 주요일정 (9월 18일) >

1 독일 평생교육센터 방문 : 도내 평생교육 시스템 개선을 위한 선진지 견학
2 독일 마더센터 방문 : 도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주요 선진지 견학

<독일 평생교육센터>

❑ 방문목적

○ 독일 평생교육 현황 및 센터 운영실태 조사, 자료수집 등
○ 충북 평생교육사업 추진방향 모색

❑ 개 요

○ 방문일시 : 2019. 9. 18.(수) 09:00~11:00 (현지기준)
○ 장 소 : Alcide-de-Gasperi-Str. 4 65197 Wiesbaden
○ 면 담 자 : Dr. Philipp Salamon-Menger/Direktor
○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비고
09:00~09:10	'10	환영인사 및 참석자 소개	
09:10~09:40	'30	센터 브리핑청취 및 질의·토론	
09:40~10:40	'60	센터 시설 및 주요 프로그램 운영현황 견학	1921년 설립
10:40~11:00	'20	기념촬영 및 기념품 전달	

❑ 시 사 점

○ 현재 독일에는 16개주, 920여개의 다수의 시민대학이 존재
- 교육을 통한 국가의 민주화 실현 및 국민들의 자아실현을 위한 교육담당
- 비스바덴 평생교육센터: 연간 25천명의 시민이 참여 (전체인구 대비 8.6%)
(독일전체 연간 60만개 이상 프로그램 개설, 600만명 이상 참여)
- 시민대학 프로그램은 기존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평생교육의 장으로 이끌어 내는데 큰 역할

○ 충북의 교육 안전망 구축과 163만 도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충북평생교육진흥원 기능 보강 등 평생교육 제도 확대 및 개선 필요

❑ 활동사진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유럽 선진국 복지정책비교 공무국외출장
2019. 9. 17. ~ 9. 25.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유럽 선진국 복지정책비교 공무국외출장
2019. 9. 17. ~ 9. 25.

<독일 마더센터>

❑ 방문목적

○ 마더센터 설립취지 및 중점사업 등 주요 현황자료 수집

○ 저출산 극복, 일-가정 양립 및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제안 모색

❑ 개 요

○ 방문일시 : 2019. 9. 18.(수) 13:30~16:00 (현지기준)

○ 장 소 : Zimmerstr. 3, 63225 Langen

○ 면 담 자 : Mrs. Sarah Schöche 랑겐마더센터 원장 외 2명

※ 특이사항 : 독일 랑겐 지역신문 관계자 취재 동행

○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비고
13:30~14:40	'70	환영 인사 및 시설 소개	
14:40~15:50	'70	마더센터 운영 관련 질의·응답	
15:50~16:00	'10	기념촬영 및 기념품 전달	

❑ 시 사 점

○ 마더센터는 출산 후 부모가 겪는 어려움과 갈등을 지원하는 것에서 출발

- 독일에서 1980년 처음 시작되었으며 풀뿌리 여성운동의 결과물
- 독일 전국에 약 400여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북미, 아프리카 등 전 세계로 확산

○ 마더센터는 지역 여성과 아동의 욕구를 반영하여 지역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만들고,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과 이웃 공동체를 재건하는 역할 담당

- 성별, 세대 간 갈등을 극복하고 자발적인 참여와 봉사로 이뤄진 지역 공동체 네트워크 형성
- 출산, 육아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가족 개념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유아에서 노인까지 모두가 건강한 가족개념 정착 기여

○ 국내에는 마더센터 개념이 생소하며, 특히 충북에는 마더센터가 없는 실정

- 화목한 가정구현 및 올바른 육아환경 조성, 노년층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마더센터 설립 검토 필요

❑ 활동사진



- 2019.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

유럽 공무국외출장 일일 활동사항 보고

< 연수 3일차 주요일정 (9월 19일) >

▣ 독일 장애인 일자리창출 사회적기업 방문

- 유럽 선진국 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과정 및 중점사항 자료수집

※ 당초 방문예정지 '독일 보건부'의 기관사정(방역관련 긴급회의)에 따라 방문지 변경

❑ 방문목적

○ 지체장애인 등의 자립적인 생활 보장을 위한 일자리창출 교육과정 현황 및 방문기관(사회적기업) 운영실태 등 자료수집

○ 도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 추진방향 모색

❑ 개 요

○ 방문일시 : 2019. 9. 19.(목) 13:00~14:30 (현지기준)

○ 장 소 : Carl-Zeiss-Str. 2, 55129 Mainz

○ 면 담 자 : Treuber 공보관 등 2명

○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비고
13:00~13:10	'10	환영인사 및 참석자 소개	
13:10~14:00	'50	기관 브리핑청취 및 질의·토론	
14:00~14:05	'05	기념품 전달	
14:05~14:30	'25	기관 시설 및 주요 운영현황 견학	
14:30		단체 기념촬영	

❑ 시 사 점

○ 금번에 방문한 기관은 독일 마인츠에 소재한 INB(In Betrieb Gesellschaft fuer Teilnahme und Integration)라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 전문 사회적 기업임

- 630명 이상의 장애인(18세~65세) 참여, 350여명의 직원 상주
- INB와 같은 장애인 직업교육 전문기관은 독일 현지에 약 600여개 운영

○ 장애인들의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능력향상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 취업연계와 보수교육 등을 병행하고 있음

- 직업관련 기술습득 뿐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향상을 위한 교육 등 진행 (스포츠, 문화예술, 기초학문 학습까지 함께 추진)
- 정원관리, 원예, 문구점, 원목가공 등 다양한 분야에 장애인들이 취업을 통한 사회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

○ 이 밖에 직업교육 과정을 거친 장애인들이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 수준 보장

- 장애인들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다양한 교육 등을 통해 안정적인 경제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 인상
- 다만, 유럽 역시 국가 주요산업이 단순 제조업에서 첨단산업으로 확산되는 현실에 따라 장애인 직업교실 참가자에 대한 저조한 취업률 (3% 이내) 극복은 사회적 고민

❑ 활동사진



- 2019.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

유럽 공무국외출장 일일 활동사항 보고

< 연수 4일차 주요일정 (9월 20일) >

1 독일 레버쿠젠 시청·시의회 방문

2 2019. 국제장애인용품 전시회 방문 (독일 뒤셀도르프 개최)

<독일 레버쿠젠 시청·시의회 방문>

❑ 방문목적

○ 여성 권익증진,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유럽 선진국 우수정책 수집

○ 유럽 의회 운영현황 청취 등 우수 의정시스템 벤치마킹

❑ 개 요

○ 방문일시 : 2019. 9. 20.(금) 09:00~10:50 (현지기준)

○ 장 소 : Friedrich-Ebert-Platz 1, 51373 Leverkusen

○ 면 담 자 : 마렌푸스키 (레버쿠젠시 명예시장, 시의원)
리시라트 코넬리아 (레버쿠젠시 여성부 국장)

○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비고
09:00~09:10	'10	환영인사 및 참석자 소개, 기념촬영	
09:10~10:20	'70	시청 및 의회현황 브리핑, 질의토론 등	
10:20~10:30	'10	기념품 전달	
10:30~10:50	'20	시설 현장견학	본회의장 등

❑ 주요내용 및 시사점

○ 독일의 경우 완전한 지방분권의 실현으로 지방정부의 개념에서 각 부서별 부서장이 지방장관의 역할로 지역정책을 총 책임지는 업무를 맡고 있음

○ 레버쿠젠시 여성부는 1959년에 신설된 후 여성단체 지원, 성평등, 가족 공동체 복지 등에 대한 역할 총괄

- 연도별 양성평등 정책 실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계층별 소득수준 등을 포함한 세부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

○ 레버쿠젠시 전체 공직자의 64% 정도가 여성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등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음

- 공직사회 여성간부 비율은 46% 수준, 민간의 경우 40% 내외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이는 지난 10년간 비교했을 때 약 10% 정도 상승한 수치
  (법적인 의무할당제는 없지만 양성평등 실현의 이념 속에서 그 비율을 높이기 위해 자발적인 노력 중)
- 이 밖에 공직구성은 시간선택제 근무자가 1/3 정도 차지하고 있으며 근무환경의 경우 자택근무도 적극 권유하는 등 유연적인 환경
-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민간에 있어서도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등에 많은 노력
- 특히, 젊은 여성들을 위한 학업, 취업, 안전 등에 대한 체계적인 매뉴얼북 제작으로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진출을 위한 다양한 편의제공

○ 가정폭력 등의 피해를 입을 여성들을 위한 '여성의 집' 을 운영하고 있으며 1개소당 연간 160명 정도의 여성 혜택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그 규모를 확대할 방침임

○ 레버쿠젠 시의회는 시의 3개구에서 선출된 52명의 시의원으로 구성

- 정당별 수는 기독교민주당(현 여당) 17석, 사회민주당 14석, 기타 군소정당이 3~5석 정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장 역시 시의원으로서 정당 정책에 따른 사업을 펼치는 등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음

※ 기타 특이사항

❶ 레버쿠젠시의 경우 인구 16만 정도의 중소도시로서 시청사(의회 포함)는 시민의 접근성이 편리한 대규모 유통시설 내 위치하여 공공기관 방문을 희망하는 민원인들의 접근 편의제공을 하고 있음

❷ 탈권위적인 의회 회의장 구성으로 집행부서와 상호존중의 입장에서 본회의 등 의사일정 진행이 매우 합리적으로 이뤄지고 있음

❑ 활동사진



<2019. 독일 뒤셀로프트 국제장애인용품 전시회>

❑ 방문목적

○ 국내외 장애인 보조기기 현황조사 및 체험을 통한 비교분석

○ 도내 장애인 보조기기 발전방안 및 개선책 모색

❑ 개 요

○ 방문일시 : 2019. 9. 20.(금) 13:30~16:30

○ 장 소 : 독일 뒤셀도르프 국제장애인용품 전시회장

○ 주요내용

-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한 각종 보조기기 비교체험
- 국내 참여업체 관계자 격려 및 애로사항 청취

〈 박람회 개요 〉

○ 개최기간: 2019. 9. 18.~9. 21. *1977년 이후 매년 개최

○ 주요내용: 의료기기, 약품・위생, 건강・복지・실버산업 등

○ 참가국수: 43개국 (독일,한국,중국,타이완,네덜란드,이탈리아 등)

- 한국 43개 업체 참여, 66개 제품 전시

○ 규 모: 행사장 32,092㎡, 약 4만명 참관



❑ 시 사 점

○ 독일 뒤셀도르프 국제장애인용품 전시회는 전 세계 장애인들의 편의제공과 장애인용품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주는 대표적인 박람회

○ 특히 해당 박람회는 단순히 장애인 용품 전시와 바이어 상담 등의 역할 뿐만 아니라 독일 주정부 차원에서 전담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장애인 복지 확대 필요성과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향후 장애인 보조기기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행사임

○ 전 세계 43개국이 참가한 이번 행사는 국내의 경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43개의 기관, 업체가 참여하여 66개의 우수한 제품을 전시하였으며, 이는 대한민국 장애인보조기기가 매우 뛰어난 수준에 이르고 있는 점을 확인하는 계기였음

- 다만, 국내의 경우 고가의 장애인보조기기 구입, 보급의 어려움으로 해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따라서 고가의 장비, 제품, 보조기기를 구입하지 못하는 장애인에게도 차원에서 보조기기 지원 제도 마련 필요

- 특히, 학령기 자세유지가 필요한 장애 아동청소년의 자세유지를 위한 장애아동청소년유모차형 휠체어 지원사업의 선제적 도입 검토 필요

○ 또한 충청북도 보조기기 사업에 있어 유지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리사업 모니터링을 보조기기센터를 통한 추진과 함께 치매예방 관련 보조기기, 제품 등에 대한 도민들에게 대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시각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활동사진



- 2019.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

유럽 공무국외출장 일일 활동사항 보고

< 연수 7일차 주요일정 (9월 23일) >

▣ 네덜란드 호그벡 치매마을 방문

- 치매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방안 연구와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한 치매환자의 존엄성 보장

❑ 방문목적

○ 세계적인 치매안심마을로 유명한 호그벡 치매마을 방문을 통한 주요 운영현황 및 정책자료 수집

○ 국내 치매안심마을, 치매안심센터 등 활성화 및 개선방안 연구

❑ 개 요

○ 방문일시 : 2019. 9. 23.(월) 14:30~17:00 (현지기준)

○ 장 소 : Heemraadweg 1, 1382 GV Weesp

○ 면 담 자 : Iris van Slooten - Klarenbeek / Office Manager

○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비고
14:30~14:40	'10	환영인사 및 참석자 소개	
14:40~15:20	'40	호그벡마을 브리핑청취	
15:20~16:20	'60	시설 현장견학	
16:20~16:50	'30	기타 질의응답	
16:50~17:00	'10	단체 기념촬영 등	

< 호그벡 치매마을 현황 >

-시설면적: 14,310㎡ (4,639평)
-건립비용: 1,920만 유로(한화 약 236억원)
-연운영비: 1,462만 유로(한화 약 180억원)
-인 원 ('19. 9월 기준, 자원봉사자 제외)
 · 대상자(치매환자) : 169명
 · 직원수 : 170여명(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 대상자 5~6명씩 네덜란드 가정 형태로 가구구성
-운영재정: 네덜란드 사회보장제도 지원, 수득수준에 따라 이용료 부담
 ※ 개인 이용 부담금 1인당 월 160~2,300유로 (소득수준에 따라 편차, 그 외 부족분 정부지원)





❑ 주요내용 및 시사점

○ 이용자 생활을 기반으로 마을의 요소(종교, 공원, 쇼핑 등 편의시설)을 포함하도록 구성된 마을형 노인요양시설

- 마을 이라는 공동체 개념으로 운영, 거주 가정뿐 아니라 마을 내 모든 시설물에 환자의 개성과 취향 등 존중
- 의료진 등 직원은 미용사, 정원 등으로 위장 근무, 각 가정마다 5~6명 직원 개입

○ 전문 종사자가 편의시설 등에서 환자를 맞이하고 있고 안전한 치매환자 배회를 위한 시설 구조물이 있어 치매에 안심되는 마을

- 현재 국내에서도 다양한 치매안심마을 사업이 있어 이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시설 중심의 치매안심마을 사업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안심마을을 구현할 것임

○ 국내의 경우 지역생활(재가, 돌봄), 장기요양(시설입소, 주간보호), 의료(치료) 등 다영역을 포괄할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

- 치매관리사업은 '인식개선', '치매예방', '치매환자' 등 대상 영역에 따라 수행되고 있음

○ 충북에는 타 시도에 비해 우수한 사업 모델이 있으며 이에 대한 확대 노력 필요

- 치매안심마을 : 진천, 옥천 중심 시범사업을 통해 금년도 14개소 운영
- 찾아가는 독거노인아카데미 : 독거노인의 치매안전망 구축사업, 노인복지영역과 연계한 사업으로 보건과 복지 각 영역이 갖고 있는 특성을 활용한 연계사업

○ 치매환자 지역 생활을 지원하는 보조장치 체험 도입(확대) 필요

- 일본의 경우 지역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노인 케어용품 전시장을 통해 노인용품을 체험하고 있음
- 우리의 치매안심센터는 경도인지장애 또는 초기 치매환자들이 이용하는 보건시설로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를 위한 생활지원 보조장치 체험장을 설치하고 치매 전 단계 또는 초기 단계부터 충분한 체험 후 가정에 보조 장치 설치를 지원한다면 치매에 있어서 더 건강한 생활이 가능할 것임

❑ 활동사진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유럽 선진국 복지정책비교 공무국외출장
vivium
Verpleeghuis
Hogewey
De Hogeweyk

기타1 정책복지위원회 휴일 활동사항 보고

▣ 정책복지위원회 유럽 선진국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5~6일차(휴일) 활동사항과 관련입니다.

<5일차 : 9. 21.(토) 벨기에 브리쉘 어린이박물관 견학>



→ 도심 속 아동친화 문화시설 설치를 통한 어린이 상상력 제고와 유아의 시각에 맞춘 미래 직업체험 기회 제공

<6일차 : 9. 22.(일) 네덜란드 대중교통(트램) 체험>



→ 트램 탑승시 휠체어 진입편의를 위해 출입구내 경사면 설치와 기타 장애인의 편의 제공을 위한 등받이 설치 인상적

(다만, 트램 폭이 협소함에 따라 열차 내 휠체어 이동이 불편한 점은 아쉬운 사항)

기타2 **유럽 현지언론 보도자료 스크랩**

▣ 정책복지위원회 2일차(9.18) 공식방문 중 마더센터 활동사항에 대한 독일 유력 지역대표 언론사(랑겐신문) 보도자료 스크랩입니다.
※ 해당기사 내용은 외국어 번역 작업을 거쳐 추후 공지예정

Positive Weichenstellung

REGIONALTANGENTE WEST Planungsgesellschaft für Bahntrassen-Verlängerung

VON MARKUS SCHAIBLE

Langen – Positive Signale für eine Verlängerung der Regionaltangente West (RTW) bis nach Langen: Im Ausschuss für Umwelt, Bau und Verkehr der Stadtverordnetenversammlung gab sich der Geschäftsführer der RTW-Planungsgesellschaft, Horst Amann, als klarer Unterstützer des Wunsches zu erkennen. Und er zeigte Politikern und Verwaltung auf, was getan werden muss, damit die Anbindung Langens an die Nahverkehrstrasse auch eine Chance auf Realisierung hat.

Die wichtigste Information für die Langener Akteure dabei: Auch wenn das aktuell laufende Planfeststellungsverfahren für den Abschnitt Süd 1 (bis Buchschlag) die Verlängerung nicht beinhaltet, kann diese hinterher in einem separaten Antrag eingearbeitet werden und dann immer noch im Gesamtmaßnahmenplan realisiert werden.

Zwar hatte Amann nicht – wie erhofft – die um die Südverlängerung erweiterte Nutzen-Kosten-Untersuchung (NKU) dabei, da die Zahlen noch bei den zuständigen Stellen von Land und Bund zur Prüfung liegen. Doch auch ohne diese waren seine Aussagen klar positiv: „Der volkswirtschaftliche Nutzen ist gegeben, die NKU wird durch die Erweiterung Langen zusätzlich stabilisiert." Und: „Der Nutzen-Kosten-Index kann verbessert werden." Dieser muss über 1 liegen, damit das Projekt rentabel ist und bezuschusst wird. Ohne Langen liege er bei 1,16, sagte Amann auf Nachfrage, mit der Anbindung der Stadt werde er auf 1,23 oder 1,24 steigen.

Die planerische und betriebliche Machbarkeit sei bereits durch Gutachten bescheinigt. „Die Fortführung der RTW bis Langen ist somit grundsätzlich möglich", betonte Amann.

Wichtig ist ihm, dass keine Beeinträchtigung der Planfeststellung für Süd 1 erfolgt.



Vom Kreis Offenbach in den Taunus: Die Regionaltangente West ist ein ambitioniertes Projekt – und Langen möchte als Südende mit dabei sein. Immerhin: Technisch ist die Verlängerung auf den bestehenden Gleisen kein Problem. Und rentabler wird die RTW durch den Anschluss der Stadt auch.

Denn obwohl die Einwendungsfrist noch bis 19. Oktober (für Träger öffentlicher Belange nur bis heute) läuft, sehe es im Augenblick sehr gut aus. „Die Einwendungen sind bis zur Stunde beherrschbar", das lässt mich hoffen, dass wir mit einer Runde (bei der Offenlage der Pläne; Anm. der Red.) auskommen", so Amann. Und deshalb sei er zuversichtlich, im Laufe des kommenden Jahres einen Beschluss durch das Regierungspräsidium Darmstadt zu erhalten.

„Wir müssen Süd 1 zu Ende bringen, dann Langen dranhängen, ansonsten würden wir sinnlos Zeit verlieren", so der RTW-Geschäftsführer. Dennoch müsse relativ rasch eine Entscheidung über die Verlängerung getroffen werden, da eine finanzielle Förderung nur in Verbindung mit dem Gesamtprojekt erfolgen könne.

> **„Der volkswirtschaftliche Nutzen ist gegeben, die Nutzen-Kosten-Untersuchung wird durch die Erweiterung Langen zusätzlich stabilisiert."**
> Horst Amann
> RTW-Planungsgesellschaft

Zeitlich sei das alles darstellbar: Für ein erforderliches EU-weites Ausschreibungsverfahren für die Planung rechnet Amann mit sechs bis acht Monaten. Die eigentlichen Planungsarbeiten auf Grundlage der Machbarkeitsstudie dürften etwa 18 Monate dauern. Da es aber im Gesamtprojekt Stellen gebe, an denen umfangreiche Bauarbeiten nötig sein, werde selbst bei idealem Verlauf vor 2026 kein Zug auf der Gesamtstrecke rollen. Und in diese lange Gesamtbauzeit würden auch die geringen Arbeiten für die Verlängerung reinpassen.

Eines machte der RTW-Geschäftsführer aber auch deutlich: „Langen wird Kosten haben" – egal, ob die Stadt selbst Gesellschafter wird oder sich wie bisher vom Kreis vertreten lässt. Und es sei wichtig, sowohl gegenüber dem Kreis als auch den übrigen Gesellschaftern Initiative zu ergreifen und schriftlich die Erweiterung des Projektbereichs zu beantragen. Dies müsse schnell geschehen, damit in der kommenden Gesellschafterversammlung darüber gesprochen werden könne. Dann sei ein Beschluss im zweiten Quartal 2020 möglich.

„Das schaffen wir", betonten Erster Stadtrat Stefan Löbig und Fachbereichsleiter Carsten Weise unisono und kündigen Gespräche an – sehr zum Wohlwollen der Kommunalpolitiker. Für Langen heißt es nun hoffen. Die Chancen scheinen auf jeden Fall gut zu stehen – denn Amanns Fazit liest sich wie folgt: „Die Projekterweiterung wird sowohl vom Kreis Offenbach wie auch der RTW GmbH begrüßt."

Rund um den Vierröhrenbrunnen

Neue Idee ein ganz alter Hut

Ins Alte Forsthaus in der Mörfelder Landstraße ziehen Kinder ein – das haben wir am Samstag verkündet. Nachdem die Stadt überraschend die Möglichkeit erhielt, das sich in ihrem Besitz befindliche Gebäude auch selbst zu nutzen, soll dort schon bald eine Kindertagesstätte entstehen.

Doch neu ist die Idee, in dem Haus Kinder zu betreuen, nicht, wie sich nun bei unserer Leser Walter Schaffner, mittlerweile 90 Jahre alt, aus eigener Erfahrung. Ging er doch Anfang der 1930er Jahre selbst in jenem Forsthaus in der Mörfelder Landstraße 61 in den Kindergarten. „Der wurde von der Tochter des damaligen Försters Hess geleitet", berichtet er. 15 bis 20 Kinder dürften es damals gewesen sein, so genau weiß Schaffner das nicht mehr. Aber Namen von Kameraden aus dieser frühen Zeit hat er noch parat: Kurt Klingler, der Sohn des damaligen Metzgers, ging ebenso mit ihm in den Kindergarten wie Brigitte Klock, Tochter des früheren Arztes in der Bahnstraße. Und noch eine andere Geschichte hat der Senior parat – wohnte er doch seinerzeit in der Altstadt, in der Frankfurter Straße. Jeden Morgen marschierte der kleine Steppke allein bis zum Lutherplatz, wo ihn die Kindergärtnerin erwartete, um dann gemeinsam mit weiteren Kindern quer durch die ganze Stadt laufen. Und nachmittags wieder zurück. Denn das Eltern-Taxi gab es damals noch nicht.

Nun also kehren die Kinder ins Alte Forsthaus zurück. Wenn das kein gutes Omen für die neue Einrichtung ist, meint Ilse Tobias

Auszeit auf dem Bauernhof

Egelsbach – Ein Nachmittag auf dem Bauernhof bietet Menschen mit Demenz und ihren Angehörigen. Ihren Fähigkeiten und Interessen entsprechend können die Teilnehmer bei der Versorgung der Tiere helfen, den Hofladen besuchen oder einfach das Hofleben beobachten – das alles unter fachkundiger Begleitung. Der Aufenthalt von 15 bis 16 Uhr bietet außerdem Gelegenheit, Menschen in einer ähnlichen Lebenssituation kennenzulernen. Die Teilnahme kostet acht Euro pro Person. Anmeldung nimmt die Seniorenberaterin Ann-Katrin Adams unter 06103 405153 entgegen.

IN KÜRZE

Mit Handy am Steuer – das wird teuer

Langen – Weil in der Dunkelheit das Handydisplay hell leuchtete, hat eine 28 Jahre alte Frau aus Bad Nauheim eine Ordnungswidrigkeitsanzeige kassiert. Einer Streife der Langenselbolder Autobahnpolizei fiel durch das Licht im Fahrzeuginnern am Dienstagabend gegen 20.30 Uhr auf, dass die Frau auf der A 661 am Steuer ihres Fiat 500 das Mobilgerät verbotenerweise in der Hand hielt. Nach dem aktuellen Bußgeldkatalog wird ein „Handyverstoß" laut Polizeipressestelle in der Regel mit 100 Euro und einem Punkt im Verkehrszentralregister geahndet. Bei wiederholten Verstößen hat die Bußgeldstelle allerdings auch die Möglichkeit, von diesem „Regelsatz" abzuweichen und ein höheres Bußgeld festzulegen.

Kitabasar auch mit Spielzeug

Langen – Die Kita Hegweg, Hegweg 17, veranstaltet am Samstag, 21. September, wieder ihren Herbstbasar. Diesmal werden Kleidung und Spielzeug angeboten, der separate Spielzeugbasar entfällt. Zwischen 14 und 16 Uhr (Schwangere ab 13.30 Uhr) können die Besucher Kleidung für Herbst und Winter, Sportbekleidung, Kinderwagen, Playmobil, Lego, Spiele, CDs, Bücher und mehr erstehen. Es gibt auch ein Kuchenbüffet.

Bayerische Nachkerb

Egelsbach – Die Egelsbacher feiern kräftig weiter: Am Sonntag, 22. September, ist Nachkerb. Ab 11 Uhr gibt es beim bayerischen Frühschoppen im Zelt auf dem Sportgelände am Berliner Platz Oktoberfestbier, Blasmusik und zünftige Köstlichkeiten. Passende Musik kommt von den Original Egelsbacher Dorfmusikanten. Der Eintritt ist frei.

Nova Brasil spielen nicht

Langen – Das für Sonntag, 22. September, geplante Konzert von Nova Brasil im Kulturhaus Altes Amtsgericht muss wegen Erkrankung eines Musikers entfallen. Die Gruppe sei in dieser Besetzung nicht spielfähig. Der Auftritt wird voraussichtlich im kommenden Jahr nachgeholt, teilt die Musikschule mit.

Weißwürste bei der Jakobusgemeinde

Langen – Die katholische Kirchengemeinde St. Jakobus lädt am Sonntag, 22. September, ihr Oktoberfest in der Thomas-von-Aquin-Kirche an der Berliner Allee 39. Nach dem Gottesdienst um 10.30 Uhr beginnt der Frühschoppen. Es gibt Weißwürste, Haxen und Leberkäs. Ab 13.30 Uhr dann Kaffee und Kuchen.

Alle unter einem Dach

Lokalpolitiker aus Südkorea informieren sich im ZenJA über das Prinzip Mehrgenerationenhaus

VON JULIA RADGEN

Langen – Ein Betreuungsraum für die Jüngsten, ein Lesesaal für Schüler, ein Familiencafé und ein Spieletreff für Senioren – das Zentrum für Jung und Alt (ZenJA) vereint Angebote für alle Generationen unter einem Dach. Das gibt es in Südkorea noch nicht. Um mehr über das Prinzip Mehrgenerationenhaus zu erfahren, besuchte deshalb eine Delegation aus der Provinz Chungbuk das ZenJA. Die zwölf Männer und Frauen gehören dem Ausschuss für Politik und Sozialwesen des Provinzrates an und legten auf ihrer viertägigen Deutschlandreise einen Stopp an der Zinniestraße ein.

Monika Maier-Luchmann führt die Gäste durchs Haus. „Das hier ist unser Babytraum – hier treffen sich die Eltern mit ihren Kindern zum Reden und Spielen", erklärt die ZenJa-Koordinatorin und führt die Südkoreaner in das Zimmer. Alles, was sie sagt, wird von dem mitgereisten Dolmetscher übersetzt. Die Gäste schauen sich neugierig um, nicken anerkennend. Dann geht es schon zur nächsten Tür: Maier-Luchmann zeigt den Betreuungsraum für die Krippenkinder. „Normalerweise schlafen hier bis zu zehn Kinder", erklärt sie. Doch gerade ist der helle Raum leer, sodass die Südkoreaner in Ruhe das Spielzeug und die selbst gebastelte Wanddekoration betrachten können. Hinter der nächsten Tür spielen ein paar ältere Damen gerade Karten. „Normalerweise sind wir die Bridgegruppe, aber heute spielen wir mal was Anderes", erklärt eine von ihnen den freundlich lächelnden Gästen aus Festrost. „Bei uns in Korea wird auch viel Karten gespielt", kommentiert der Übersetzer grinsend.

Die südkoreanischen Kommunalpolitiker – bereits die zweite Besuchergruppe aus dem Land – haben beim ZenJA angefragt, ob sie das Haus besichtigen können. „Im Moment gibt es in unserer Region so etwas noch nicht – jede Generation hat ihre eigene Einrichtung", erklärt Sang-Don Park, Vorsitzender des Ausschusses. So könne keine Kommunikation – beispielsweise zwischen Senioren und Kindern – stattfinden. „Aber wir bereiten gerade Anträge für ein Mehrgenerationenhaus vor und holen deshalb Informationen ein", so Park.

Deswegen interessieren sich die Besucher auch für die Finanzierung – und fragen Maier-Luchmann nach Schwierigkeiten. „In der Anfangsphase war die Politik zurückhaltend, es hat fünf Jahre gedauert, das Haus auf den Weg zu bringen", gibt sie zu. Und erklärt darauffin das Prinzip der deutschen Fördertöpfe, aber auch, dass das ZenJA Geld durch Kurse einnimmt. „Seit 13 Jahren gibt es uns jetzt und wir arbeiten immer noch mit viel Freude", betont Maier-Luchmann – und erntet dafür bewundernde „Ooohs" von den Gästen.

Aber auch einige praktische Tipps bekommen die Südkoreaner mit auf den Weg: „Wir achten darauf, dass wir alle Räume für mehrere Sachen nutzen können – sie nicht nur einen Zweck erfüllen und zweimten leereten", sagt Maier-Luchmann. Nach gut zwei Stunden verabschieden sich die Gäste. Nicht ohne Geschenke aus ihrer Heimat zu überreichen und – ganz wichtig für Koreaner – den fast schon zeremoniellen Austausch der Visitenkarte jedes Einzelnen.



Karten spielende Senioren im einen Zimmer, Säuglinge im nächsten: Monika Maier-Luchmann führte eine Delegation aus Südkorea durch das ZenJA. Die Lokalpolitiker wollen in ihrer Heimat ein Mehrgenerationenhaus realisieren.

- 2019.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

유럽 공무국외출장 일일 활동사항 보고

< 연수 8일차 주요일정 (9월 24일) >

1 네덜란드 스타트업빌리지 방문

2 이준열사 기념관 방문 (유럽 유일의 항일기념관)

<네덜란드 스타트업빌리지 방문>

❑ 방문목적

○ 청년정책 우수사례 연구 및 우리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방문 (운영현황, 주요정책 자료 수집 등)

○ 청년 취·창업을 위한 우수사례 연구로 지역 맞춤형 청년정책 활성방안 모색

❑ 개 요

○ 방문일시 : 2019. 9. 24.(화) 12:00~13:30 (현지기준)

○ 장 소 : Science Park 608, 1098 XH Amsterdam, 네덜란드

○ 면 담 자 : MR. Bert Rap / Events manager

○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비고
12:00~12:10	'10	환영인사 및 참석자 소개	
12:10~12:50	'40	시설 현장견학	
12:50~13:20	'30	시설운영 브리핑 및 질의응답	
13:20~13:30	'10	기념촬영 및 기념품 전달	

❑ 주요내용 및 시사점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타트업 빌리지 조성 목적은 첨단 기술 및 과학분야의 예비창업 기업들을 유치하고 서로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동반상승효과를 도모

- 3개 섹션으로 구분된 39개 컨터이너에서 청년 예비창업기업 입주 (2007년 개소)

○ 스타트업 빌리지 입주자들은 2년의 기간 동안 공동작업 공간, 응급실, 인터넷서비스, 법률지원 등의 편의시설을 무상으로 지원하며, 저렴한 비용으로 행사장 등을 예약·사용할 수 있음

○ 대부분의 스타트업 기업은 다른 기업 및 단체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관련 지식과 기술의 공유가 활발히 이뤄짐

○ 충북의 경우 최근 청년들의 창업지원 및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하여 충북청년희망센터를 개소하였으나 주요 선진지 유사시설에 비해 그 규모가 협소함

- 수원시에 위치한 '경기상상캠퍼스'를 롤모델로 삼아, 향후 이전 예정인 자치연수원 부지 등을 활용하여 청년들의 창업, 복합문화공간을 넘어 가족공동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추가 공간조성 마련 필요

❑ 활동사진



<네덜란드 이준열사 기념관 방문>

❑ 개　　요

○ 방문일시 : 2019. 9. 24.(화) 14:30~15:30

○ 장　　소 : Wagenstraat 124, 2512 BA Den Haag (네덜란드)

○ 주요특징

- 1620년대 네덜란드 헤이그에 지어진 건물로 370여년간 가정집, 상가, 극장, 호텔 등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1995년 8월 5일 현재의 이준열사 기념관으로 개소함
- 1907년 6~7월경 고종황제의 밀명을 받은 이준, 이상설, 이위종 등 세 명의 헤이그 특사가 제2차 만국평화 회의 참석을 위해 머문 장소
- 이준열사가 숨을 거둔 장소로 유럽 유일의 독립운동 성지로 나라사랑, 평화사랑 정신을 일깨워 주는 교육장

❑ 방문효과

○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유럽 유일의 독립운동 성지인 이준열사 기념관을 방문을 통한 애국심 고취

❑ 활동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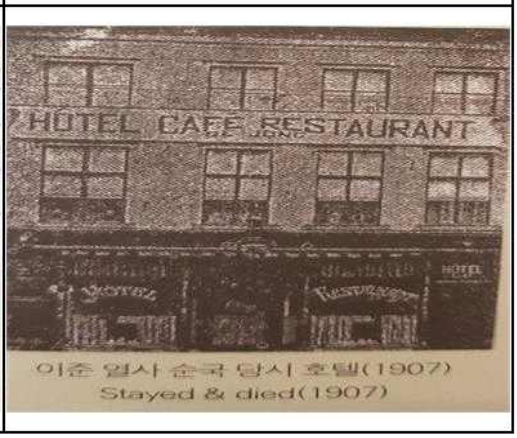









YI JUN PEACE MUSEUM


HOTEL CAFE RESTAURANT
이준 열사 순국 당시 호텔(1907)
Stayed & died(1907)

Ⅴ 공무국외출장 후기

1 박상돈 위원장

사실 이번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연수단 단장을 맡으면서 출발 전부터 큰 걱정과 고민을 안고 추진했었다. 2017년 우리 도의회 해외연수 논란과 함께 올해 초 예천군의회 사건까지 지방의회의 해외연수는 매년 많은 논란과 함께 지역사회에 비난을 받아 왔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정책복지위원회는 변화하는 지방의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의회 공무국외출장을 진정한 연수로 변화시키기 위해 위원회 위원 6인 모두는 준비단계부터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며 준비에 최선을 다했다.

금년 5월부터 국외출장을 본격적으로 준비했지만, 사실 우리 위원회의 국외출장은 이미 지난해 7월부터 진행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평소 정책복지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져왔던 평생교육, 성평등, 공공의료, 치매관리, 장애인 보조기기, 청년정책 등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복지분야 전반에 대해서 평소 꾸준히 연구하고 선진지 벤치마킹 등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번 연수가 그간 국내에서 취합한 다양한 정보와 자료 등을 통해 우리와 비슷하거나 좀 더 유리한 조건에 있는 유럽 선진국 복지제도 현황과 비교 분석하여 우리도의 실질적인 정책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추진하였다.

1일 1기관 이상의 방문일정을 실천하기 위해 7박 9일간의 짧은 일정 동안 무려 11개의 기관, 전시장 등을 방문하였고, 특히 공식적인 기관 방문이 불가능한 주말·휴일에도 어린이박물관, 트램체험 등의 현장견학으로 달라진 지방의회 국외출장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우리 도의회 사상 최초로 국외출장 기간 동안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일일 활동사항 보고를 시행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내실 있는 해외연수 진행을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하였다.

기관별 방문을 살펴보면 독일 평생교육센터의 경우 독일 시민 뿐만 아니라 이주민들까지 교육에 대한 욕구 충족을 위해 언어교육, 취업교육 등의 다양한 평생교육을 추진하고 있었고 그곳 현지에서 평생교육을 수강받고 있는 한국인을

만나 진솔한 의견을 듣고 한편으로 전 세계 곳곳에 퍼져있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느낄 수 있었다.

마더센터의 경우 사실 시설방문 전까지도 매우 생소했던 공간이였다. 우리 위원회 육미선 의원의 기획, 추천으로 추진한 마더센터의 경우 방문하기 전까지만 해도 육아 정보를 교류하기 위한 어머니들을 위한 공간으로 인식을 했었다. 하지만 막상 기관을 방문해 보니 어머니 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같이 자녀육아에 동참하고 나아가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들까지 전 세대를 아울러 함께 소통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매우 인상적인 공간이었다.

따라서 우리 도에도 이러한 마더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면 저출산 문제로 어려움에 빠진 대한민국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든다.

특히, 마더센터 방문하는 동안 독일 랑겐신문 관계자의 취재로 우리 위원회를 독일 현지에 널리 알리게 된 점을 매우 기쁘고 금번 우리 위원회의 연수실적을 보다 풍성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레버쿠젠 시청의 경우 시청사 건물을 찾기까지 다소 애를 먹었었다. 우리처럼 관공서 이미지를 풍기는 건물이 아닌 도심 속 유통시설 내에 위치했었기 때문이다. 왜 그런가 했더니 청사시설 유지비도 최소화 하고 시민들의 시청사 접근성 향상을 위해 그랬다고 한다.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관공서가 시민들이 접근하기 편한 곳에 위치한다면 다양한 민원업무 처리에 있어 매우 편리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나마 우리나라의 경우 다행인 것은 대규모 공공이용시설 내에 24시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다는 점, 이 점에 대해선 IT선진국인 우리나라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실력을 갖추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다.

시청사 내에선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코넬리아 여성국장을 만났다. 2시간 여정도의 짧은 시간이였지만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전체적인 여성정책에 대한 내용은 우리와 큰 차이는 느끼지 못했다. 다만, 여성의 사회적 참여 비율이 우리와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었고 특히 여성 간부비율이 40%가 넘는 부분에 대해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독일의 준비과정이 우리보다는 긴 시간을 할애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다.

뒤셀로드르 국제장애인용품 전시회의 경우 보다 내실 있는 전시장 관람을 위해 우리 연수단을 2개조로 나눠서 꼼꼼히 살펴봤다. 다양한 국가, 다양한 기업에서 각자가 그간 개발한 장애인 보조기기를 전시, 홍보하였고, 특히 한국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여 우리의 기술을 설명하는 점이 매우 인상 깊었다. 한편으론 우리의 보조기기 수준이 우수한 점에도 불구하고 정작 국내 장애인들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점이 어려운 면을 지켜봤을 때 의회 차원에서 보조기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발굴한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된다.

독일, 벨기에를 거쳐 네덜란드에서는 호그벡 치매마을과 청년 창업지구인 스타트업 빌리지를 방문했다.

호그벡 치매마을의 경우 치매환자에게 자유와 편안함을 주어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치매환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점이 특색이었다.

다만,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러한 시설을 운영하기에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비용이 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선 호그벡 마을 역시 인정을 하고 있고 수익사업을 창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한다.

국내에서도 서울시 용산구에서 호그벡 치매마을을 벤치마킹하여 치매마을을 조성하고 있다고 하는데 향후 사업조성이 완료되고 나서 꼭 한번 방문을 해봐야 하겠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마을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추진사업 개선으로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는 부분을 찾고 올해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진천군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보다 확대하여 운영한다면 치매환자뿐만 아니라 노인건강 복지에 보다 나은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다.

청년창업 스타트업 빌리지의 경우 저렴한 폐컨테이너를 활용한 공간 창조로 청년들의 상상력 제고와 저렴한 임대, 운영비로 초기 창업준비자에게 도움을 주는 공간이었다.

우리의 경우 최근 충북청년희망센터를 개소했지만 규모와 내용을 비교했을 때 아직은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이 든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경기도 수원시에 소재한 '경기상상캠퍼스'

방문을 통해 청년창업을 위한 공간제공과 함께 청년을 넘어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한 모습을 비교견학 한바 있다.

마침 우리 도에서도 최근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접목하여 향후 활용 방안을 연구해 본다면 충북 청년일자리 창출과 건전한 가족문화 조성에 큰 힘이 될 거라 생각된다.

이번 연수단의 총 단장으로 매우 바쁜 일정으로 진행된 정책복지위원회 국외출장은 연수 기간 동안 몸은 많이 힘들었지만 한편으로 매우 보람차고 의미 있는 연수였다고 말하고 싶다.

연수기간 동안 모든 의원님들이 하나 되어 사건사고 없이 계획한 대로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에 단장으로 매우 다행으로 생각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연수를 위해 묵묵히 행정지원을 해준 이강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전문위원실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번 연수기간 동안 보고 배워온 자료를 통해 남은 전반기 상임위 활동 기간 동안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도민에게 행복을 듬뿍 드리는 정책복지위원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

2 최경천 부위원장

■들어가며

2008년 정부 노사발전재단의 지원으로 선진국 노사정 사업(지금의 경사노위)과 노사관계를 배우기 위해 독일과 프랑스를 방문한 이후 이번에는 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의원 신분으로 유럽 선진국의 복지 서비스 현황 및 평생교육과 청년정책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도정의 복지정책에 적용하고 연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두 번째로 방문했다.

▣9월 17일(화)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한 우리는 Batzenhaus(프랑크푸르트 소재)로 이동한 후 당초 19시경 저녁식사와 함께 독일 헤센주 의회 라쉬도르프 의원 등 의회 관계자를 만나기로 했으나, 교통정체와 지리정보 부족 등으로 20시가 되어 식당에 도착했다.
예정 시간보다 늦게 도착한 관계로 우리 의원들과 간단한 상견례와 잠깐의 일반적인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 후 헤어질 수밖에 없어 다소 아쉬웠다.

▣9월 18일(수) 오전

평생교육센터(Community Adult Education Center)=시민대학

Wiesbaden에 위치해 있는 평생교육센터를 오전에 방문했다.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있으며, 1921년에 개교하였다 한다. 교통이 비교적 편리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설립초기에는 시민 교양교육과 노동자 교육(일하는 사람들의 보수교육)을 시작으로 했으나, 1933년 독일 나치에 의해 잠시 폐교되기도 하는 아픔을 겪었고 전쟁이후 50~60년대에는 재정부족 문제를 겪었으며, 외국어 교육(30여개국)을 개설 강화한 이후 1970년대부터 교육수준이 프로페셔널하게 변화하였다 한다. 1992년에는

창조적이고 진보적인 내용들의 노인대학까지 설립하기에 이르렀으며, 2004년에는 자체 시민대학에서 어학자격증까지 발급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다. 2007년에는 6200명의 난민에게 기본적인 독일어 언어교육까지 실시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거의 종합대학에 이르는 수준으로 재정지원은 60%는 공적 지원으로 나머지 개인이 40% 정도를 부담한다고 한다. 일반 다른 교육기관보다는 상당히 저렴한 비용이다.

강의 내용 역시 기본적인 독일어강좌부터 주방위생, 정원관리 등의 쉬운 것부터 경제학과 철학 그리고 정치수업과 교육상담 및 직업진로 상담까지 지역특색을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과 피교육자에게 실제로 유용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근간에는 독일로 이주하는 난민이 많아지면서 많은 부분을 독일어 언어교육에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 2011년부터는 독일의 인구 약 600만 명이 독일어 맞춤법 사용이 부족해 기본 문법과 맞춤법 정자에 대한 어학 기본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한다.(문해 교육) 또한 때로는 주말을 이용해 예술 사진 전을 개최하는 등의 문화행사도 겸하고 있다.

강좌 수는 총 1884개의 강좌를 개설하고 있으며 연간 수강생이 2만 5천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는 당해 주의 인구가 29만 명인 점을 감안한다면 거의 10%에 가까운 인원이 참여하는 숫자이다.

2019년도의 개설강좌 구성을 살펴보면 난민을 위한 어학강좌(47%) 건강, 스포츠강좌(24%) 문화강좌(16%) 직업교육(11%) 정치교육(2%) 등 순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1인당 약 150유로(한화로 약 20만원) 정도이면 10번 정도의 강의에 참석할 수 있다고 한다. 연간 소요예산은 800만 유로(한화로 약105억원)가 소요되며 재정의 충당은 헤센주정부에서 40%, 비스바덴 시청에서 23%, EU에서 2%를 지원받고 있다하고 자체로 재정을 70%를 조달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시민대학을 운영하는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발표자의 말에 의해서도 재정조달을 위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결국 '물량공세

(개설과목1884개)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조직의 구성원은 STAFF 직원은 60여명이 근무하고 있고 각 개설과목마다 적게는 100명부터 많게는 160명까지 강사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이 시민대학의 자랑이라 한다. 이중 46%가 정규직이라 한다.

(사화학 강사 100명, 문화부 강사 150명, 직업교육, 구직교육강사 120명, 어학부 160명, 건강부, 시니어아카데미, 아동교육) 결국 이 평생교육센터는 아동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과 모든 업종에 대해 광범위하고도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다.

▶정책제언

우리 충북은 2011년 2월 「충청북도 평생교육 진흥조례」제정을 통해 그 해 4월부터 충북연구원에 충북평생교육진흥원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나 그 수준이 미약한 실정임.

(인원 7명(겸직2, 전임5), 예산역시 미흡(2019년도 5억 2천 5백만원))

평생교육의 의미는 언제, 어디서, 누구든지 자신이 원하는 교육과 학습을 누릴 수 있는 전반적 시스템을 말함. 이에 우리 충청북도의 평생교육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도와 11개 시-군이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평생교육 시스템이 필요함. 따라서 우리도는 이를 위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조직, 예산이 필요함은 물론, 이의 기능강화와 실제적인 운영을 위한 조례 제·개정과 정책이 필요함





▣9월 18일(수) 오후

마더센터(Mehrgenerationenhaus)

Zimmerstr 랑겐의 마더센터를 방문했다. 주변에 학교와 주택가가 있어 사람의 접근성이 매우 좋은 곳에 위치해 있었다. 독일 마더센터는 1980년에 처음 시작 되었는데 출산 후 겪는 어려움과 갈등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운동의 결과물로 알려져 있다. 이곳 랑겐 마더센터 역시 지자체와 지역주민에게 설득을 위해 준비한 기간만 약 5년이 시간이 필요했다고 한다. 근간에는 이용자가 많아지고 성과도 있는 만큼 지역정치인들의 관심도 꽤 높아졌다고 한다. 연중 무휴로 운영되고 있는 마더센터는 처음 지어질 때에 토지와 건물 거의 모두 지역민들의 기부형식으로 지어졌다고 하니 이 또한 놀랄만 하다. 랑겐 마더센터의 규모는 대지 약 150평 규모에 건평 약 40평 정도에 2층으로 지어져 있었다. 마더센터의 첫인상은 그냥 '평범한 집' 같았다 다만 아이들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또 인종에 관계없이 다양하게 모여 사는 대가족처럼 보여졌다. 유아들은 엄마와 함께 실외 모래터에서 놀고 있고, 실내 식당에서는 간식과 차를 만들어 먹고 마시며 새내기 엄마들은 아기들과 놀아주는 공부(?)를 하고 있고, 노인들은 방 한편에서 카드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이 이색적으로 보이기도 했지만 평화롭게 보이기도 했다. 마더센터는 독일 전 지역에 400여개가 존재하고 있으며 다세대 하우스까지 포함한다면 500여개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세계 곳곳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다.

직원은 31명 정도이나 대부분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있고 무보수 자원 봉사자 역시 최대 90여명 까지 이른다고 한다. 부분적인 교육도 이루어지지만 일상생활에 근접하고 쉬운 교육들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재봉교실, 수선, 언어교습, 컴퓨터 또는 육아에 관한 사항 등 이지만 직접 체험한 마더센터는 그냥 편하게 가족 같은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멘토 역할을 해주고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의 가족과 인종적인 현안에 대해서도 대응하고 있는 모습이다. 운영방식은 지자체의 직영 방식이 아닌 거의 모든 재정을 후원과 자발적 봉사로 부담하고 있고 교육 역시 이 재정문제로 인해 50% 정도를 교육자가 부담한다고 한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처럼 세대를 뛰어넘어 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활이 가능할까?' 하는 궁금증도 있었지만 독일의 마더센터 역시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한다. 방문 중에 랑겐의 지역신문에서 한국에서 온 의원들을 취재하기 위해 우리와 동행하였는데 또 하나의 즐거움이 되었다.

▶정책제언

독일의 마더센터는 지역사회의 육아문제 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 공동체를 재건하는데 역할을 하였다. 주민관계를 새롭게 만들고 '아이 한 명을 기르는데 한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개념을 확산시켰다. 우리나라 역시 아직까지는 일부지자체(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대전, 경산시 등)에서 '행복마을 마더센터'라는 이름으로 소수가 운영되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마더센터에 대해 긍정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더욱이 근간 우리나라의 핵가족화 및 출생률의 저하 문제를 생각한다면 독일의 마더센터가 주는 시사점은 크다 할 수 있다. 특히 충북은 마더센터가 전무한 실정이고 줄어드는 인구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도 지자체의 예산과 운영 경험부족 등의 문제로 특정지역의 시범운영을 통해 이를 확산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충북의 마더센터 운영을 위한 조례 제·개정도 필요하다.

비록 처음에는 이러한 정책들이 성과를 내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제대로 정착만 된다면 많은 부분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9월 19일(목) 오후

INB(독일 장애인 일자리 전문 사회적 기업)

2시간 30분 정도 버스를 타고 마인츠 지역에 있는 INB 장애인 사회적 기업을 방문하였다. 일단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과 작업장이 넓어 보이고 장애인들의 활동 역시 자유로워 보인다. 18세부터 65세까지의 장애인이 참여하고 있으며 350명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다고 한다. 독일에는 이러한 장애인 직업교육기관이 약 600개 정도가 있다.(지자체 내에는 36개) 교육기간은 2년제로 하고 있으며, 1년은 직업기술과 대화능력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있고 2년차에는 실습과 외부 적응 훈련을 주로 한다고 한다. 교육 및 근무시간은 장애정도에 따라 2시간부터 8시간까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고, 장애인 취업 성공사례를 묻자 유치원 보조교사, 양로원 돌봄이,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서무 관리 등을 예를 들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기업 취업률의 질문에는 3% 정도로 답하고 있어 선진국인 독일 역시 우리나라와 같이 취업의 장벽은 여전히 높은 듯하다. 대신 자체적인 생산품을 만들고 있었는데 가볍고 제작이 용이한 공산품(방향제 등)등을 취급하고 있었다. 다만 장애 정도가 덜한 장애인들이 금속제품을 가공, 생산하고 있는 것은 좀 이채로워 보였다.(물론 거의 안전장치가 완벽하고 자동공정의 단순 생산이었지만)

연간 총 매출액은 132만 유로(한화로 17억 5천만 정도)에 이른다고 한다. 결국은 장애인들에게 취업의 목적보다는 일하는 보람과, 삶의 존재감을 주기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보여진다(스포츠 댄스, 가벼운 수학 교육, 언어, 춤, 요리, 신체교정 훈련 거의 모든 개인 취미와 상담까지 진행) 특이한 것은 사회적 기업 내에 유치원, 기숙사, 관사 등을 함께 운영하고 있고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위해 최저임금 이상(독일은 현재 약 13,000원 정도가 최저임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는 아마도 장애인 특성상의 단시간 노동으로 인한 임금과 정부지원금(1명당 사회적 기업

60유로, 장애수당 1인당 200~300유로, 시설운영비 추가지원)으로 인해 최저임금보다 높게 형성 되지 않았나 싶다. 우리나라와 독일의 장애인 사회기업에서 분명히 다른 것은 장애인의 활동공간이 크고 자유로워 보이며 굉장히 활발해 보였다.(나만 느낌이 그랬나?)

▶정책제언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지원정책은 전에 비해 많이 나아진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독일의 경우와 같이 장애인들을 일반기업에 취업을 시킨다는 것 또한 용이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지방자체단체(출자출연기관 포함)만 이라도 현재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장애 의무고용률 만이라도 지켜주면 좋겠다.(2019년도 장애인 의무고용률 - 일반기업: 노동자 100명 이상 3.1%고용 -지자체(출자출연기관 포함): 노동자 50명 이상 3.4%) 이를 위한 우리 정책복지 의원들의 감독과 지도도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는 어떤 수익과 상관없이 '일하는 즐거움, 사회에서 장애인들을 위해 배려하고 있으며, 일반인들과 동등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도움 정책이 필요하겠다. 또한 장애인들의 장애시설 활동공간과 장애인 기업 운영 공간 역시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를 내다보는 차원에서 건축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9월 20일(금) 오전

레버쿠첸 시청-의회 방문

시청이라고 했는데 도착한 곳이 일반상가이다. 상가건물에 시청이 위치하고 있었다. 공간 역시 우리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협소한 편이다. 코넬리아라고 하는 여성평등정책 담당관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일행을 맞았다. 올해 6월부터 이 업무를 시작했다고 한다. 독일의 양성평등법은 1949년에 법으로 제정되었고 1984년 여성평등국이 개국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여성평등국에서는 지역 여성단체의 관리와 가족 및 지역 성 평등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여성의 복지부분까지 책임을 지고 있다 한다. 연 단위로 양성평등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레버쿠젠 지역의 공공, 사무직 직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64%라고 한다. 여성 간부의 점유율 역시 2009년에는 37%이었던 것이 2019년에는 46%로 증가 했단다. 우리나라의 여성간부 점유율을 생각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가정폭력에 대한 상담서비스와 더불어 여성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 연간 16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는데 출판물, 여성관련 행사진행, 산후조리 등을 진행한다. 여기에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교육과 호신술 세미나 까지 실시한단다. 젊은 여성들을 위한 핸드북도 발간하고 있으며, 환경관련 집회에도 지원을 하고 있다. 의원 중에 독일의 여성임원 할당제에 질문을 하자 40% 미만이라고 답을 한다. 이 역시도 우리나라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굉장히 높은 수치이다.

대화중에 '명예시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시민의 대표란다. 아마도 우리나라의 정무직 수행을 하는 업무와 비슷한 것 같다. 이어서 레버쿠젠의 총 예산중 여성국의 1년 예산을 묻자 여성정책관과 명예시장이 잘 모르는 눈치이다. 올 6월에 명을 받았다고 하니 좀 이해를 해야 할 듯하다. 이어 독일의 출산율이 근간 부분적으로 상승한 이유(1.43►1.5%)에 대해 질문을 하자 여러 가지 정책 중에 유치원 자녀에 대한 지원정책과 육아휴직 지원정책(2년간 임금의 60% 지원)을 말한다.

지역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유치원비중 1일 5시간은 무료로 하고 6시간부터는 부모소득에 따라 원비를 구분하여 받고 있단다. 하지만 레버쿠젠 지역은 유치원 교육을 전액 무료로 지방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내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물론 육아정책에 대한 지원도 지원이지만 유럽사회의 노동자 임금정책이 그나마 우리보다 출산율을 높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유럽의 임금정책은 대부분의 국가가 비정규직과 단시간 노동자들이 정규직 노동자들 보다 시간당 임금을 높게 받고 있음은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업종별로 나뉘어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인 빈곤감이나 박탈감이 적어 이것이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도록 하는 근원이 아닌가 한다.

▶정책제언

레버쿠젠 여성평등정책 담당관의 지역 여성정책의 세부사항을 숙지하는 정도는 우리 충북의 여성가족정책관이 훨씬 뛰어나다고 생각했다.(숫자개념이 의외로 부족했음)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은 그동안 많은 성장과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위의 숫자에서도 본바와 같이 여성간부 참여율이 40%이고 여성 임원 할당제 역시 연방 법으로는 50대 50으로 되어 있지만 비록 40%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이 역시 우리나라 그리고 충북과는 너무도 비교되는 수치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아이 출생률 역시 2006년부터 출생률 정책에 152.9조원을 쏟아 부었지만 정작 출생률은 1.132명에서 0.977명으로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그동안의 잘못된 출생률 정책은 분명 재고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지역의 출생률 정책 역시 레버쿠젠의 자녀지원 정책처럼 '수혜자가 직접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발굴해 내고 국가의 정책에 있어서도 교육과 육아를 책임져주는 정책, 그리고 나아가서는 노동자들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차별까지 줄여 젊은이들이 상대적인 빈곤감과 열등감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정책도 결국에는

결혼생활 후의 육아정책과 연결되기에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결국 여성과 아이출생의 문제는 여성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국가의 책임도 중요하고 남성들의 여성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해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다. 또한 우리 충북이 올해부터 여성정책관을 '여성가족정책'관으로 변경하고 활동방향을 '가족'으로 확대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다.





▣9월 20일(금) 오후

뒤셀도르프 국제장애인용품 전시회 참관

1977년 이후 매년 개최되는 국제장애인용품전시회는 올해 9.18~9.21까지 개최된다고 한다. 장애인을 위한 의료기기부터 약품, 위생, 건강, 복지, 실버산업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용품들이 선보이고 있으며 난생 처음 보는 장애인용품 전시회 규모가 엄청나다. 전시회 규모가 32,092㎡에 이르고 참가국은 총 43개국 800여개 업체가 참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43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었다. 장애인을 위한 보조 보행기부터 계단을 쉽게 오르내릴 수 있는 꽤 큰 규모의 전동식 이동 휠체어와 의자까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장애인들을 위한 기구와 용품들이 다양하다. 관람 중 한국기업을 방문하던 중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한 가지는 장애인들을 위한 세면기가 있었는데 높낮이를 수압에 의해 조절되는 제품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극히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시공한 아파트가 있다고 하는데 꼭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도 어른과 아이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설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다른 관심을 끄는 한 가지는 장애인 주자창이나 공용시설에서 장애인이 위급한 상황 시 벨을 누르면 즉시 경광등이 반짝이고 본인 핸드폰에서 영상과 함께 실시간 상황을 원하는 곳 2~3곳으로 즉시 연락이 가능하다고 하는 일종의 스마트 비상벨이 눈길을 끌었다. 이러한 시스템을 장애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지역의 우범지역이나 1인 여성활동이 빈번하거나 가구가 많은 곳에 설치를 한다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문제는 '비용'인데 업체에게 문의한 결과 컴퓨터에 프로그램과 앱을 설치하는 비용이 약 7천만원 소용되고 비상벨 한 개 씩을 추가하는데는 5만원 가량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 제품에 있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무선'으로 경광등과 소리 그리고 화면상황까지 원하는 곳에 전달된다는 것이었다. 장애인용품 전시회장을 돌아보며 언젠가는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들을 위한 이러한 대규모의 장애인용품 전시회가 한 번 쯤 개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정책제언

본 의원은 근간 우리나라에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1인 여성가구의 안전문제'에 대해 조례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1인 여성가구의 안전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까? 하는 중에 발견한 이번 뒤셀도르프 국제장애인용품 전시회에서 발견한 스마트 비상벨은 상당히 유용한 결과로 만들어 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또한 충북지역에서도 지역의 장애인들을 위한 보조기구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홍보와 장비 부족 등으로 제대로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기회로 지역장애인들을 위한 긴급상황 시스템도 점검해보고 제대로 된 장애인 보조기구 홍보와 새로운 장비의 도입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의 질을 높였으면 하는 소망이다.





▣9월21일(토)

벨기에 그랑플라스 광장과 거리 그리고 어린이 박물관

우리는 뒤셀도르프를 떠나 3시간 30분 정도의 버스 이동으로 벨기에 브뤼셀에 도착했다. UN본부(직원이 2만명, 독일이 예산 50% 지원)와 NATO 건물을 둘러보고 브뤼셀의 다채로운 행사가 열리는 시의 중심지 '그랑플라스'로 향했다. 그랑플라스는 13세기 대형시장이 생기면서 발달하기 시작했는데 당시에는 '길드 하우스'라고 불리웠고 제빵, 목공, 양복업자 등의 모임과 휴식 등을 위해 지어졌으며, 현재는 은행이나 카페 또는 호텔로 이용되고 있다 한다.

시청사는 15세기에 건설된 것으로 고딕양식으로 지어졌다. 1695년 프랑스의 침입에도 유일하게 건물이 파손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랑플라스 지역은 1998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그랑플라스는 주간이나 야간이나 화려함과 호화로움을 뽐내는 위용이 대단하다.

그랑플라스와 더불어 주변 상가들의 초콜릿과 쿠키 그리고 와플, 해산물 요리, 감자튀김의 상가들은 관광객들에게는 또 하나의 볼거리요 먹을거리요 놀거리이다. 그랑플라스 뿐만아니라 그랑플라스를 중심으로 사방으로 뻗어있는 상가들마다 인산인해이다. 그런데 그랑플라스 근처에 있는 오줌싸개 동상은 브뤼셀의 마스코트 답지 않게 영 실망이다. 이게 어떻게 브뤼셀의 마스코트가 됐나 궁금할 따름인데 현지가이드는 유럽의 모든 명물들은 그들만의 문화와 감성을 건드리는 '스토리텔링'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유명해졌다고 한다. 공감이 가는 말이다. 우리나라의 '전설의 고향'과 같은 이야기이다.

중식 후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 박물관을 방문했다. 그러나 박물관이라고 하기 보다는 차라리 '아동 놀이터'라고 하는 편이 낫겠다 싶다. 그러다보니 아쉽게도 우리나라보다 뛰어나게 좋은 점이나 특이한 점은 발견할 수 없었다. 이정도이면 아동 놀이터만큼은 우리나라가 더 낫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방문아동들도 그리 많지 않은 듯하다.

▶정책제언

우리도 청주의 성안길과 연계한 관광지는 없을까? 과연 충북의 먹을거리, 놀거리, 볼거리, 마스코트는 무엇일까? 하는 생각. 삼겹살 거리보다는 충북만의 '짜글이 거리'를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환경을 보존해가며 관광을 활성화 시키는 방법은 무엇일까? 제대로 된 관광지 하나가 엄청난 인구를 먹여살리고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9월 22일(일)

캐널 크루즈 탑승과 트램시승체험

브뤠셀을 떠나 다시 3시간 30분 가량 버스를 타고 네델란드 암스테르담으로 이동했다. 휴일임에 모처럼 암스테르담의 캐널 크루즈에 탑승하여 도심지의 운하를 돌아보았다. 도심에 위치한 운하 덕분에 암스테르담 곳곳을 돌아 볼 수 는 있었으나, 운하의 물이 영 깨끗해 보이지는 않는다. 역시 관광을 통해 경제는 좀 좋아졌을는지 모르지만 사람의 손 발길이 많이 닿는 만큼 환경은 나빠지기 마련인가 보다.

거의 모든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이류를 물으니 유럽의 거의 모든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건물끼리 서로 지탱하고 보완하기 위해 빈틈없이 건물을 붙여 짓는다고 한다. 또한 옛날 건물들을 부수고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고치고 또 고쳐 사용하여 전통의 맥을 이어간다고 하는데 건물모양이 수평이 조금씩 틀어진 것도 볼 수 있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건물들이 즐비하다.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이라 할까?

저녁식사 전에는 암스테르담의 트램을 체험했다. 트램으로 인해 대둥교통 수단에 도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타는 동안 '안전과 위험'에 관련 하여는 고민할 필요가 조금은 있다고 보여 지고 철도 궤도와 비슷한 방식으로 움직이다보니 의외로 소음과 진동이 크다. 이러한 트램을 우리나라에 설치할 경우 트램 설치 주변의 소음도 문제지만 진동으로 인한 주변 건물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또 청주 같은 경우에는 소음과 진동문제의 트램보다는 차라리 스마트폰의 앱을 이용한 '우버 자전거' 활용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9월 23일(월) 오전

풍차마을 잔센스칸스

풍차마을로 유명한 잔센스칸스로 이동했다. 잔센스칸스 지역의 풍차는 네덜란드가 스페인의 침입에 대항해 싸웠던 80년 전쟁(1568~1648) 중에 지어진 흙으로 만든 요새에서 유래했으며, 18세기 까지만 해도 잔센스칸스 지역에 풍차가 600여개 정도가 존재 했다고 한다. 산업혁명 이후 풍차의 용도가 줄어들자 1961년 11개의 풍차를 모아 재개발, 현재의 풍차마을을 이루게 되었다고 한다. 풍차마을 안에는 나무로 만든 나막신 공장 및 치즈공장이 있었다. 나막신 공장에서는 5분 만에 직접 나막신을 제작하는 모습도 선보였다. 나막신이라 해서 우리가 알고 있던 일본형의 나막신이 아니라 정말로 다양하고 화려한 나막신들이 많았다. 치즈공장 역시 공장이라 하기 보다는 판매장에 가까웠고 다양한 치즈를 맛볼 수 있었다. 풍차마을의 수입창출을 위해 치즈판매장과 나막신공장과 판매장을 끼워 넣은 마케팅 전략이 뛰어나다.

▣9월 23일(월) 오후

호그백 치매마을

이번 연수중 가장 관심이 갔던 곳이다. 비영리재단인 '비비융'그룹에서 운영하고 있다. 35년 전 가정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치매환자를 치료하는 '요양소'형태로 시작했다. 독일 역시 1992년까지만 해도 지금의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게 전통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진행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의 호그백 마을은 10년 전 건물을 리모델링 후 현재의 방법(탈시설화를 통한 인간존엄성의 회복, 마을과 지역공동체와 같은 정상적인 삶의 방법으로 치료)으로 치료를 시작했고 치매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출입구가 1개로 되어있다. 도심지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외딴 곳도 아닌 소규모 마을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4500여 평의 부지에 건축, 치매환자 169명에 직원 200여명과 자원봉사자 140명이 1:1로 환자를 돌보고 있다 한다.

현재의 시설은 3년간의 공사기간에 약 255억원이 투입되었으며, 연간

운영예산은 한화로 약 180억원이 소요된다. 거주시설을 포함한 극장, 미용실, 마트, 식당, 써클 룸(35개 활동클럽)과 주점까지 있어 거의 평상시설과 다르지 않게 느껴진다. 치료방법 중 특이한 것은 아무리 중증치매환자가 있더라도 절대로 묶어놓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지금의 네덜란드 일반치매병원에서는 문제가 있는 중증치매환자를 묶어놓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한다) 치매환자들을 호그백 마을 안에서는 최대한 '자유롭게' 생활 할 수 있도록 한단다. 또한 호그백 마을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자원봉사자 역시 일반적인 실생활로 보이기위해 유니폼을 착용하지 않는다. '환자'라는 표현을 쓰지않고 '주민'으로 표현한다. 거주 공간 역시 네덜란드의 일반적인 가정과 동일하게 꾸며졌으며, 치매이전의 생활방식과 비슷한 사람들로 구성해 6~7명이 같은 공간에서 생활한다.

우리 의원들의 질의시간에 담당자는 다음과 같이 답변한다.

문1. 호그백 마을이 치매환자들에게 효과가 있다면 왜 네델란드 전체에 확대되지 않는가?

답: 여전히 정부에서도 도입 노력중이다. 환경이 다른곳(도심지)을 적용하기가 힘들고 아직도 네델란드에서는 호그백 마을의 치료방법 보다는 의학적인 치료접근법의 사고전환의 어려움이 있다. 현재는 타국가(프랑스, 이탈리아)등에서 이제도를 도입이 진행중인데 호그백마을에서 자문을 해 주고 있다.

문2. 호그백 마을 이용비용 대해 말해달라

답: 입소비용 소득정도에 따라 최저 160유로(21만원)에서 최고 2300유로(300만원 정도)/월=개인부담 1인당 6000유로(770만원) 정부지원, 건물유지 및 관리비 1일 1인당 35유로 지원(지자체)

***이것은 과거 자료를 보면 담당자에 따라 답변 내용이 조금씩 다르게 느껴지는데 분명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고 분명한 것은 일반적인 치매병원보다는 비용이 '비싸다' 것은 확실하다.**

문3. 호그백 마을을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답: 기존의 규칙들과 싸우는 것(규제의 문제), 치매환자의 정상적인 삶을 위한 관리자나 그 외 간호사들의 트레이닝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그렇게 훈련하고 교육하는 곳이 없음(오로지 의학적인 치매교육만 있음)= 정서의 차이

그 외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미래의 호그백 마을의 담장을 없애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호그백마을과 치매환자의 상관관계나 치료결과 등에 대해서 연구결과는 있으나 연구결과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한다. 그저 '일'을 진행해 나간다고 함.
대화 중에 호그백 마을은 '재단법인'인 관계로 적자가 나지않게 사업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한다.(해서 매칭사업이 중요하다고 설명) 또한 근간에는 호그백마을관련 자문 컨설팅으로 70만 유로(9억 1천만원)의 수입도 있었다고 소개한다.

▶정책제언

사실 호그백 마을을 치매이전의 생활과 인간존중의 개념으로 시작한 치료방법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치매환자의 '안전'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시설을 만든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치매환자를 위한 안전장비(GPS, 배회인식표, 지문등록), 치매안심마을 사업 등을 잘 활용한다면 지역 치매환자 관리사업이 보다 실용적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진천, 옥천 중심의 치매안심마을을 다시 한 번 호그백 마을의 운영방법 등에 대해 벤치마킹 할 부분은 실시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정책에 대한 재고민이 필요해 보임.

그러나 호그백 마을의 사례에서도 확인했듯이 자연적인, 일상생활적인 치매 치료방법이 효과가 있고, 인간 존엄성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문제는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된다는 점임. 이에 우리 충북지역에서는 현재의 운영되고 있는 각종 치매센터나 치매 안심마을 등의 운영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연계하여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임. (초기 치매환자의 치료, 검사 등의 홍보와 활성화 필요, 사전 대비가 더 필요함) 또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이나 치매환자들에 대해서는 도심지에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극히 우려와 반대를 표시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치매 역시도 미래에 우리 모두에게 다가올 일이기에 거부반응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고 중증치매이전초기의 치료방법(생활치료를 포함한)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방법들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





▣9월 24일(화) 오전

네덜란드 청년스타트업 빌리지

우리는 암스테르담 사이언스파크 내에 있는 네델란드 청년스타트업 빌리지를 방문했다. 거의 모든 건물들이 컨테이너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이했다.(중고 컨테이너로 제작했다함)

청년스타트업을 위한 컨테이너는 크기에 따라 세 종류로 제작되어 있었는데 크기에 따라 월 이용료가 450유로(59만원), 1050유로(137만원), 2100유로.(275만원)로 나뉜다. 조성목적은 첨단 기술 및 과학 분야의 스타트업 기업들을 유치하고 서로 간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동반상승효과를 도모했다고 한다. 네델란드 내의 과학기관과 암스테르담 대학, 암스테르담 시가 사업파트너로 참여하고 있고, 2016년 10월부터 기업들이 입주하여 2017년 4월 공식 개장했다. 2019년 현재 39개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입주해 있다.. 공동 작업공간, 응급실, 보안, 알림

서비스 등은 공동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주로 입주기업들은 첨단 과학기술기반과 IT기업들이 많다. 컨테이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있고, 근간에는 소규모의 이민자 공간도 있다고 한다. 성공 창업 사례를 묻자 스타트업 빌리지 출신의 빅 스튜던트라는 벤체기업인데 4명이 출발해 현재는 50명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해 있다고 한다.(인공지능, 블록체인 사업) 입주기본조건과 기준에 대해 질문하자 대학생(과학, 공학부문 우선)이며 학장의 허가서가 있어야 하고 일반인도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지자체의 도움(예산의 30%)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학생이 우선대상이라고 한다. 비록 건물은 컨테이너이지만 청년스타트업 빌리지에 근무하는 청년들은 매우 인원이 많고 활발해 보였다. 또한 컨테이너 건물이기에 더위와 추위를 위한 방법들과 자연친화적인 분위기를 만들기위해 곳곳에 노력한 흔적들이 많이 보였다.

▶정책제언

현재 충북의 경우 도내 청년을 위한 정책과 도민을 위한 평생학습 공간 인프라가 타지역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임. 경기도의 경우 수원시에 소재한 이전 서울대 농대 약 5만평의 부지에 경기도 상상캠퍼스를 설치해 청년들의 창업, 교육지원,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창업, 문화예술공간, 휴식, 평생학습, 미래를 실험하고 삶의 문화를 창조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음.

네덜란드의 청년스타트업 빌리지 역시 막대한 예산을 들이지 않고 중고 컨테이너를 구입하여 4차 산업에 대비한 첨단 기술 및 과학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스타트업 빌리지'를 개소하여 운영중임.

우리 충북의 경우 현재 자치연수원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바, '이전 후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연구용역이 진행중인데, 이 공간을 충북청년들을 위한 각종 창업(바이오, 과학, IT, 반도체, 화장품 등) , 고용관련 교육훈련, 연구, 일자리 사업 및 휴식공간과 도민들이 찾아가는 문화예술

및 평생 학습공간으로 병행하여 활용한다면 새로운 충북의 '랜드마크'가 됨은 물론, 줄어드는 청년인구의 유입과 궁극적으로는 아이출생률을 촉진시키고 도민들의 교육과 휴식, 여가를 위한 활동공간으로 발전시킨다며 삶의 질 향상까지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9월 24일(화) 오후

마지막으로 헤이그에 있는 이준열사 기념관을 찾았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에 방문한 열사 기념관이다 보니 감회가 남다르다. 이준 열사 기념관 현재의 자리는 1907년 7월 14일 열사가 순국한 그 현장이라 한다. 이준 열사는 제 2차 만국평화회의에 이위종, 이상설 두 분과 함께 우리나라 대표로 헤이그에 왔다. 목적은 일본의 을사늑약의 무효를 세계에 알리고 국권을 회복하려 했으나, 일본의 방해와 강대국들의 냉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 대신 헤이그에서 1907년 6월 27일 헤이그 밀사 3인이 "왜 대한제국을 제외시키는가?"라는 항의문을 평화회의보에 게재했다. 이준열사 기념관은 유럽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항일 독립운동 유적지로 1995년 8월 5일 개관했으며, 이준 열사의 유해는 1963년 수유리 4.19 묘지로 안장되었다. 비록 작은 공간이었지만 이준 열사의 국권회복을 위한 간절함과 애절함을 느끼기에는 각종 유품과 그동안의 기록을 보면 충분했다. 이준열사 기념관을 돌아보며 일본이 과거 36년간의 일제침략에 대해 사과는커녕 침략과 위안부 문제를 합리화 하고 근간 일방적으로 '경제전쟁'을 선포하고 계속적인 '혐한'을 유도하는 것을 보면서 결코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더욱 깊어졌다.




▣그 밖에 느낀 것들

1)안전

독일과 벨기에 그리고 네델란드의 거의 모든 시설물 계단에는 오르고 내릴 때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일종의 '사이드 바(안전난간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많이 설치되지 않은 구조물이다. (의외로 계단에서 낙상사고가 많음)

자동차의 전조등의 경우 3개국 역시 모든 국가의 자동차들이 운전 중 날씨가 아무리 좋아도 전조등을 켜고 운행을 한다(95%정도) 우리가 연수중에도 정말 날씨가 쾌청했는데 모든 차량이 전조등을 켜고 운행을 하고 있었다. 이 또한 도로의 자동차 주행안전을 위한 방안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아울러 모든 버스들이 운행속도가 100km를 넘지 못한단다.(속도계에 기록된다 함) 또한 두 시간 이상을 운행하면 반드시 운전기사가 안전을 위해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연수 중 버스운행이 정말 안정되고 편안하게 느껴졌다.

2)환경

모든 식당에서 우리나라처럼 식수를 플라스틱 통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1회용 유리병을 사용하고 있었다. 위생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환경'을 생각하는 것이 곳곳에서 느껴졌다. 특히 거의 모든 대형 마트에서는 제품들을 과대 포장한 것을 보지 못했고(박스제품이 거의 없고

낱개제품이었음) 1리터 이상 큰 음료수 통들 역시 유리병 아니면 종이로 제작되어 있었다.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이 아니었나 한다. 또한 선진국이지만 건강과 환경을 위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정말 많았다.

고속도로 화장실 뿐만 아니라 대형매장 등에서는 반드시 화장실 사용료가 있었다.(50센트에서 1유로까지!) 처음에는 '불편하게 화장실까지 돈을 받고 있나?'하는 생각을 했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즈음 화장실 사용료를 받음으로 어쨌든 작은 일자리라도 생길 수 있었고,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공공화장실에서의 불법카메라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겠다 하는 내 생각으로 바뀌어져 있었다. 불법카메라 문제로 도 예산을 투입해 가림막까지 설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몇 군데 선정해서 해봄직한 정책 아닐까?

3)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배려와 공동의 시설 우선 그리고 체면문화

독일 프랑크푸르트부터 네델란드까지 고속도로 통행중 우리는 대형 승용차를 그리 많이 발견하지 못했다. 대부분의 승용차들이 2000cc를 하회하는 소형 승용차가 대부분 이었다(70% 정도) 그 이유에 대해 가만 생각해보니 이들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제도와 시설에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투자하고 보완하지만 자기 개인들을 위한 시설에는 아주 인색한 것을 발견했다. 소형자동차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식당들이 공간이 비교적 작고 식탁조차도 그리 크지 않았다. 거주하는 주택 역시 그리 크지 않다고 한다. 반대로 우리나라를 생각해보면 큰 차(좋은 차). 비싸고 큰 집, 좋은 것, 내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즉, 우리들은 어쩌면 외형적인 '나의 체면'을 중요시 여기는 대신 이들은 '실용적이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는 기꺼이 참아내고 양보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것 같았다. 그러다보니 세계대전을 1차 2차 두 번이나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EU(유럽연합 28개국)를 창설 할 수 있었고, 국경의 문을 활짝 열어 하나의 유럽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맺음말

12년 전 정부 노사발전 재단의 후원으로 선진국의 노사문화를 배우기 위한 방문 때의 느낌과 이번 의원 신분으로 방문한 느낌은 사뭇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동안 사회복지 전반에 걸쳐 괄목한 성장을 이루었다고 생각한다. 독일을 포함한 3개국 방문 시 모두 사회복지 전반에 걸쳐 유형이나 예산 및 방법들이 우리나라와는 조금 상이하고 앞으로 더 나아져야 하겠지만 많은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이 아주 많이 뒤져있다고는 느끼지 못했다. 특히, 유럽의 광활한 평야지대나 초목지대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국토가 좁고 산이 70%인 점을 감안한다면 2018년에 이루었던 수출 6천억불(세계 6위)과 국민소득 3만불을 넘은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느꼈다.

이번 우리 정책복지 해외연수는 도민들의 평생학습을 위한 '평생학습센터'와 세대를 뛰어넘는 소통과 공존을 위한 '마더센터' 그리고 노인치매환자를 위한 '호그백 마을' 또한 청년일자리를 위한 '청년스타트업'과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용품 전시회 참관'까지 어느 것 하나 소홀 할 수 없었고 배울 것이 많았던 연수였다. 비록 휴일과 돌아오는 마지막날까지 빡빡한 일정 이었지만 피곤함을 다 뒤로할 수 있는 유익한 연수였다고 자평하고 싶다. 또한 본 의원은 이미 이번 의회 개회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수내용과 도의 정책을 연결하는 내용을 발표하려 계획하고 있으며,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특히 정책복지위원회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체감했다. 연수를 통해 보고 느낀 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어떻게 하면 우리 도정 정책에 접목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하게 됨은 물론, 이러한 정책을 만들어내고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 하반기 의회구성에서도 다시 한번 정책복지 위원회에 남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행복한 고민을 할 수 있게 하였다. 나는 분명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 정책복지 위원회 의원들이 좋은 연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도민들과 연수에 불편이 없도록 잘 준비하고 헌신적으로 도와주신 정책복지 위원회 공무원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3 박형용 위원

7박 9일 연수 기간이 부여한 의미

Ⅰ. 머리말

충청북도의회 11대 의원으로 당선되어 28세부터 국가 사회보장제도 중 전국민 의료보장기관에 30년간 몸담았던 경력과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바, 충북의 사회복지 정책 분야에 일조하기 위하여 정책복지위원회를 상임위로 선택하여 그동안 나름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한지 1년이 2월이 지나는 시점에서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들과 지난해부터 약8개월간의 공무 국외출장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연수대상 국가를 우리보다 사회복지 제도 등 선진화된 유럽 중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3개국으로 최종 선정하여 복지서비스 현황 및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도정 복지정책 적용 및 의정 연구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식기관 방문, 체험 , 견학 및 국제박람회 참관 등의 직접참여로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한 견문과 지식을 습득하여 우리 충청북도의 복지 선진화 기반구축 계기를 마련하고자 전문위원실 주축으로 국가별 연수과제를 선정하고 자료 등을 수집하여 이동경로에 따른 일정 계획표를 수차례 착오 수정 등 반복 과정을 거쳐 작성 완료되기까지 수고하신 우리 상임위 이강근 수석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이병하 전문위원 김기범, 배상준, 이은혜 주무관 및 박상돈 위원장을 비롯한 이상욱, 심기보, 최경천, 육미선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린다.

추석연휴 끝나자마자 17일 새벽 6시에 출발하기 위해 여행 가방을 꾸리다보니 전날 밤 늦게까지 준비를 완료하고 알람을 17일 새벽 5시에 맞추어 놓고 처음 가보는 나라들로 여행전야의 설렘에 자는 둥 마는 둥 일어나 새벽 공기를 가르며 고속도로를 거쳐 도청에 오전7시에 도착하여 여행 가방을 인천공항 이동 전세버스에 싣고 차를 주차한 후 30

분정도 여유가 있어 정책복지위원실로 올라가니 해당의원님들과 전문위원실 직원들이 다함께 마무리 점검을 하고 있었으며 공교롭게도 산업경제위원회도 공무 국외출장을 동일기간에 계획한 바, 출발부터 17일 숙박까진 동행하게 되어 나름 든든한 마음이 들었다.

오전 7시40분경 모든 점검을 마치고 출발하여 인천송도 국제공항에 도착 및 출국수속을 마치고 12시 50분 대한항공 독일 푸랑크푸르트행 비행기에 탑승하여 낯선 행선지에 대한 긴장감에 졸리지도 않아 지루한 12시간을 6편의 영화관람과 2번의 기내식을 먹은 후에야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각 나라별 연수 방문 대상 기관은 나라별 현지사정에 따라 결과는 조금 달랐지만 당초 계획상 방문예정 선정기관과 실제 현지 방문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독일 일정 및 방문 대상기관 등

○ 방문예정 대상기관 등

- 헤센주의회 라쉬도르프 3선의원 환영만찬 : 2019. 9. 17.(화) 19:00~
- 평생교육센터(비스바덴) : 2019. 9. 18.(수) 09:00~
- 마더센터(랑겐) : 2019. 9. 18.(수) 14:00~
- 보건부(보건소-프랑크푸르트 암마인) : 2019. 9. 19.(목) 09:00~
- 시청 및 시의회(레버쿠젠) : 2019. 9. 20.(금) 09:00~
- 국제장애인용품 전시회(뒤셀도르프) 참관 등 : 2019. 9. 20.(금) 14:00~

○ 실제 방문기관 등

- 헤센주의회 라쉬도르프 3선의원 환영만찬 : 2019. 9. 17.(화) 20:00~
- 평생교육센터(비스바덴) : 2019. 9. 18.(수) 09:00~11:00
- 마더센터(랑겐) : 2019. 9. 18.(수) 13:30~16:00
- 장애인 작업장 일자리창출 사회적기업(마인츠) : 2019. 9. 19.(목) 13:00~14:30
- 시청 및 시의회(레버쿠젠) : 2019. 9. 20.(금) 09:00~10:50
- 국제장애인용품 전시회(뒤셀도르프) 참관 등 : 2019. 9. 20.(금) 13:30~16:30

2 벨기에(브뤼셀) 일정 및 방문 대상기관 등

○ 방문예정 대상기관 등

- 어린이 박물관 : 2019. 9. 21.(토) 13:00~14:00

○ 실제 방문기관 등

- 어린이 박물관 : 2019. 9. 21.(토) 13:00~14:00
- 그랑플라스 광장(민속축제관람) : 2019. 9. 21.(토) 14:30~16:00
- 유럽연합본부 / 나토본부 : 2019. 9. 21.(토) 16:30~17:00

3 네달란드 일정 및 방문 대상기관 등

○ 방문예정 대상기관 등

- 친환경 대중교통수단 트램 체험(암스트레담) : 2019. 9. 22.(일) 13:00~14:00
- 호그백 치매 마을(암스트레담) : 2019. 9. 23.(월) 14:00~
- 청년재단(헤이그) : 2019. 9. 24.(화) 10:00~
- 이준열사 기념관(헤이그) : 2019. 9. 24.(화) 14:30~15:30

○ 실제 방문기관 등

- 친환경 대중교통수단 트램 체험(암스트레담) : 2019. 9. 22.(일)13:00~14:00
- 암스테르담 담 광장, 담락거리 왕궁, 암스트레담 운하(캐널 크루즈) 견학 등 : 2019. 9. 22.(일) 14:30~17:30
- 호그백 치매 마을(암스트레담) : 2019. 9. 23.(월) 14:30~17:00
- 청년창업공간 스타트업 빌리지(암스트레담) : 2019. 9. 24.(화) 12:00~13:30
- 이준열사 기념관(헤이그) : 2019. 9. 24.(화) 14:30~15:30

Ⅱ. 중점사항 요약정리

1. 독일 헤센주 현지 의원에 대한 느낌

17일 저녁 연찬회에서 유일하게 만난 헤센주의회 의원인 마르가레테 치글러 - 라쉬도르프 여성의원은 청소년 / 체육분야 / 실향민 / 난민분야 특임장관으로 기독민주당 출신이며 변호사 / 약사의 경륜을 두루 갖춘 3선 의원으로서 공적행사에도 관용차가 아닌 자가 운전으로 연찬장에 도착한 것으로 보아 형식적이고 권위적인 의전보다는 퇴근

시간 이후라 공과 사의 구분에 따른 실천으로 소박하고 성실하며 전문성을 겸비한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역력한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2. 독일 비스바덴 평생교육센터(Community Adult Education Center)

○ 일반현황

- 독일의 경우 1878년 대학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학문적인 내용을 연속적인 강의형태로 전달하기 시작한 것이 시민대학의 출발
- 아울러, 시민대학이란 공식명칭은 1902년 베를린의 적십자사에 설립된 평생교육기관에서 최초 사용되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적자원 개발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평생교육기관 역할 담당
- 평생교육센터 혹은 시민대학(VHS)으로 독일 16개주에 938개에 달하며 국가가 각주에 교육문제 결정을 위임하고 1919년 헌법에 시민교육 제정으로 1921년 설립개관하여 1차 세계대전시 프랑스에 점령이후에 교육에 대한 변환점으로 시민교육과 노동자 권익보호교육을 중점으로 진행 중 1933년 나치에 의해 민주시민 양성죄로 폐교 후 1946년 재개하여 50~60년대 위기전환으로 30여개의 외국어 강좌개설
- 70~80년대 전문가 고용 및 양성으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교육정책 반영, 1992년 어르신학교(노인대학) 개교 중심의 창조적 진보적 가치 교육 열중
- 2004년 어학연수자격증 발급 가능, 2007년 독일 17개가 난민교육소로 운영되고 15개는 종합대학으로 2곳은 시민대학으로 변모하였으며
- 근간에는 모든 난민에게 독일어 중점 교육을 실시하여 2018년 6,200명이 수료하였고 교육, 상담, 직업진로 상담 등 2011년부터 성인 대상 기초 독해 작문강좌 운영으로 일반 공교육 1위라는 자부심에 600만명이 문법기초학력 미달로 2016년 자가학습 개강(민간자본 컨소시엄) 모든 시민에 대한 교육필요 기초 보수 등 교육사회 지향

용이한 참여기회 공간 제공 등 다양한 국적 과 직업을 가진 다른 독일 기관 내에 우수한 사람과의 사회적 소통 통합연대 필요

- 1년간 1,884개의 강좌운영 10,000시간, 년간 25,000천명 참가로 290,000만 시민 중 다수 10분의 1에 해당하며 독일최고의 시민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 133개의 단독강좌에 2,555명 수강, 각종 행사참여 총40,000명, 7개 전시행사에 8,598명 참여 특강으론 정치학, 경제학 등 테마별 추가 반영하였으며
- 21세기 센터의 목표 는 창조적이고 효율성을 내재한 질적 향상 교육으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속 가능한 시민교육의 확장성이 필요한 시대적 요구이며 사명이라 여겨진다.

○ 운영현황

- 프로그램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언어분야 약45%(난민들을 위한 독일어) / 건강 분야(스포츠) 약21% / 문화예술분야 약15% / 직업진로분야 약17% / 정치경제 분야 약2%로 구성 운영되고 있으나
- 근간에 정치문제 확산 등 비민주적이고 극단주의적 반민주적 성향 확대 지양을 위한 교육강좌 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임
- 수강자중 약70%가 여성이고 직원 중 여성비율이 약80%로 구성
- 60세 이상 대상 평생교육, 돌봄서비스 지원 등

○ 재정현황

- 수입구조는 전체예산 약 800백만유로 주정부 약4% / 시정부(지자체) 약23.6% / 이민 및 유럽연합 통합위원회 약2.1% / 자체부담 약 70.3%로 대상자가 부유층이기 보다는 취약계층으로 수익방안 강구 필요
- 공모사업 및 연구용역 사업 등(구직자 관련 용역연구로 약200백만유로 수익)
- 지출구조 강사료(프리렌서) 약34% / 직원급여 약46% / 건물임대료 약16% / 기타운영비(수리비 등) 약4%
- 수익자 부담원칙이지만 경감제도 시행으로 노인·장애인·학생 20% 감면, 다자녀 50% 감면, 이민자 무상으로 진행
- 1970년부터 현재까지 지방정부 지원 예산 중 당초예산 대비 90%정도

삭감으로 재정 자립도를 위한 다각적인 자체 수입재정 충당 방안 마련 대책 필요

○ 조직현황

- 평생학습원 부지 내에 3개, 밖에 2개 건물을 활용하고 있는 상당한 큰 규모로
- 원장1명 / 문화팀5명 / 어학팀14명 / 건강팀14명 / 직원강사 100명 / 문화분야 일반강사 150명 / 어학 및 건강 시간강사 160명
- 운영주체 : 사단법인 1/3, 직영(국가)1/3, 지방정부 1/3

○ 시사점 및 정책과제

- 국내의 경우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하며, 이는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 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 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 교육 등 6대 영역에 대한 의 미를 포함 (평생교육법 제2조)
- 충북은 201년 2월 「충청북도 평생교육 진흥조례」 제정을 통해 같은 해 4월 충북연구원에 충북평생교육진흥원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나 그 수준은 미약한 수준
-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적정 교육과정 마련 필요
- 우리도의 평생교육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도와 11개 시·군이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평생교육 프로젝트 및 평생교육 컨트롤 타워 필요
- 충북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충북 미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자치연수원 공간을 도민의 평생학습, 청년 복합공간으로 활용모색 필요
- 도민의 평생교육 욕구 충족을 위해 ‘충북시민대학 또는 충북 시민아카데미 운영’ 등 평생교육 기능강화 필요

3. 독일 랑겐 마더센터(Mehrgenerationenhaus)

○ 일반현황

- 독일 1980년에 마더센터의 출발은 출산 후 부모가 겪는 어려움과

갈등을 해소하고자 공동육아나 프로그램 참여 등 또래 엄마들과의 지속적인 만남 속에서 서로 지지와 응원을 받으며 문제점을 해소하고 있음
- 법률가, 여성산부인과 의사가 자원봉사자로 정기적으로 참여하여 상담 영역의 비중을 높이고 있음
- 지역사회 주민의 공동복합 공유공간으로 5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2005년 설립 13년째 운영하고 있으며 독일 가족부에서 3개의 모델 센터에서 전국 400개로 확산되었으며 헤센주에 39개 센터가 설립되어 있음
- 지역여성과 아동의 욕구를 자발적으로 반영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과 이웃 공동체를 재건하는 역할로 지역사회 내에 여성 리더들을 창출하여 여성세력화 및 여성의 참여를 확대함
- 지역사회와 함께 육아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주민조직의 모델로 해체된 사회적 관계망을 복원하기 위한 공간으로
- 세대간, 이주민과 국적이탈자, 서로 다른 인종을 가진 가족들 간에 서로를 지원할 수 있는 구조 확립

○ 활동현황
- 지역사회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재원을 마더센터에 와서 그것을 지역사회에 기여하므로 마더센터는 “self managed”로 아이들과 함께 매일 커피 숍에 들르는 것이고 그들의 활동은 어떤 식으로든 보상이 주어지는 것으로
- 저소득가구 돕기, 일상의 허드렛일 지원
- 쇼핑, 이발, 점시식사, 장난감도서관, 재봉교실 수선 서비스
- 언어교습, 컴퓨터 활용능력, 직업훈련과 같은 노동시장 재진입 훈련제공
- 통합적 보건서비스 등

○ 재정현황
- 랑겐 마더센터는 대지 2,000㎡, 건물연면적 750㎡의 공간으로
- 재정은 총예산 75만유로로 약 한화 10억원 정도에 해당
- 국가 및 정부 약 50%지원 및 수익(참여)자 부담 등 민간자본 충당으로 계층별 부담률 차등화
- 직원31명 실비제공, 자원봉사자 재능기부 80~90명 정도로 시급은 5유로

- 지역사회 내에서 동원할 수 있는 최대 자원을 활용한 자조 공간으로 사회공헌 및 기부문화 정착으로 예산 절감 대체 활용

○ 시사점 및 정책과제

- 공동복합문화공간으로 일상생활의 경험이 곧 전문성이라는 가치 인식중요
- 스스로 생활경험을 통한 기술과 자원 축적 및 잠재된 리더십 개발
- 풀뿌리 여성들의 정치참여 확장, 지역사회 여성들이 그들을 지지·지원하는 시스템 유지로 지방정부 여성참여 성공으로 지역사회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
- 사회적 관계망을 중시하는 건강한 지역공동체 의식은 사회적 통합과 민주적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 공간임
-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에게 개방적이고 안전한 서로 돌봐주는 장소 제공으로 익명적 환경과 소외에 따른 폭력과 인종차별주의를 예방하는 지역공동체역할
- 일상생활에서의 능력에 걸맞는 공보육 및 육아제도, 질 높은 놀이터, 안전한 교통조건, 아동과 가족친화적 사회·도시·주택환경 등 창출 정책 연결 가능

4. 독일 마인츠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회적기업(INB) : 올름사업장

○ 일반현황

- 630명(18~65세)이상의 장애우들의 교육과 일자리 알선을 주선함
- 유한책임회사의 형식을 빌린 사회복지서비스 기관 사회적기업과 유사
- 2년제 장애인직업청년학교
- 현장실습을 통한 장애인 자립생활 보장을 위한 일자리교육 등
- 회장 : 에카르트 렌쉬 박사 - 전 마인츠 시 사회분야 자문위원
- 이사회 : 약 10명의 사회복지 및 정신의학 전문가들로 구성

○활동현황

- 장애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저렴한 공간 제공
- 장애인들이 숙련할 수 있는 직종 탐색 및 연구, 그에 대한 교육

- 장애인들에 대한 돌봄서비스 역할
- 장애인들의 자립적인 생활 가능한 능력 향상
- 노동 가능한 일자리 섭외와 그에 맞는 노동능력 보수 교육
- 교육 및 연대를 통한 의사소통, 심리적 안정감 유지 및 경험 사례 등 공유
- 장애인들을 위한 의과학적 및 실생활적 응용과학 연구
- 정원관리 / 원예 / 문구점 / 원목가공 관리 / 세차 / 재활용산업 등 배치
- 장애인복지관 작업장의 사회적 기업형으로 현장실습

❍재정현황

- 지분 : 마인츠 시 32% / 신경정신과 관련 장애우들을 위한 돌봄서비스 연합 26% / 마인츠 장애인 협회 12% / 기타 30%
- 재정지원 : 1일 36,000유로(1년23억 정도) 건물유지비, 시설비, 운영비, 인건비 등 지출 후 이익금은 0유로임(비영리 사업체)
- 자체수익금 년간 132만유로 해당
- 취업률 3%→1~2%저하 기업에서 장애인 1인 고용시 1인 급여의 70%지원
- 첨단 산업의 발달로 취업률 저하 및 일자리 감소

❍시사점 및 정책과제

- 유치원보조교사 / 요양보호사 / 주택(아파트)관리사 / 사회적 일자리 마련 등 직업교육기관으로 직업교육 알선 / 스포츠 등 기초교육 포함하고 언어 및 신체 교정 대체의 분야별 교육
- 최저임금 이상 수당 수령 직원의 급여는 시에서 지급 1일(일당) 60유로 장애수당은 200~300유로 월 기본생활비 800유로 작업자체 불가능한 중증 장애인도 나름의 일자리에 종사함
- 65세이상 노인장애인도 기술교육, 춤, 음악, 예술, 스포츠, 상담 등 장애인 종합교육 지원
- 전국 600여개 운영 중 마인츠 주 36개 사업장 운영
- 중증장애인 생산품 의무 구매규정 30인 단위 사업장 400유로 구매 또는 세금대체부담 법적규정
- 기업들과 계약을 통한 일자리 및 상품 판매 법적 고용율 보장이행
- 도내 각 시군에서 장애인 작업장을 확대하고 지역내 기업 및 산업체

등과 일자리 정보 공유 등 장애인 일자리 기구 시스템 강화로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 및 소득보장 필요

5. 독일 레버쿠젠 시청 및 시의회

○ 일반현황

- 인구 16만명으로 양성평등법 1949년 제정 헌법상으로도 보장 독일 모든 지역에선 남녀평등 필수 주 조례로 관련법 제정
- 시의회는 시의 3개 구에서 뽑은 52명 의원들로 구성되고 정당별 수는 보수우파 기독교 민주당이 17석, 중도좌파 사회민주당 14석이며, 기타 군소정당이 3~5석씩 점유하고 있음
- 남녀 직업분야 보수통계 등 계층별 소득파악 여성의 직업차별해소 등 평등의 일상화 일상의 평등화 여성의 사회참여 활발
- 민간 공공분야 64%(소방서 취업 취약) 육아, 간호, 간병, 등 여성임원 간부비율 민간기업 여성임원 간부 비율 40%미만
- 2001년 양성평등을 위한 법1999년 발효 2005년 37%→46% 규정적으론 50% 시간제부터 주당8~41시간 정규직 39~41시간(30%가 시간제 고용 재택근무(시간제) 젊은 가정부(애엄마) 전체예산 담당 경력단절여성 상담 재취업 등 조치, 가정-성폭력-상담 조치 등 업무수행
- 여성의 집-보호시설(8명 여성 자녀 10명 보호 년 160명 지원(예산상) 여성단체 지원 양상 행사홍보 및 행사지원
- 산후조리 후 산모스트레칭 등 지원 프로그램, 성폭력 인터넷 성 노출 대응방안 조치교육, 여성 예방 필요 정보 책자발간 등
- 연방기본법 주법(지방) 2001년 양성평등을 위한 법 특화차별화 정책 중요 통일성 자율성 보장
- 의회 예산편성권(△) 합계 출산율(주에 따라 차이) 1.5명 적극적 육아 보육정책 유치원 지원(5시간 무료)

○ 시사점 및 정책과제

- 독일 등 유럽의 경우 대부분 100년 전부터 여성참정권 부여한 바와 같이 레버쿠젠 시청 및 의회 방문의 취지는 성 평등 구현을 위한

다양한 우수정책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여성의 권익증진과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구현을 위한 것으로

- 레버쿠젠 시청 및 의회의 여성정책 방향은 “평등이 일상으로 일상이 평등으로”를 보편적 실천의제로 삼아 철저히 실행하고 있으므로
- 충청북도에서도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행정서비스 체계를 제도적으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인식 개선과 노력이 필요

6. 독일 뒤셀도르프 2019 국제 장애인용품 박람회 참관

○ 일반현황

- 개최기간 : 2019. 9. 18.~9.21.(1977년 이후 매년개최)
- 주요내용 : 의료기기, 약품・위생, 건강・복지・실버산업 등 각종 장애 및 노약자에 대한 보조기기 및 생활용품 전시 체험
- 참가국 수 : 43개국(한국 26개 업체 참여)으로 각종 장애 및 노약자에 대한 보조기기 등을 생산하는 업체
- 2018년도 969개 국제 업체 참여(50,612명 방문, 75%업계 바이어, 95%방문객 박람회 추천)
- 규　모 : 행사장 32,092㎡, 기간 내 약 4만명 참관

○ 시사점 및 정책과제

- 장애는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당사자의 의지와는 무관한 것으로 이들의 일상 생활에 불편하지 않고 비장애인에 비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위해
- 국내외 장애인 보조기기 현황조사 및 체험을 통한 도내 장애인 보조기기 발전방향 및 개선책 모색이 필요하나
- 전체 도민 중 10%에 달하는 장애인 등록 대상자들에 대한 보조기기 개발과 그들의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생활영위권을 보장해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고 책임이지만
- 수요의 한정으로 보조기기 개발 생산 판매에 대한 수익구조 문제발생과 고가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 막중한 부담으로 국내 업체들이 적극적인 생산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주로 수입 판매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

- 국가나 정부에서 해당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보조로 국내 업체 확대 육성이 필요하고 장애인들이 용이하게 부담을 최소화하여 저가에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개입 관리하는 생산 공급 체계를 마련하여 장애별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적기에 공급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도내에 노인 및 장애인 보조기기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나 도내 장애인을 위한 물리적 접근성 미흡, 공간부족, 품목 확대 및 주기적 교체 등이 용이하지 않으며 근무자들의 장기출장에 대한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해
- 최소한 북부권역 및 남부권역에도 거점별 센터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사료 된다.

7. 벨기에 브뤼셀 어린이 박물관

○ 일반현황

- 한적한 주택가 마을 고택에 마련된 4층 건물로 층별로 실내에는 어린이들에 적합한 테마별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 주변엔 숲 공원, 조그만 연못과 스포츠 공간이 갖추어져 있는 곳으로
- 마을동네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방문해서 놀고, 보고, 쉬고 가기 편안한 어린이 전용 공간임

○ 정책과제

- 대형 박물관이 아닌 마을동네 소규모 어린이 전용 공간으로 나름대로 지역에서 한적하게 어린 자녀와 교감할 수 있고
- 다른 부모 및 아이들과 놀이문화 등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체험 장소로
- 도내 시・군・구별로 설립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공간임

8. 네덜란드 암스트레담 호그백 치매마을

○ 일반현황

- 정상적, 일반적, 일상적인 평범한 생활과 삶을 목표 지향점으로

이를 위한 전문적인 행정 복지 서비스 지원체계가 확립된 공동가정이라는 공동체 마을

- 당초 호구백 치매요양병원에서 1992년부터 지금의 모습으로 변모
- 10년전 비젼과 목표를 가지고 맞춤형으로 설계하여 새로운 건물로 건축
- 출입구는 한 군데이지만 치매환자의 조건과 제약없이 나머지 공간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조치
- 27개 하우스에 현재 162명이 1채당 6~7명 단위로 공동가정생활 형태 의 삶
- 환자가 아닌 주민으로 호칭하고 치매센터라는 용어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 일반생활가정(노멀 너싱홈)과 같은 분위기 조성 및 건물용도 배치
- 기존부터 존재했기에 지역주민의 반대가 없었으며 지역사회와 공동체 형성

○ 운영현황

- 대상자가 기존에 살아왔던 친근한 공간조성에 따른 사람중심의 운영
- 각종 보드게임, 요리, TV시청, 스포츠, 영화, 음식 등 치매를 앓기 전 상태의 생활중점으로 서비스를 제공
- 4가지 라이프 스타일로 분류 구분 입실, 35개의 클럽동아리 활동 참여 유지
- 사설요양원은 극소수로 본인부담금은 정부에 납부하나, 요양기관에서 직접 본인부담금을 징수하기도 함
- 전체 직원 수는 200명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은 170명임
- 입소자간 갈등문제 해결은 행동양식 변화를 위한 환경조성 시스템으로 스트레스 최소화에 따른 갈등요인 해결
- 전체직원에 대한 동일 유니폼 대신 치매환자들을 위해 자율복장 착용 근무

○ 재정현황

- 비비움그룹(비영리 재단) 소속 시설로 치매를 기존의 의학적 가치 지향점이 아닌 일반 생활인의 마을 공동체 가치 중심으로 인식 전환 필요
- 개인 비용부담은 수입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1인기준 최저160유로 최고 2,300유로

- 정부부담은 1인당 1일 200~250유로와 유지관리비는 매일 1인당 35유로 부담
- 연간 전체운영비 예산1,900만유로 중 자체 수익사업 금액이 700만 유로에 해당
- 전체시설에 대한 운영을 직영하지만 현재 헤어샵만 외주임

○ 시사점 및 정책과제

- 초기투자비가 1,920만 유로(환화 약 236억원)거액으로 민간자본 투입이 곤란하며 초기시설투자는 정부부담으로 이후 시설개보수 등 유지관리비는 재단에서 금융권 융자로 해결
- 국내 요양원 이용료는 60여만원에 비해 상당히 고가인 7백여만원의 이용료를 부담하는데 국내의 경우 7백여만원 수준은 삼성 노블카운티 실버타운 이용가능 수준으로
- 호그백 마을이 보편적 이용 시설이 아닌 특정 이용자 시설이라면 도내 호그백 모델의 도입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특히 치매는 치료 중심의 보건 단일 사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님에
- 국내에서는 치매파트너, GPS, 배회인식표, 지문등록 등 다양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활용한다면 시설중심의 치매안심마을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안심마을을 구현할 수 있음
- 최근 보건복지부는 커뮤니티 케어 시범사업을 통해 치매 뿐 아니라 지역사회 케어의 필요성을 언급
- 지역생활(재가, 돌봄), 장기요양(시설입소, 주간보호), 의료(치료) 등 다 영역을 포괄할 컨트롤 타워 필요
- 도내 최초로 진천군에서 '생거진천형 커뮤니티케어' 사업이 시작한 단계로 향후 본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과 도내 타 시군 확대를 위한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함

9. 네덜란드 암스트레담 스타트업 빌리지

○ 일반현황

- 암스트레담시 산하기관으로 2007년부터 개소한 청소년 복합문화

공간으로 컨테이너 박스를 재활용하여 조성하였으며, 2년 임대 1년 연장 가능한 상시개방의 청년일자리 창업센터(공간)로 청년 고용 및 청년 주거문제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설립된 공간으로 각 시군단위로 설치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시설임

- 입소 시 과학, 공학 분야 학장 허가서(추천서) 심사 선정, 2년간 성과평가 제도실시 운영
- 창업을 시작한 청년 또는 청소년 대상으로 학생 또는 비학생도 입주 가능하며 암스트레담 지역출신 우선 입주 대상(80% 이상), 대기자 수 다수임

○ 재정현황

- 전체 예산의 30%정도 지자체(정부) 및 나머지는 자체 수익사업으로 자체부담, 공간 임대료 등으로 충당

○ 정책과제

- 도내 청년정책과 도민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 예산 및 공간 인프라가 타 시도에 비해 부족한 실정
- 청년들의 상상력 제고와 문화, 놀이공간을 조성하는 역할 담당
- 자치연수원 공간을 도민의 평생학습, 청년 복합공간으로 활용모색 필요
- 21세기 다양성과 융통성을 필요로 하는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능력개발, 독려, 전문 기업인으로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혹은 단기 프로젝트 제공
- 도내 시군에 도민과 청년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미흡으로 절대적 조성 필요
- 청소년과 관련된 제각각인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유사기능 통폐합 필요

10. 네덜란드 헤이그 이준열사 기념관

○ 일반현황

1905년 을사늑약 체결 및 일제 침략의 부당함과 무효를 알리고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1907년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대한제국 고종 황제폐하의 특명에 의해 전부총리 이상설, 전 대한제국

최고 재판소 예심판사 이준, 전 쌩 페테스부르그 한국공사관 서기관 이위종을 밀사로 파견하였으나 일본의 방해와 열강의 냉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호소문을 발표하고 이곳에서 순국한 장소에 이준열사 기념관을1995년 8월 5일에 개관하였다.

○정책과제

- 우리는 유럽에 하나밖에 없는 항일 독립운동 유적지로 이준 열사의 애국정신을 기릴 뿐만 아니라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이고 항구적으로 유지 확장될 수 있도록
- 민족후대와 더나아가서 세계인들을 위한 정의와 평화 사랑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장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국가차원에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된다.
- 당시 러시아로 돌아간 이위종 열사의 경우 1922년 이후의 행적 불명 및 미상에 대한 재조명과 지속적인 경로 추적이 필요할 것이며
- 도내에서도 독립운동에 가담하고 활동한 애국지사 및 열사들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을 통하여 역사에 기록되어 기억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 되어야할 것이다.

Ⅲ. 맺음말

옛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듯이 백번 듣는 것이 한번 본 것만 못하고 “백견이 불여일행”은 곧 백번 보는 것보다 한번 실행하는 것이 낫고, “백행이 불여일사(감)”와 같이 백번 행하는 것보다 느끼고 사고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이며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 아무리 보석이 여기 저기 있다한들 이를 가공하고 세공사에 의해 예술적인 혼이 불어 넣어야 가치를 발휘하듯 의회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육하원칙에 따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하여 이행하고 결과보고를 철저히 한다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도민들의 그 동안의 불신을 불식시키고 의회의 무너진 신뢰를 충분히 회복할 수 있으며 공무국외출장 비용대비 보다 더 많은 가치가 있음을 느끼고 온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방문한 나라마다 각기 다른 전통적인 민족(종족)과 역사적 시대적 배경과 지리적 여건에 따른 사회적 생활문화 등 다소의 차이가 있으므로 각 정책과 제도를 그대로 표절하기 보다는 우리의 실정과 현실 맞게 지속가능한 점진적인 발전을 위한 개선과 변화를 함유할 수 있는 창조적 모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이번 공무국외출장을 위해 관계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도민들을 위해 보다나은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가 되도록 의회 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실천하고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합니다.

④ 심기보 위원

도민 행복을 위한 복지정책 제도개선 갈 길이 멀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이 마무리 된지 어느덧 10일 정도 지났다. 이번 국외출장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사실 그동안 지방의회의 국외출장은 출장 본연의 목적보다는 외유성 일정이 상당부분 차지할 정도로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시키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우리 충북도의회 역시 마찬가지였다. 지난 2017년 사상 유례 없는 우리 지역의 물난리로 어수선했던 시설 강행한 행정문화위원회 해외연수는 우리 의회에 대한 도민의 실망을 넘어 분노를 삼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지난 행정문화위 국외연수와 함께 올해 초 경북 예천군의회 해외연수 가이드폭행 등의 사회적 논란을 통한 지방의회 연수 무용론에 대한 도민의 인식이 사라지기 전에 추진한 사항으로서 사실 준비단계에서 많은 부담감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해외연수를 변화하는 지방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복지정책제도 개선을 통한 도민의 행복 추구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쳤었다. 여성・노인・장애인・청년 등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해 우리 위원회는 지난해 7월 새롭게 구성한 이후 지금까지도 정책제안을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펼쳐왔다. 그리고 이번 국외출장은 그간 우리 위원회가 추진해 온 의정활동 사항을 도민이 체감하는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꼼꼼히 준비했다. 출국 전까지 복지분야 전반에 걸친 우리도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 선진지 견학 및 전문가 간담회 실시 등 총 28회에 걸친 사전활동 과정을 보더라도 우리 위원회의 이번 국외출장은 과거 지방의회가 실시했던 해외연수와는 차원이 다른 준비과정을 거친 연수였다고 생각한다.

9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의 일정 이였지만 항공기 이동 시간을 제외한 실질적인 기간은 7일에 불과했었다. 하지만 우리 위원회는 부족한 시간을 쪼개어 출국 당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현지에 도착하고 여정을 풀기도 전에 독일 헤센주의회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갖는 등 매우 빡빡한 국외일정을 소화하였다.

공식기관 방문 및 국제박람회장 견학,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를 위한 다중이용시설 벤치마킹, 그리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애국심 함양을 위한 이준열사 기념관 방문까지 주말에도 쉬지 않고 총 11개소의 현장을 방문한 것은 지금껏 우리 도의회 사상 유래 없을 정도로 많은 일정을 소화했었다. 오죽하면 유럽 현지가이드가 지금껏 이런 지방의회 국외출장 일정을 본 적이 없었다고 고개를 흔들 정도로 6명의 의원 모두는 하나 되어 연수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독일 마더센터에서 바라본 유아에서 노인까지 세대 간에 함께 어울리고 가정의 소중함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육아부담 해소와 건전한 가족문화 실현을 위해 우리 지역에도 마더센터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아울러, 자국민을 넘어 이민자들까지 유럽 현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에 대한 욕구해소에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직은 미약한 충북의 평생교육체계가 개선되어야 하고 나아가 독일 시민대학처럼 우리도 도민대학을 신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희생과 노력 속에 한국전쟁 이후 짧은 기간 속에 경제규모 세계 10위권 이내에 포함될 정도로 눈부신 성과를 이뤄냈다. 사실 이번 국외출장 기간 독일을 비롯한 유럽 3개국을 둘러보면서 대한민국 역시 전 세계 어디를 내놔도 절대 밀리지 않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복지제도 역시 과거에 비해 많은 발전이 있어왔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대한민국이 개선해 나가고 새롭게 창출해야 될 복지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 국외출장을 통해 느끼게 되었다.

제11대 충북도의회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도 이제 9개월 정도 남았다. 어느덧 중반을 넘어 종반을 향해 쉼 없이 나아가고 있다. 그간 박상돈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6명의 위원 모두가 하나 되어 추진해 온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하고, 아울러 이번 국외출장 기간 중 보고 듣고 배운 것을 위원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여 남은 기간 동안에도 복지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

아울러, 국외출장 기간 동안 하루 일정을 마치고 6명의 위원님들과 이강근 수석전문위원를 비롯한 직원들이 함께 모여 일일활동사항을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한 점에 대해서 늦었지만 연수단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고자 한다.

최근 우리 충북의 경제발전 속도와 그 규모는 과거에 비해 매우 빠르고 크게 팽창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발전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각자의 행복을 위한 복지제도 발전일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복지정책이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한다.

이제 충북의 복지제도 개선을 위해 하나하나 새롭게 만들어 가보자. 163만 도민의 행복 실현을 위한 복지정책 제도 개선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그 길의 필요성을 안다면 충북의 미래는 매우 맑음이라고 생각한다.

5 육미선 위원

Ⅰ. 연수의 목적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위원회소속 현안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 및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선진외국을 방문하여 현지확인을 통한 비교분석으로 도정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국제적 견문을 넓혀 의정활동 능력 배양

Ⅱ. 연수 사전준비

1) 연수지 선정

위원회의 현안사업과 관련한 성공적인 사례가 집적되어 있는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를 연수지로 정하고, 심층적인 견학이 가능하도록 해 내실화를 꾀함

2) 의원이 직접 기획 참여

연수 일정 및 내용과 방문지 섭외 등을 의원들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해서 새로운 해외정책 연수모델을 만들고자 함.

3) 연수 이전 사전 현장 방문 및 공부모임 진행

방문지역과 연계한 충청북도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방문 및 사전 연찬회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연수과정에서 확인할 과제를 논의함

① 2019. 6. 14 : 충청북도보조기기센터 현장방문
② 2019. 6. 14 : 청주시 흥덕구 치매안심센터 현장방문
③ 2019. 7. 12 : 정책복지위원회 의정활동 내실화를 위한 연찬회
* 충청북도 평생교육진흥원 현황 및 개선방향
* 한국 및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 정책 마더센터 운영 소개
* 충청북도 치매정책 현황 및 과제

④ 2019. 7. 12 : 청주시 상당보건소 “치매안심센터” 현장방문

⑤ 2019. 7. 18 : 경기상상캠퍼스(수원시 권선구) 현장방문

* 청년 스타트업 프로그램 및 청년공간 활용도 확인

⑥ 2019. 8. 29 :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현장방문

Ⅲ. 연수 현지방문 주요 내용 및 시사점

1. 독일 평생교육센터

◉ 방문일정

일 시 :	19. 9. 18(수) 09:00 ~ 11:00
장 소 :	Alcide-de-Gasperi-Str. 4 65197 Wiesbaden
면담자 :	Dr. Philipp Salamon-Menger/Direktor

1) 운영 현황

평생교육센터, 혹은 시민대학(volkshochschule)이라 불린다. 현재 독일에는 시민대학 920개가 운영되고 있다.

① 운영 주체

- 지자체 소속 : 55%, 공익법인소속 : 32%, 목적연맹 소속 : 8%
  기타 사설기관 : 5%

※ 목적연맹: 지방자치 단체들끼리 공동 과제의 실현을 위해 조직된 연맹

② 재정 구조

- 보조금(29.5%), 자체자금(70.5%)

※ 보조금: 주정부(4%), 지방자치단체(23%), 유럽연합(2%),

※ 자체자금 : 수업참가자 수강료 34% 등

③ 프로그램 운영 현황

- 독일 전체 연간 60만개 이상 프로그램 운영
- 언어(약 30여개의 외국어, 난민 대상 독일어 강좌 등) : 47%,
  건강·스포츠:24%, 문화·예술강좌:16%, 직업교육:19%, 정치·사회·환경:2%

④ 수강생 현황

- 비스바덴의 연간 2만 5천명 수강(전체 인구의 8.6%)
  1년에 1.884개 강좌를 개설해 1만 시간 이상 운영하고 있음
  2018년 수강생 현황 : 3만4천명
- 독일 전체 인구 중 600만 명 이상 참여

⑤ 수강료 감면 : 난민, 다자녀, 장애인 등 시청에서 추천서 발급 시 무료

⑥ 수강생들 중 남녀의 비율

- 대학이나 고등교육기관은 남학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시민교육의 경우 여성 비율이 은 전체 70% 정도로 높은 편임.
  또한 평생교육센터 직원 중 여성의 비율은 80% 수준임

2) 정책제안

① 민선 7기 도지사의 공약 실천사업인 '충청북도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 사업과 '충청북도 평생교육진흥원 기능강화 및 법인화 추진' 사업을 연계한 '충청북도 평생교육 타운' 조성

⇒ 자치연수원은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인 공무원 대상 교육은 북부권으로 옮겨가고 도민교육은 평생교육진흥원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전문성 강화로 인해 더 좋은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자치연수원 자리를 '충청북도 평생교육 타운'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② 도민대학 설립 운영 추진

⇒ 독일은 “모두를 위한 교육”을 바탕으로 독일사회를 지켜주는 교육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충청북도 도민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욕구 충족을 위해 ‘충북도민대학 운영’을 통해 평생교육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자치연수원은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인 공무원 대상 교육은 북부권으로 옮겨가고 도민교육은 평생교육진흥원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을 제안한다. ①번 제안과도 연동되는 내용이다. 전문성 강화로 인해 더 좋은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시군, 대학, 평생학습 기관의 교육과정 컨트롤타워 기능강화 등과 우리도의 평생교육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도와 11개 시·군이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평생교육 프로젝트도 필요하다.

③ 충북평생교육진흥원에 ‘충북문해교육센터’ 설치· 운영

⇒ 도내 20세 이상 성인 중 의무교육인 중학교 학력 미만 인구 수는 18.4%로 전국 평균 13.1%보다 5.3% 높고, 50~60대 성인 중 비문해자 수, 70대 이상 성인 중 비문해자 수는 74.6%로 전국 평균 63.6%보다 11% 높은 상황이다.

문해능력은 단지 글을 읽고 쓰는 능력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으로 사회를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생애 기초능력이다. 따라서 비문해자들을 위한 성인기초 및 문해교육 지원, 학력보완 교육, 정보격차 해소 등 생활밀착형 맞춤형 평생교육이 사회통합적 차원 및 소외계층 교육기회제공 차원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북문해교육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④ 평생교육센터에서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문해교육 확대 실시

⇒ 문해교육(특히 정규교육과정을 거치지 못한 노인이 주요대상임)을 평생교육 기관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는데, 독일의 경우 난민 및 이민자를 대상으로 독일어 강좌를 역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문해교육을 운영하고 있는데, 평생교육센터에서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문해교육을 확장, 운영해 줄 것을 제안한다.

※ 위에 제안한 내용 등을 중심으로 11월 정례회의 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 준비 중

2. 마더센터 [Mehrgenerationenhaus]

◉ 방문일정

일 시 : 19. 9. 18(수) 14:00 ~ 16:00
장 소 : Zimmerstr. 3, 63225 Langen
면담자: Mrs. Sarah Schöche 랑겐 마더센터/ '다세대하우스 원장

1) 운영현황

- 독일 전국적으로 약 400개 이상이 존재하며, 헤센주의 경우 39개소가 운영하고 있음. 대도시인 프랑크푸르트의 경우 5개의 마더센터가 있으며, 인근 인구 20만 정도의 중소도시의 경우 1개의 마더센터가 존재함. 마더센터를 모델로 한 다세대하우스 등 500여개가 운영되고 있다.
- 마더센터의 경우 공공기관 직영운영이 아닌 자발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2) 재원

- 이곳 마더센터는 건립 부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임대로 지원해 주고, 건축 및 시설운영 등 모든 사업을 민간이 재능기부를 통해 자체적으로 직접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해 수익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음.
- 100% 시민기부금으로 운영되는 곳도 있음. 연방정부의 보육정책에 따라 차이도 있어 공적자금을 전액 지원받는 곳도 있다.

3) 시사점

독일 마더센터는 1980년 처음 시작되었으며, 지역사회와 함께 육아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주민조직의 모델로 풀뿌리 여성운동의 결과물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 전반에 이르는 모든 연령과 계층을 대상을 아우르며 개방적으로 서로 돌봐주는 장소 및 프로그램, 식사 등을 제공하고, 센터에서 일하는 모든 봉사자는 임금을 받는다. 지역 여성과 아동의 욕구를 반영하여 지역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만들고,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과 세대통합, 지역공동거실의 특징을 갖고 이웃 공동체를 재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사회와 함께 육아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주민조직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으며, 육아에 대한 마을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는 개념으로 가족, 이웃, 커뮤니티 관계를 새롭게 정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4) 정책제안

① 세대간・ 기관별 통합돌봄센터 운영모델 개발

⇒ 독일 마더센터가 지원하는 활동은 이미 도내에서도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로 관 주도의 한부모지원센터,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보육지원센터, 여성취업센터, 경로당 등과 민간 주도의 공동육아 어린이집, 재활용가게, 마을도서관, 지역아동센터 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서비스를 제공 받거나 한정된 전문 분야의 활동이 각각의 기관별로 분절적으로 운영되는데 그치는 반면, 독일 마더센터는 여성들이 서로의 재능을 활용해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해체된 사회적 관계망을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야말로 세대통합과 진정한 통합돌봄의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우리나라도 동네마다 있는 경로당, 공동육아나눔터, 작은 도서관 등의 기능과 역할을 한 곳에서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를 우리도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기존의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을 활용한 공간 제공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② 가정 내 육아부담 해소와 풀뿌리 공동육아 개념을 확산하기 위해 마더센터의 시범운영에 대한 논의 필요

⇒ 충북의 진천·음성 충북혁신도시 소재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비율의 경우 도내 평균을 상회한 20.44%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혁신도시 내 젊은 층 유입인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시설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혁신도시 시범운영 후, 개선보완책 마련으로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시행 추진하는 방법을 공론화해 볼 필요가 있다.

‘당신은 최소한 한 가지 장점이 있다. 마더센터에 와서 그것을 지역사회에 기여하라’ 는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 지역의 작은도서관 및 행복교육공동체 사업에서 일부 자원봉사자들이 강사로 활동할 기여를 부여받고 전문강사로 활약하고 있는 사례들과 일부 비슷하였다. 이를 통해 풀뿌리 여성조직들의 역량강화와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3.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회적 기업(INB)

◉ 방문일정

일 시 : 2019. 9.19(목)13:00~14:30
장 소 : 독일 마인츠

1) 운영 현황

- 장애인 직업재활센터로서 사회적 기업(350명 직원 근무)
- 시설 운영 목적 :장애인의 사회 적응 및 직업능력 훈련(보수)교육을 통한 자립적인 생활 보장을 위한 일자리 창출 도모
- 630여 명의 신경의학계 장애인(18세~65세) 시설 이용
- INB와 같은 장애인 직업교육 전문기관이 독일에 약 600여개 운영
- 2년제 직업훈련전문학교 운영(1년차-교육 / 2년차-현장 실습)
- 프로그램 운영 : 인문(읽기, 쓰기) 기초영역, 기술(목공, 포장 등), 직무교육(행정/서무), 취업 알선, 수영 등 개인적 취미 영역, 언어 및 신체 교정 등
- 수강생 기준, 휴일 포함해 365일 지원
- 취업분야 : 유치원 보조교사, 정원 관리, 재활용 산업, 양로원 관리교사, 원목가공, 세차 등
- 유치원, 기숙사, 관사 운영
-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보장 : 정부에서 장애수당 지급(200~300 유로)+시 정부에서 임금 보장, 월 800유로 지급(식사, 피복비 지원)
- 시 정부에서 운영비 지원
- 연간 매출 : 1년에 130만 유로
- 전국 600여개 기관 운영 중, 주 정부에 36개 사업장 운영
- 중증장애인 생상물품 구매율(법률 규정): 월별 400유로 이상 구매율 위반시 벌금형의 처벌규정

- 지역 내 기업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추진하고 있으나 장애인들이 숙련되고 힘들거나 어려운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음.
- 장애인 생산물품 생산업체가 판로 확보를 기업들과의 연대를 통해 소소한 계약을 통한 물품 판매를 추진하고 있음.

2) 시사점

장애인들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보장과 장애인 고용시 70% 임금을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취업률은 연간 3%(600명 교육), 외부 취업률은 1~2% 불과하였다. 지원과 법적 규정보다 우선하는 산업화의 어두운 그림자를 볼 수 있었다. 다양한 영역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기숙사 생활 등을 통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 생활이 가능하도록 교육과 양질의 일자리 취업을 연계하고 있다. 우리도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해 도내 장애인의 자립적인 생활 보장을 위한 일자리 창출 교육과정 등 추진방향에 대안 모델이 될 수 있겠다.

4. 시청 및 의회 [Rathaus Leverkusen]

◉ 방문일정

일 시 : 19. 9. 20(금) 09:00 ~ 11:00
장 소 : Friedrich-Ebert-Platz 1, 51373 Leverkusen, 독일
담당자 : Cornelia Richrath, 여성부 사무소장

1) 방문지 현황

레버쿠젠 시의회는 시의 3개 구에서 뽑힌 52명의 의원들로 구성된다. 정당별 수는 보수우파 기독교민주당이 17석, 중도좌파 사회민주당이 14석이며, 기타 군소정당이 3-5석씩 점유하고 있다. 인터뷰를 한 코넬리아 여성정책특무관은 시의 장관급 간부 공무원, 명예시장은 정무직으로 의회의원.

2) 주요 면담내용

(1) 독일의 여성정책 기구

①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연방기본법인 “양성평등을 위한 법”이 1994년 제정되었고, 레버쿠젠시 여성정책담당 부서는 1959년부터 운영해 옴. 연도별 양성평등 계획을 수립하고, 계층별 소득수준 등을 포함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② 성평등담당관 제도

- 사업장 내 성평등 관련 업무 전담
- 2001년 제정된 성평등실현법에서 규정, ‘성평등담당관’ 제도 운영
- 업 무: 여성단체, 가족, 복지업무 담당함. 세부적으로 여성지원계획, 여성취업지원, 여성과 관련된 지방자치의 계획의 심사, 교육 또는 경제에 대한 지역의 자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여성의 문화적 활동, 폭력방지, 아동을 위한 탁아와 육아와 관련된 업무

(2) 독일의 출산지원정책의 현황 및 내용

① 출산율 현황

한국은 합계 출산율이 2017년 기준 1.05명 정도이며, 지속적으로 감소해 현재 0.9명임. 독일의 출생율은 10년 전 1.39명에서 현재 1.50명으로 증가

② 모성보호휴가제도

- 임산부의 경우 모성수당 지급
- 산전후 휴가는 출산 전후 각각 6주와 주의 모성휴가를 법으로 보장
- 육아휴직제도는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 부모시간제도 사용 가능
- 소득에 따라 출산비 지급, 이사비용 및 교육지원, 주거비 지원, 세금공제
- 산후조리후 운동 프로그램 제공

③ 여성임원할당제

- 일정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의 감독이사회에 여성의 비율이 40% 이상이다.

④ 여성인권보호

- ‘여성의 집’ 폭력피해 여성과 아이들의 쉼터를 운영, 연간 160여명 지원
- 가족폭력 상담 파트너 제공
- 불법카메라 방지 및 호신술 교육
-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진학, 취업 및 정보를 핸드북으로 제작해 제공

3) 시사점

독일의 법적인 평등은 필연적으로 사회적 평등을 수반한다. 이것은 여성이 남성세계로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재구성을 의미한다. 독일의 여성정책기구는 1953년 가족문제부에서 1994년 ‘평등국’으로 발전함.

- 출산율과 노동력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기업들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과 지원을 함.
- 가족지원제도로 부모수당, 돌봄기간 근로기간 단축 및 휴직제도 등 운영
- 부모수당은 14개월까지 지급 가능(세후 급여의 65%, 1,900유로 상한)
- 독일의 부모수당은 10년 전부터 생겼는데 이 때 부터 출산율이 올라감
- 시청 내 시간선택제 근무자가 1/3 정도를 차지하고, 자택근무도 적극 권유하는 등 유연한 근무환경
- 아빠의 육아 휴직 기간이 14개월까지 가능하고, 월급의 65%를 지급
- 시청 내 여성 직원이 64%를 차지하고 임원의 46%가 여성이다.
- 일정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의 감독이사회에 여성의 비율이 40% 이상으로 여성의 의사결정 권한이 매우 높다.
- 시청청사를 시내 중심가 대형 쇼핑몰에 임대로 들어가 운영하고 있었다. 발상의 전환이 놀라웠다. 접근성도 용이하고 시민들에게 관공서의 위화감이나 거리감을 없애고 청사 관리 예산도 절감하는 지혜가 인상적이었다.

5. 뒤셀도르프 국제장애인용품 전시회

◉ 전시회 개요

개최기간 : 2019. 9. 18.~9. 21. * 1977년 이후 매년 개최
주요내용 : 의료기기, 약품.위생/ 건강.복지.실버산업 등
참가국수 : 43개국, 한국 43개 업체 참여

1) 박람회 관람 후기

전시회장에서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주관하는 한국 공동관을 방문하였다. 국내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국내 전자기기 및 네비게이션 등 업체를 인솔하여 지원하면서 박람회에 참석하였다. 한국 공동관을 비롯해 개별 참가사와 종합하면 한국에서는 총 43개 업체가 참가하였다. 이는 지난 2018년 16개사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재활 실버산업에 대한 한국 시장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었다. 특히 국내 참가업체들의 전시관을 두루 관람하면서 한국의 첨단 의료장비들의 기술과 기기의 우수함을 실감할 수 있었다.

레하케어는 'Self determined living'(스스로 선택하는 삶)을 모토로 ▲신체 보조 기구 ▲커뮤니케이션 도구 ▲케어 장비 등 '장벽 없는 삶'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혁신 제품이 전시하고 있었다. 40년 이상 역사를 자랑하는 레하케어는 재활 및 실버산업 혁신의 핵심역할을 함으로써 전 세계 장애인과 노약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2) 시사점

국내 기업에서 전시한 4차산업혁명 스마트복지솔루션으로 어르신을 위한 생활·정서·안전관리 스마트 토이봇인 '부모사랑 효돌'을 통한

인형치료를 전시한 제품이 인상적이었다. 어르신의 복약, 식사 알람 등 생활관리와 치매, 우울증 예방하여 실제 우울감 감소 및 복약 순응도가 개선되는 효과를 설명해 주었다, 이미 국내 여러 지자체의 보건소, 재가 치매노인 보조기기 지원사업과 노인종합복지관 등에도 보급되어 시행하고 있었다. 우리도에도 도입해 보면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한다.

그 외에도 양칫물을 스스로 뱉지 못해 불편을 겪는 장애인, 환자, 노인들의 위생적인 구강관리를 도와주는 세계 최초 핸디타입 전동 흡입 칫솔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세면대 자동 높이 조절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웹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한 최첨단 기술의 다양한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노인복지 예산 25.8% 증가, 총 13조 9천억원 편성, 노인케어와 치매 1조 3천억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편성하고 지원하고 있다. 환자나 주민들의 지역사회 돌봄을 위한 ICT 솔루션이 필요하다.

국내 장애인 보조기기 개발능력은 우수한 수준이나, 장애인의 어려운 경제여건상 보조기기를 직접 구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장애인들이 많이 선호하는 전동휠체어 장비의 경우 대부분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으며 따라서 국민 체형에 맞는 자체생산이 절실한 상황이다. 고가의 보조기기를 구입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조지기 지원체계가 확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돌봄이 필요한 초고령, 장애가구, 치매환자,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체계 확대 필요하다.

6. 어린이 박물관(Le Mus□e des Enfants)

◉ 방문일정

일 시 : 19.9.21(토) 13:00~14:00

장 소 : 벨기에 브리쉘

1) 방문 소감

1978년 벨기에 브뤼셀에 Le Musée des Enfants(“어린이 박물관“이라는 뜻) 세워졌다. 아이들이 상상력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와 무대가 마련되어 있다. 장난감과 건축 소재가 모두 나무로 되어있어 마치 숲 속 비밀기지에 들어간 느낌이었다. 어린이 박물관은 어린이들에게 무형식 학문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전시회 등을 여는 기관이다. 일반적으로 전시물을 만질 수 없도록 하는 전통적인 박물관과는 달리, 어린이 박물관에서는 어린이들이 만지고 다룰 수 있는 체험물들을 배치하고 있다. 어린이 박물관은 지시에 따라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 (특히 유아기 어린이들에게는) 교육적이라는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많은 어린이 박물관은 비영리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나 또는 아주 적은 수의 전문 직원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2) 시사점

도내에도 국립청주박물관 내에 있는 어린이박물관은 어린이들을 위해 마련된 문화 학습 공간이 있다. 지난 2004년 10월 국립박물관 최초로 문을 열어 문화재의 재료를 어떻게 만들고 각 재료는 어떠한 특징이 있으며, 또 문화재를 어떤 방법으로 만드는지 등을 어린이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즉 문화재속에 있는 과학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전시하고 있다. 도내 어린이박물관도 홍보와 시설개선으로 방문객과 이용률을 높여 세계적인 명소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 본다.

7. 호그벡 치매마을[De Hogeweyk]

◉ 방문일정

일 시 : 19. 9. 23(월) 14:00~16:30
장 소 : Taalstraat 112 5261 BH VUGHT The Netherlands
면담자 : Iris van Slooten - Klarenbeek / Office Manager

1) 방문지 주요 내용

호그벡 마을의 경우 전문 종사자(의사, 간호사 등)가 편의시설에서 환자를 맞이하고 있고 치매환자의 안전한 배회를 위한 구조물을 갖춘 시설 중심의 치매안심마을. 비비안 (VIVIUM)그룹 운영

1. 시설현황

- 4,500여명의 부지, 마을형태로 구성되어 있음.
- 3년간의 공사기간에 약 255억 원의 비용이 투입되었음.
- 거주시설, 극장, 마트, 식당, 써클 룸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음.
- 현재 169명의 입주자가 있으며, 24시간 CCTV를 통해 마을 관리
- 입주자가 거주하는 시설은 보통 한 집에 6~7명이 생활하고 있음.

2. 운영현황

- 입주자 선정은 "지방정부의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마을선정위원회" 에서 선정
  4가지 유형(도시적 스타일, 클래식한 스타일 등)의 거주시설에 맞는 입주자를 선정하게 됨.
  노인의 생활방식이나 습관에 맞는 입주자유형을 분류하여 생활하게 함
- 대상자 150여명, 자원봉사자 140여명, 직원 290명(의사, 사회복지사 등)
- 한 집에 6~7명이 함께 살며, 일인실로 운영되고 있음.
- 한 가정에 8명이 근무함(6명의 care giver, 2명의 home supporter)

- care giver : 07-10:30분까지, 일상생활 지원
- home supporter : 08-13시까지, 집안일 등 지원
- 이 외의 시간은 입주자(노인)가 자립적으로 생활함.

*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위해 기상시간이나 프로그램 운영시간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의사, 간호사 등이 있으나, 최소한의 지원만을 강조하고 있음.

- 의사가 2명 근무하고 있으나, 중요인력은 아님.
- 의사, 간호사, 슈퍼마켓 등의 매니저는 도움이 필요할 때만 도울 수 있음
  야간근무자는 6명으로 간호사 1명, 어시스턴트 5명이 근무하고,
  관제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음. 오후 10:30분에 마을은 통제됨.

4. 재정현황

- 연간 운영비 조달(정부지원금 36% / 수익사업 및 기부 64%)
- 개인 1인당 연간 7만 유로에 해당하는 생활비는 정부의 지원으로 운영
-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료 부담 (개인연금의 80%)와 정부지원금
- 자부담이 최소 166유로에서 최고 2,300유로로 편차가 큼.
  1인당 1일 200~250 유로 소요, 유지관리비는 1인당 1일 35유로
- 운동처방실 등의 별도의 비용은 개인이 별도로 부담함.
  운동처방실의 연간 개인부담금은 9,000유로

5. 프로그램

- 다양한 동아리 활동지원 : 40여개의 클럽운영 중 공연관람, 악기배우기 등의 활동 지원 수영장, 자전거다기 등의 신체적 활동 가능함.
  클럽리더는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있음.

- 물리치료실 : 일상생활 동작훈련, 작업치료 및 훈련은 물리치료사 1명이 1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음 (별도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하고, 물리치료사는 보조자의 역할 수행, 주 진행자는 클럽 리더).
- 주민과 함께하는 이벤트 : 주 1회, 주민이나 가족이 예약할 수 있음. 즉, 이벤트를 계획하고 개최할 수 있음.

2) 시사점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돌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국민 대다수의 보편적인 문제로 다가와 있다. 문재인 정부는 취약층 돌봄체계를 의료와 보건을 아우르는 '커뮤니티케어'를 선포하고 치매 뿐 아니라 지역사회 케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10월 7일 도내 최초로 진천군에서 '생거진천형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발대식에 참석했었다. 내가 살던 곳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부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서비스 정책이다.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과 도내 타 시·군으로 확대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도의회 의원연구모임으로 '충북 고령친화도시 조성연구회'(대표 육미선)을 진행하고 있다. 충북의 빠른 고령화 사회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계획, 수립된 고령정책에 대한 분석과 도시정책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계획이 재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향후 충북지역의 관련 정책을 분석하여 충북지역에 적합한 고령친화도시의 토대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조례제정 및 WHO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국내 요양시설의 경우, 님비 현상으로 지역주민들과 마찰을 빚기도 하는데, 호그백 시설도 현재 지역 주민들에게 시설을 일부 개방하고 있지만 정확한 이용 수요는 제공받지 못해 아쉬웠다. 다만 호그백 마을도 외부사람들과 치매환자들이 함께 살 수 있는 미래를 고민하고 있다.

그동안 호그벡 시설을 운영해 오면서 다른 형태의 시설운영과 장단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비교분석한 자료를 요청해 놓았음. 자료를 제공받게 되면 성과 및 장단점을 분석하여 도내에 접목해 볼 사업에 대해 추후 제안할 계획이다.

8. 청년재단[Jong Ondernemen] 스타트업 빌리지

◉ 방문일정

일 시 : 19. 9. 24(화) 10:00 ~ 12:00
장 소 : Bezuidenhoutseweg 12, 2594 AV Den Haag
면담자 : Romana Malohodžić / Manager

1) 방문지 주요내용

- 4차산업에 대비 첨단기술 개발 및 과학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스타트업 빌리지’를 2007년 개소하여 운영
- 3개 섹션으로 구분된 39개 컨테이너
- 버려진 폐컨테이너를 활용한 공간 재생으로 사무공간, 응급실, 법률지원, 휴게 공간 등을 무상으로 제공
- 네덜란드의 청년 실업율 : 3.44%(3% 미만이면 완전고용 수준)
- 이민자를 위한 기숙사 재공
- 창업 초기 2년간 지원, 사무공간과 이벤트룸 제공
- 80% 이상이 암스테르담 대학 학생들, 학장 추천,
- 대부분 과학 및 공학 분야
- 24시간 오픈 운영

2) 시사점

도내 청년정책과 도민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 예산 및 공간 인프라가 타 시도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도내에도 최근에 청년들의 창업지원과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해 ‘충북청년희망센터’를 개소하였지만, 규모와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 경기도의 경우 수원시에 소재한 이전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 부지(152,070㎡)에 경기상상캠퍼스를 설치해 청년들의 창업, 교육지원 및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예술공간, 휴식, 평생학습, 미래를 실험하고 삶의 문화를 창조하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충북의 경우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 관련 연구용역(이전 후 활용 방안 포함)이 진행 중인데, 이 공간을 충북 청년들을 위한 각종 창업, 고용관련 교육·훈련, 연구, 일자리 사업 및 휴식공간과 도민을 위한 문화예술 및 평생학습 공간 등 미래를 준비하는 복합공간으로 활용하는 검토가 필요하다.

Ⅳ. 총평

① 새로운 해외연수의 모델을 마련

- 의회 내 해외연수의 방향에 변화를 가져옴

② 적극적인 해외연수 결과물 생산

- 참여의원 전원 보고서 제작 참여
- 사후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 연재

③ 향후 해외연수 추진에 대한 제안

- 충분한 준비 기간 확보
- 보고서 주제 사전 결정
- 연수 전후 적극적인 홍보 필요

6 이상욱 위원

1. 출발하기에 앞서

도의회에 들어와서 정책복지위원 활동을 한 것이 어느덧 1년이 훌쩍 지났다. 그동안 민원인도 많이 만나보고 관련 시설도 여러 곳을 방문해 보았다. 복지환경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보편화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아쉬움이 있었다. 그 아쉬움을 해소 할 수 있는 길을 물어보고자 국외 공무출장을...

국외공무 출장을 떠나기에 앞서 사전 준비도 할 겸 사회적 약자의 배려 내지는 평등으로 다가가는 사회복지가 어디까지 왔는지 현황파악을 위하여 우리 주변의 현실을 먼저 돌아보는 시간 있었다.

비교적 모범사례 내지는 우수시설로 인정되고 운영되는 기관 위주로 방문을 해 봤는데, 노인복지정책 실태파악은 흥덕구와 상당구 치매안심센터를, 청년복지 정책 실태파악을 위해서는 서울 충북학사, 경기도 수원에 있는 상상캠퍼스를 방문을 했다.

또한 장애인 복지 실태파악을 위해서 혜원 장애인복지관과 탐라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충북장애인 보조기기센터를, 공공의료분야 실태파악을 위해서 국립중앙의료원, 청주와 충주 의료원을 각각 방문해 봤다.

방문 결과를 토대로 간담회나 토론회, 전문가 초청교육을 통하여 지식을 넓히고 정보 수집을 하는 등 사전 준비과정이 있었지만 그래도 걱정이 앞섬은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복지정책이 시작된 유럽의 앞서가는 복지정책 모델을 배우고 그 내용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자료 발굴을 위하여 용감하게 떠나기로 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데...

2. 현장에서

9월 17일 첫날

아침 이른 시간에 집주변의 부지런한 까치들의 전송을 받으며 출발. 7시 까지 집결지로 가야 되는데 다들 바쁜가보다. 사창사거리에서 신호등 두 번 만에 통과. 정시에 출발 했는데 많은 분들이 환송을 나왔다.

청주에서 진천가는 도로가 출근 시간과 맛 물려 도로기능 상실. 돌고 돌아 예정된 시간에 겨우 공항 도착. 세계제일의 공항답게 모든 것이 자동화 되어 있는 덕분에 신속하게 출국수속 완료. 공항과 면세점의 붐비는 여행객에 비하여 한가한 계산대는 면세 가격이 인터넷구매보다 비싼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런가?

맥주 매장에 들려보니 가격이 생각보다 착하다. 여기도 일본 맥주는 없다. 그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기분 살짝 업! 정시에 탑승 완료 했으나 이륙은 약 20분 지연. 툴툴대며 가던 비행기가 불끈 힘을 주더니 앞머리를 번쩍 든다. 위아래 좌우로 흔들림이 심하다. 프랑크푸르트 가는 하늘 길은 비포장 도로?

프랑크푸르트 헤센 주 의회 환영 만찬이 예정시간보다 조금 지연이 됐다. 독일의 자랑 아우토반도 길 막힘은 어쩔 수 없나보다. 숙소로 들어와 잠을 청했으나 시간이 갈수록 정신이 말똥말똥. 어떻게 잠이 들었지?

9월18 2일차-1

프랑크푸르트에서 약 1시간 이동하여 온천휴양도시인 비스바덴에 도착. 날씨는 더없이 좋은데 졸음이...비몽사몽간에 비스바덴VHS(평생 교육센터)에

도착하여 잠시 대기하는 동안 재독 한국인 두 분을 만나 대화. 한분은 현직 의사, 또 한분은 교육학 박사.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소개하는 모습이 강사로 오신 줄 알았는데 강의를 들으려고 왔다고... 이것 하나만 봐도 비스바덴VHS(평생 교육센터)의 역할을 반은 알 것 같다.

이어지는 Dr. Philipp Salamon-Menger/Direktor과의 면담. 9명의 이사진으로 운영되는 비스바덴 평생교육센터는 , 1명만 시 교육청에서 참여를 하고, 나머지 8명은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민간 자율 운영을 통하여 소비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함으로서 교육생들의 만족도를 최대한 높이는 듯하다. 예산의 부족은 독일도 마찬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20%, 다자녀 가구 50%, 난민의 경우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전액 면제를 해주는 지원제도는 인상적임. 비스바덴 전체 인구수 276천명에 연간 25천여 명의 시민이 비스바덴VHS(평생 교육센터)프로그램에 참여를 한다니 평생교육의 산실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30여개의 외국어 강좌가 개설되어 있는데 한국어는 강좌는 없단다. 아쉬움이 조금...

온천휴양도시인 비스바덴에 와서 빠듯한 일정으로 온천욕은 물론 물도 먹어보지 못하고 왔다. 비스바덴 온천탕은 모두가 남녀 혼탕이라는, 나중에 들은 얘기...

9월19 2일차-2

오늘은 헤센 주의 랑겐 마더센터를 방문하는 날. 맑은 햇빛이 쏟아지고 하얀 구름이 지나가며 가끔은 그림자로 그늘을 만들어 주던 날씨. 모래밭

에서 오빠와 동생 같은 3살쯤 되어 보이는 두 어린이가 모래를 모았다 헤쳤다 하며 놀고 있다. 엄마는 옆에서 책을 읽고... 엄마가 자전거에 아기를 태운 유모차를 달고 유유히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고, 테라스(?) 파라솔 밑에서는 아기에게 수유주인 엄마가 두 분, 커피 향 넘치는 거실에서는 할머니들 대여섯 분이 여유로운 모습으로 담소 중이고...

이것은 어떤 명화를 읽어 내는 것이 아니라 마더센터를 들어서면서 내가 본 첫 번째 그림이다. 일상 평범해 보이지만 그 평화롭고 안정된 모습이 마냥 좋게 보였다.

마더센터에 들어서면 다과나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커다란 홀이 중앙에 자리를 잡고 있다. 키즈카페 같은 방이 몇 개 있고, 방문 시 출산을 앞두거나 출산 직후인 분들이 운동을 하는 방도 있었다.

세상사가 그렇듯이 여성과 아기를 위한 공동체인 독일의 마더센터도 설립과 정착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나보다. 1980년도에 시작된 마더센터는 풀뿌리 여성운동의 결과물로 필요성과 지속적인 운영에 대한 의구심으로 생긴 불신 때문에 당초 계획되었던 사업규모를 크게 줄일 수 밖에 없었던... 그러나 지금은 그 긍정적 역할을 인정받아 전 세계로 확산 되고 있다고 한다.

현재 독인전체에 약400여개의 마다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가 방문을 한 헤센 주의 경우 39개소가 운영되고, 약 20만중소도시의 경우 1개의 마더 센터가 운영된다는 설명이다. 마더센터와 함께 공공기관이 설립한 공동육아시설 500여개 중 일부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이민자를 위한 시설로까지 발전 되었다고 한다.

즉 마더센터는 아이들과 사회적 약자의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고, 독박 육아를 해소할 수 있는 독일의 주민조직 공동체이다. 마더센터의 운영 철학은 첫째가 열린 공간이고, 둘째는 아이들과 함께하며, 셋째는 어느 누구든 존중을 한다. 그리고 넷째가 인정해주는 문화의 정착이라고 한다.

독일의 마더센터가 대부분 재능기부에 의해서 진행 된다는 점에서 우리의 기부문화와 비교되는 바가 컸으며 지역공동체를 통하여 육아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시사를 하는 바가 컸다.

지금도 마더센터 방문 시 받아온 손거울에는 마더센터의 좋은 느낌이 보이는 듯하다.

9월19 3일차

장애인들의 교육과 일자리창출 연계하는 사회적 기업인 독일 마인츠의 INB는 650여명의 장애인들이 합께 하고 있었다. 우리 주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대규모 시설인데다 나름 고급 절삭기계 같은 교육 및 생산 시설까지 갖추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단순포장을 분업화 하여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느리지만 정확하게 하려는 노력을 읽을 수 있었다. 연민이든 동정이든 그것은 모독이라는 말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안쓰러운 마음에 동정심이 꿈틀하였다.

놀라운 것은 이런 장애인 직업교육기관이 독일에 600여개가 운영 중에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제조업이 자동화가 되고 첨단산업인 4차 산업시대가 도래 하면서 장애인들의 취업문이 점차 좁아지는 추세는

독일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다.

INB의 경우 제도적으로 장애인교육 1인당 60유로가 휴일 관계없이 국가로부터 지원되고(연 1,314만 유로가 지원) 있음.

또한 30인사업장 기준 월별 400유로 이상의 장애인 사업장 생산품 의무구입 제도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 된다고 한다.

방문을 마치고 나오는데 한 옆에서 고압세척기로 자동차 세차를 하는 모습이 보인다. INB의 장애인 모두의 불편함을 일거에 그 고압세척기로 씻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다.

우리 모두가 준비된 장애인임을 알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사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의무로 마음에 새겨둘 일이다.

9월20 4일차-1

피곤하다. 피곤이 쌓일만한 4일차지만 그래도 차창을 스쳐가는 풍경을 지키려고 두 눈을 부릅떠도 어느새 꾸벅... 의약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바이엘의 도시, 중소도시 레버쿠젠의 시청과 의회 방문하러 가는 1시간의 길이 길게 느껴진다. 인구가 16만4천명 밖에 안 되는 도시지만 차범근 선수와 최근까지 손흥민 선수가 레버쿠젠팀의 선수로 활약을 하여 우리에게 친숙해진 도시이다.

시청에서는 여성 권익증진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우수정책 수립을, 의회에서는 운영현황 청취 등 우수 의정시스템의 벤치마킹을 위해서 방문하기로 했다. 조금은 오래된 건물로 로마네스크양식이나 고딕양식은

아니더라도 바로크나 르네상스양식을 상상하며 왔는데 시청을 들어서면서 살짝 어리둥절... 현대식 건물인 대형쇼핑몰의 일부를 임대해서 시청사로 쓰고 있었다. 그 이유는 분명히 설명을 들은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기억이 없다. 심히 졸은 듯...

먼저 시청의 전체 공직자의 약 64%가 여성이고 간부의 여성 비율은 46% 수준이라고 하니 보편적인 여성의 사회참여라는 명제를 넘어서 여성의 권익증진이 적극적으로 보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민간기업도 대략 여성임원이 전체임원의 40%이상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니 여성의 사회참여가 우리의 현실과의 격차가 크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하겠다. 여성의 권익신장과 가정 친화적 보육제도의 꾸준한 노력으로 아이 없는 나라로 불러지던 불명예를 내려놓게 되었다고...

의회 회의장은 의장석과 의원석, 집행부가 수평적 구조로 배치가 되어 있다. 좌석위치의 높낮이로 권위를 보는 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숨소리도 들릴 만한 가까운 거리와 수평적 구조는 상호 존경하는 마음과 상대방을 이해하고자 하는 너그러움이 넘쳐날듯 한 느낌이 들었다. 청사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인터넷상에서 레버쿠젠을 검색하면 분데스리가 리버쿠젠 이야기가 거의 전부다. 비록 내가 축구광은 아니지만 리버쿠젠의 홈구장 “바이에라나” 담장 구경이라도 하고 왔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

시청 방문을 마치고 나오니 시청 앞 광장에서 중, 고등학교 학생들로 보이는 학생들이 집회준비를 하고 있다. 16살 환경운동가 스웨덴 소녀 그레타 툰베리의 영향을 받은 10대들이 “당면한 기후변화 위기 앞에 무능한 기성

세대를 믿지 못 하겠다” “우리의 미래를 빼앗지 말라”며 기후변화에 무감각한 정치권과 기성세대 등을 꾸짖고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기 위한 집회라고 한다. 이들의 작지만 큰 힘이 베를린 모터쇼의 흥행을 반 토막 냈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식도 들렸다. 그들의 주장이 경제지상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기성세대에게 큰 가르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9월20 4일차-2

점심식사 후 독일 뒤셀도르프 국제장애인용품 박람회를 방문하였다. 공무출장 계획에 국제장애인용품 박람회 참관이 있어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많은 박람회를 방문 참관을 해 봤지만 장애인용품 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박람회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나로서는 장애인 복지에 대한 모자랐던 관심에 대하여 반성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한 자동 세면기 높낮이 시스템, 손가락에 힘이 부족하여 연필이나 수저를 힘주어 잡기 불편한 것을 보조해 주는 기구, 시각 장애인의 길을 음성으로 아내해 주는 앱, 계단실을 올라갈 수 있도록 설계된 전동 휠체어 등등...

약32,000㎡의 공간에 수많은 아이디어 제품과 발명품을 들고 40여 개국이 참여하였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43개 기관·업체가 참여 66개 제품을 전시하는 저력을 보여주었다. 다만 한정된 수요로 제품을 대량 생산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개발 초기투입 비용이 과다한 관계로 장애인들이 실제로 접하기에는 고가의 제품들이 많아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박람회장을 나오면서 감동과 놀라움은 아픔으로 바뀌었다. 언제쯤 올까? 장애인들이 마음껏 오르내리고, 뛰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세상이...

9월21 5일차

부루쉘의 어린이 박물관...

도심 속 아동친화 문화시설 설치, 운영을 통해 어린이 상상력 제고와 유아의 시각에 맞춘 미래 직업체험 기회 제공을 하기위하여 운영을 하고 있으나 스토리텔링으로 포장을 잘 해놓은, 박물관이라고 하기보다는 놀이시설... 부모와 어린이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 외에 큰 감응은...

그러나 스토리텔링을 잘 함으로서 지역의 자원을 주민을 위해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 된다.

9월22 6일차

“암스테르담의 휴일 “ 말은 영화 제목 같은데...

휴일이니까... 물의 도시 암스테르담의 도심을 돌아보기에 앞서 운하를 살펴보고 싶어서 배에 올랐다. 운하 옆 벤치에 앉아 쉬는 시민들의 모습이 여유롭게 보인다. 물이 그렇게 썩 맑은 것은 아니지만 운하를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설계하고, 군데군데 선상가옥을 양성화 시켜준 것을 보면 그 역시 융통성을 겸비한 여유로운 행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기로 했다. 국제장애인용품 박람회 입장을 할 때도 느낀바가 있었지만 암스테르담도 역시다. 전동 휠체어나 유모차가 거리낌 없이 승하차를 할 수 있는 트램의 출입문 설계가 돋보인다. 소수인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이 돋보였다.

9월23 7일차

출발하기에 앞서 가장 관심이 많이 갔던 치매안심마을로 유명한 호그벡 치매마을을 방문하는 날이다. 사회복지학을 공부할 때와 시설방문을 할 때 경험을 했던 국내의 보편적 요양시설을 생각하며 궁금증 반 호기심 반으로 들어섰다.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극장도 있고, 쇼핑도 할 수 있는 작은 규모의 매점도 있고, 음악 감상실에, 연주실, 미술실까지도...상큼하게 그러나 겸손한 모습으로 솟아오르던 분수가 호그벡 치매마을의 분위기를 말해주는 듯하다.

평소에 살던 모습 그대로를 재현해 줌으로서 환경 변화에 따른 제2의 심리적 위축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배려심이 곳곳에 보였다. 그곳도 사람이 사는 곳인지라 님비현상은 있다고 한다. 일반인과 치매환자가 다르다는 인식을 하는 문제에 대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계몽활동과 설득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호그벡 치매마을 매니저의 설명은 공감을 넘어 감동이 묻어있다.

치매환자 169명에 직원수 170명(자원봉사자는 별도)을 가가호호 5~6명으로 세대를 구성하여 네델란드 일반가정과 흡사한 형태로 운영을 함으로서 가족적인 친밀도를 높였고, 각 가정의 환경도 본인들이 살던 수준이나 모습에 유사하도록 꾸며줌으로서 심리적 안정감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게 하였다고 하니 직원들이나 운영진의 노력이 대단함을 알 수 있겠다.

2018년도 자체 수익금이 약70만 유로라고 한다. 그 수익 대부분이 자체시설인 레스토랑, 극장, 슈퍼마켓 등 운영을 이웃주민과 함께한

결과라고 하니 놀랍다. 입주 치매환자의 개인 부담금이 우리나라같이 1,2,3등급으로 구분하여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160~2300유로까지 환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고 이 있으며, 나머지는 국가의 사회보장지원금으로 충당한다고 한다. 누진제... 우리나라도 도입을 하려고 하면 제도적으로 어떻게 어디서 어디까지 손을 봐야 할까? 치매환자들이 행복한 나라가 진정 행복한 나라가 아닐까?

9월24 8일차-1

비가 부슬부슬 내린다. 오늘은 스타트업 빌리지를 방문 하는 날. 신기술 창업회사를 일찍이 접하고 운영도 해 본 나로서는 당연히 관심이 가는 곳이다. 결론은 우리나라의 환경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다만 그곳은 폐 컨테이너를 활용하여 공간을 구성함으로서 비용을 최소화 하였고, 한 편으로는 유럽의 공통사회문제인 난민들의 숙소로도 활용을 하는 융통성을 보여 주고 있다는 것이 특이점라면 특징!

여기서도 유럽의 원칙 안에서 발휘되는 융통성이 크게 보였다.

9월24 8일차-2

이준 열사의 기념관을 찾았다. 이국에서 주어진 소명을 다하지 못하고 순국하신 열사님의 한인가? 오후가 되니 빗줄기는 더욱 강해진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옮겨오는 것으로 대신한다.

‘9월 24일 비가 추적주적 나리는 날
네델란드 헤이그에 있는 이준 열사의 기념관을 찾아
열사님의 흉상과 유품 앞에서
염치없이 고개를 숙였다.’

Ⅵ 정책제안 사항

1 충청북도 교육 안전망 구축을 위한 평생교육 기능 강화

○ 평생교육의 의미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자신이 원하는 교육과 학습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사회의 전반적 시스템을 재구조화하는 원리이자, 그것을 지탱하는 이념

- 국내의 경우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하며, 이는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 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 6대 영역에 대한 의미를 포함 (평생교육법 제2조)

○ 독일의 경우 1878년 대학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학문적인 내용을 연속적인 강의형태로 전달하기 위해 시작한 것이 시민대학의 출발

○ 아울러, 시민대학이란 공식명칭은 1902년 베를린의 적십자사에 설립된 평생교육기관에서 최초 사용되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적자원 개발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평생교육기관 역할 담당

< 독일 시민대학 특징 >

○ 독일 시민대학 : 국내 시군구 평생학습관 또는 주민자치센터와 비슷한 역할

○ 시민대학의 추진체계는 연방정부 차원의 독일성인교육협회(DVV), 주정부 차원의 시민대학연합회, 기초단위의 시민대학(VHS)으로 이루어져 있음

	국가		광역		기초
독일	독일성인교육협회	⇆	시민대학연합회	⇆	시민대학
	⇅		⇅		⇅
우리나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시도평생교육진흥원	⇆	평생학습관

○ 시민대학은 독자적인 교육센터를 설립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교통이 편리한 시내에 마련된 행정사무소에서 성인교육 등록 및 학습상담 등을 지원

○ 시민대학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에 분포되어 있는 다양한 기관에서 교육실시 (예. 교육센터, 도서관, 지역 학교시설 등)

○ 이론 교육이 아닌 경우 지역사회 승마장, 수영장, 축구장, 볼링장 등을 대여하여 체험교육 실시

○ 서울시는 시민의 살 자리와 일자리를 지키는 원동력은 배움이라는 인식 아래, 누구나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금년도까지 531개 시민대학 설립·운영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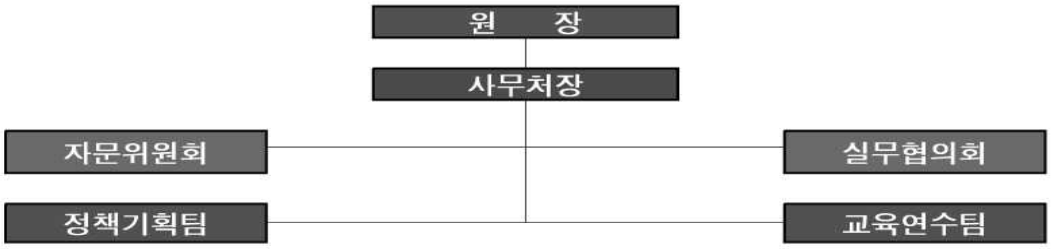
○ 반면, 충북은 2011년 2월 「충청북도 평생교육 진흥조례」 제정을 통해 같은 해 4월 충북연구원에 충북평생교육진흥원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나 그 수준은 미약한 수준

< 충북평생교육진흥원 현황 >

○ 현 지정 : 2017. 4. 20. (3년단위 재지정)

○ 인원 : 7명 (겸직 2, 전임 5)

- 원장(겸직) 1, 사무처장(겸직) 1, 팀장 2, 팀원 3



○ 주요역할

- 평생교육법에 명시된 광역수준에서의 지역 평생교육 추진 및 진흥본부
- 광역단위 평생학습 계획·실행·평가의 중심체
- 광역단위 평생학습 “관-민-산-학-군” 네트워크 구심체

○ 연도별 사업비

(단위 : 천원)

연도	2013	2014①	2015	2016	2017②	2018③	2019
금액	300,000	186,000	186,000	196,000	400,000	500,000	525,000

① 2014년 : 시군 대응투자 원활화 위해 일부 프로그램 공모사업비를 도에서 직접 교부로 변경함에 따른 진흥원 총사업비 감소

※ 도 직접 교부 공모사업 : 2014년 120백만원, 2015년~2018년 각 220백만원

② 2017년 :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최소인력 확보 위한 진흥원 인건비 증액

③ 2018년 :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사업 지원확대와 평생교육 신규사업 발굴로 증액

○ 우리도의 평생교육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도와 11개 시·군이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평생교육 프로젝트 필요

⇒ 평생교육 욕구 충족을 위해 ‘충북도민대학 운영’ 등 평생교육 기능강화 필요
(시군, 대학, 평생학습 기관의 교육과정 컨트롤타워 기능강화 등)

2 충북마더센터 설치 필요

○ 양성평등 정책에 따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따라 자녀 양육은 더 이상 여성만의 의무가 아닌 부부 공동의 의무로 인식되어야 함

- 특히,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우리 자녀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육아시설의 확대와 서비스 향상은 매우 절실한 실정

○ 과거 독일의 경우도 자녀양육의 대부분을 여성의 몫으로 여겨 육아부담에 가중을 부과했으며, 또한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 미흡으로 어린이집 수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 왔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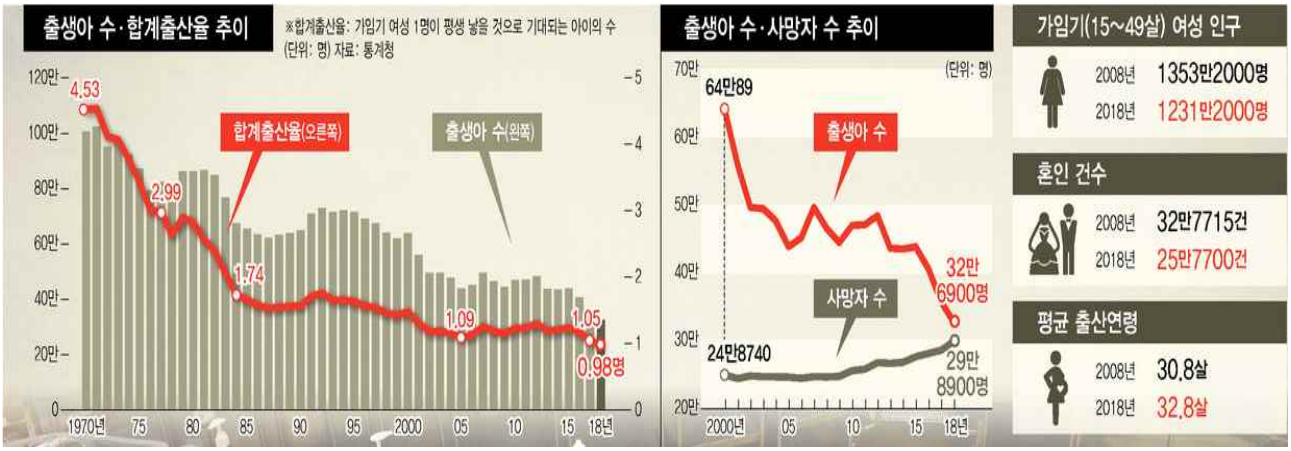
○ 독일 마더센터는 1980년대 처음 시작되었으며, 여성들의 육아에 대한 부담해소와 건강한 가정문화 확산을 위한 풀뿌리 여성운동의 결과물

- 이처럼 마더센터는 지역 여성과 아동의 욕구를 반영하여 지역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만들고,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과 이웃 공동체를 재건하는 역할

- 지역사회와 함께 육아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주민조직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으며, 육아에 대한 마을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는 개념 하에 가족, 이웃, 커뮤니티 관계를 새롭게 정비하는 데 초점

○ 국내의 경우 지난해 OECD국가중 최하위인 합계출산율 0.89명이며 앞으로도 출산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커 향후 국가 총인구 감소시기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됨

- 출산율 저하 문제점은 단순 변수로 확정할 수는 없으나 현재 국내의 열악한 육아환경 시스템이 대표적인 문제점 중 하나로 볼 수 있음



○ 현재 서울, 대전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가정 내 육아부담 해소와 풀뿌리 공동육아 개념을 확산하기 위해 마더센터를 설치·운영

- 충북은 마더센터가 전무한 실정이며, 향후 인구정책 측면에서 볼 때 마더센터 설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

○ 다만,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과 도민 인식확대를 위해서 단기간에 마더센터의 설치·운영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으로 특정지역 내 시범운영을 통한 개선보완책 마련으로 확대 시행이 필요

○ 이에 충북의 경우 진천·음성 혁신도시 조성으로 전입한 신규 유입 인구의 안정된 생활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원책 마련이 필요

○ 특히, 충북혁신도시 소재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비율의 경우 도내 평균을 상회한 20.44%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

○ 앞으로도 혁신도시 내 젊은 층 유입인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시설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판단

⇒ **육아부담 개선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충북마더센터' 설치 필요**
(혁신도시 시범운영 후, 도내 전 시·군 확대시행 추진)

충북마더센터 설치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조례개정 추진 (2019. 12월중)

- 충북혁신도시 소재 읍면동 인구표 -

(단위 : 명)

행정구역	연령	2015	2016	2017	2018	2019. 8월말	비고 (증가율)
소계	전 연령	18,863	22,417	27,407	33,899	37,274	97.60%
	0~14세	3,287	4,077	5,239	6,841	7,620	131.82%
진천 덕산읍	전 연령	8,914	10,710	14,564	20,911	24,100	170.36%
	0~14세	1,484	1,988	2,839	4,522	5,304	257.41%
음성 맹동면	전 연령	9,949	11,707	12,843	12,988	13,174	32.42%
	0~14세	1,803	2,089	2,400	2,319	2,316	27.89%

※ 2019. 8월말 기준,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비율 20.44% (도내 평균 12.65%)

3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체계 확대 필요

○ 국내 장애인 보조기기 개발능력은 우수한 수준이나, 장애인의 어려운 경제여건상 보조기기를 직접 구입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 장애인들이 많이 선호하는 전동휠체어 장비의 경우 대부분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으며 따라서 국민 체형에 맞는 자체생산이 절실한 상황

○ 충청북도 보조기기센터에서 휠체어 및 이동기기·감각보조 기구·의사소통 지원기구 등의 보조기구를 대여해 주고 있으나, 보조기구 상당수가 내구연수가 종료되어 대여기능에 한계가 있음

< 충청북도 보조기기센터 현황 >

○ 위　치 :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39-17 3층 (충북재활의원)
○ 규　모 : 353.85㎡ / 사무실, 상담실, 스마트룸, 전시실, 외부전시실, 개조제작실 등
○ 설치비 : 430,000천원 (국비 200,000 도비 200,000 자부담 30,000)
○ 예　산 : 212,400천원 (국비 106,200 도비 106,200 / '19년 예산)
○ 개소일 : 2013. 5. 30.
○ 근무인력 : 6명

계	센터장 (비상근)	실 장	팀 원	
			사회복지사	보조공학사(작업치료사)
6	1	1	1	3

○ 2018년 사례관리 현황

(2018. 12. 31 기준/명)

구분	장애 유형							장애 등급				
	지체	뇌병변	지적	시각	청각	언어	기타	1급	2급	3급	4급	기타
인원	362	298	17	126	99	5	160	412	110	112	119	314

구분	보조기기 영역									
	휠체어 및 이동기기	감각	일상생활	앉기 및 자세	주택 및 환경개조	컴퓨터접근	보완대체 의사소통	레저	자동차	계
인원	449	209	204	75	41	30	29	9	-	1,046

⇒ 고가의 보조기기를 구입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조기기 지원체계가 확대 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특히, 학령기 자세유지가 필요한 장애 아동청소년의 올바른 자세 유지를 위해 장애아동청소년유모차형 휠체어 지원사업 검토 필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조례개정 추진 (2019. 12월중)

④ 치매 관리사업 개선책 마련 필요

○ 호그벡 마을의 경우 전문 종사자(의사, 간호사 등)가 편의시설에서 환자를 맞이하고 있고 치매환자의 안전한 배회를 위한 구조물을 갖춘 시설 중심의 치매안심마을

< 호그벡 치매마을 특징 >

□ 시설개요

○ 시 설 명 : De Hogeweyk ('06~'09년 3년간 마을형태로 조성한 치매요양시설)
○ 소 재 지 : 네덜란드 베스프(Weesp) 지역 북쪽 (암스테르담에서 열차로 15분거리)
○ 규 모 : 15,310㎡ (극장, 커피숍, 슈퍼마켓, 음식점, 공원, 복지관, 미용실 등)
○ 건 립 비 : 1,920만 유로 (국가지원 1,780, 기부금 140 / 한화 약 236억원)
○ 운영기관 : Viviem (비영리단체)
○ 운영재정 : 네덜란드 사회보장제도 지원(이용자 소득에 따른 일부부담)

□ 운영현황

○ 운영예산 : 연 1,462만 유로 (한화 약 180억원)
○ 환자현황 : 169명
○ 직 원 수 : 170여명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 자원봉사자 제외
○ 이 용 료 : 1인당 월 160~2,300 유로
○ 운영형태 : 소규모 그룹(5~6명)의 일상생활을 통해 치매환자 보호
- 마을 내 모든 시설 자유롭게 이용가능, 간호사 등이 다양한 직업으로 위장 주민 상태확인 및 응급상황 대처, 이탈을 막기 위해 주변 높은 건물(80~100m), 한 개의 출입구로 통제
- 극장, 커피숍, 슈퍼마켓, 음식점, 공원, 복지관, 미용실 등 문화 시설 충족

○ 현재 국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치매파트너 사업과 치매환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비(GPS, 배회인식표, 지문등록), 치매안심마을 사업 등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관리 사업이 정착될 수 있음

○ 치매관리사업은 보건의 단일관점이 아닌 지역사회관점 접근 필요

- 최근 보건복지부는 커뮤니티 케어 시범사업을 통해 치매 뿐 아니라 지역사회 케어의 필요성을 언급

- 충북의 경우 최근 도내 최초로 진천군에서 '생거진천형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시작한 단계로 향후 본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과 도내 타 시군 확대를 위한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함

○ 지역생활(재가, 돌봄), 장기요양(시설입소, 주간보호), 의료(치료) 등 다 영역을 포괄할 컨트롤 타워 미흡

- 치매관리사업은 '인식개선', '치매예방', '치매환자' 등 대상 영역에 따라 수행
- 또한 대부분 사업은 노인 중심사업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은 복지, 장기요양 등 분야는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보건 분야는 보건정책과 등 이원화 되고 있음

○ 현재 우리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모델에 대한 확대 노력 필요

- 치매안심마을 : 진천, 옥천 중심 시범사업을 통해 14개소 운영
- 찾아가는 독거노인기억지키미 : 독거노인의 치매안전망 구축 사업, 노인복지영역과 연계한 사업으로 보건과 복지 각 영역이 갖고 있는 특성을 활용한 연계사업
- 웹 인지훈련 프로그램(웹코트)

○ 치매환자 지역 생활을 지원하는 '(가칭) 보조장치 체험센터' 검토 필요

- 일본의 경우 지역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노인케어 용품 전시장을 통해 노인용품 체험 실시
- 국내 치매안심센터는 경도인지장애 또는 초기 치매환자들이 이용하는 보건시설로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를 위한 생활지원 보조장치* 체험장을 설치하고 치매 전 단계 또는 초기 단계부터 충분한 체험을 실시한 후, 가정에 보조장치 설치를 지원한다면 치매에 있어 더 건강한 생활이 가능할 것임

  * 가스차단기, 복약알림기, GPS배회감지기, 가족단축번호전화기 등

⇒ 국내 노인 및 치매환자 보조장치 체험장 전무, 시행시 전국 최초사례











5 도민과 청년들을 위한 문화공간 조성 필요

○ 도내 청년정책과 도민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 예산 및 공간 인프라가 타 시도에 비해 부족한 실정

○ 경기도의 경우 수원시에 소재한 이전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 부지(152,070㎡)에 경기상상캠퍼스를 설치해 청년들의 창업, 교육지원 및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예술공간, 휴식, 평생학습, 미래를 실험하고 삶의 문화를 창조하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음





○ 네덜란드의 경우 4차산업에 대비 첨단기술 개발 및 과학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스타트업 빌리지'를 2007년 개소하여 운영

- 본 사업의 경우 막대한 예산비용 없이 버려진 폐컨테이너를 활용한 공간 재생으로 청년들의 상상력 제고와 문화, 놀이공간을 조성하는 역할 담당





○ 충북의 경우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 관련 연구용역(**이전 후 활용 방안 포함**)이 진행중인데, 이 공간을 충북 청년들을 위한 각종 창업, 고용관련 교육·훈련, 연구, 일자리 사업 및 휴식공간과 도민을 위한 문화예술 및 평생학습 공간 등 미래를 준비하는 복합공간으로 활용하는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자치연수원 공간을 도민의 평생학습, 청년 복합공간으로 활용모색 필요
(충북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충북 미래 발전에 이바지 기대)

참고1 공무국외출장 추진관련 5분 자유발언

<3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2019. 10. 16.>

존경하는 163만 도민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 민주당 최경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375회 임시회 본회의 첫날, '청년(다음세대)이 우리의 미래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발언 후 도민들로 부터 직접 또는 문자와 전화로 많은 격려의 말씀을 들었고, 여러 가지 의견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중 몇몇 분들은, 현재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자치연수원의 북부권 이전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데, 이전이 확정될 경우, 그 공간을 우리 충북 청년들을 위한 각종 창업 인큐베이팅과 고용 훈련 및 연구사업 그리고 놀이,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그곳에 충북도민을 위한 교육 · 여가문화 공간을 포함시킨다면, 청년과 도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 및 미래 지향적인 도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음은 물론, 새로운 충북의 랜드마크로서 그 가치가 충분하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충북의 청년정책 및 도민을 위한 교육 · 여가 문화 관련 **지원 예산과 활용 가능 공간은 타 지역에 비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자치연수원을 청년과 도민의 교육, 여가 문화생활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충북 평생교육 진흥원 예산 · 인력 현황(2019)
  - 충북의 2019년 평생교육분야 예산비율(0.0114%) : 17개 중 14위(도 9개중 7위)

지역	2019년 예산 (단위: 백만원)				진흥원 조직구성	진흥원 인력
	총예산Ⓐ	진흥원 예산		비율 (B/A)*100		
		총액Ⓑ	사업비			
충북	4,578,890	525	252	0.0114	2팀	7*

• 청년인구수가 유사한 타 도의 청년예산(도비) 현황(2019)

지역	청년인구수 (15~39세)	2019 청년정책 소요예산(도비)
충북	487,664명	**205억원**
전북	519,247명	300억원
전남	500,711명	660억원

현재 진행 중인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은, 투명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고자 공개입찰을 통해 우리 도 외의 기관에 용역을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연구용역에는 이전 타당성뿐만 아니라 자치연수원 이전 후 기존 공간의 활용방안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2월 예정인 연구용역 최종보고 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는 모르겠지만, 자치연수원 이전 후 기존 공간의 활용방안과 관련해, 본의원이 주장하는 내용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지난 7월 18일,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지역 청년들과 함께 경기도 수원에 소재한 경기상상캠퍼스를 다녀왔습니다.

서울대농과대의 이전 캠퍼스를 리모델링한 이 공간은 경기도 청년들과 중장년들을 위한 다양한 창업, 교육 · 훈련을 통해 미래를 준비토록 지원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 예술 공연, 교육과 휴식 지원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현 시대에 부합한 창조적이고 활동적인 공간이었습니다.

또한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본 사업과의 연계를 위해 지난 9월 17일부터 25일까지 공무국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연수기간 동안 방문한 기관들 중 특히 관심이 집중된 곳은,

- 1980년 초기, 출산 후 부모가 겪는 어려움을 지원하는 사업에서 출발해 현재는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과 이웃 간의 공동체성 재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장된 독일의 **마더센터**와
- 매년 총 시민의 9% 이상이 참여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독일 비스바덴시의 **평생교육센터**,
- 그리고 작업 공간부터 편의시설, 법률지원까지 청년창업을 다각도로 꼼꼼히 지원하고 있는 네덜란드 암스텔담 소재 **청년스타트업빌리지** 였습니다.

우리 정책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연수 기간뿐 아니라 귀국 후까지, 충북의 가족공동체의 문제와 청년실업, 청년인구의 지역 외 유출, 특히 걱정과 스트레스로 삶의 재미를 잃어가는 노잼 충북의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많은 토론을 했고, 그 결과 자치연수원을 우리 청년들과 도민을 포함한 교육 및 여가활용 등을 위한 다목적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한다면 그 가치가 충분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존경하는 163만 도민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충북은 지난 1월 29일, 강호축 관련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6조6천억의 예타 면제를 확정해 지역 100년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실공히 대한민국 심장부의 역할을 준비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가장 기초적인 문제를 시작했을 뿐, 우리 충북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청년과 도민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식과 정보를 학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활동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문화·교육 콘텐츠(볼거리, 놀거리, 일거리 등)발굴 및 인프라 확충에 대한 본격적인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자치연수원 공간에 청년들과 도민의 평생학습과 여가·문화 그리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새로운 규모의 시설을 제대로만 만들어 놓는다면 새로운 관광인구의 유입을 촉진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톡톡히 기여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미래 충북의 먹거리를 위해 SOC사업과 기업유치에 심혈을 기울였다면, 이제는 진정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람에게 투자'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투자의 시작을 알리는 첫 단추로, 우리 도민과 청년들을 위한 자치연수원 공간의 새로운 변화, 새로운 활용에 대한 본 의원의 제안을 충청북도와 도 교육청이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참고2 **위원회 공무국외출장 활동사항 현지 언론보도**

<2019. 9. 20일자, 독일 랑겐신문 기사발췌>



Vierröhrenbrunnen

Neue Idee ein ganz alter Hut

Ins Alte Forsthaus in der Mörfelder Landstraße ziehen Kinder ein – das haben wir am Samstag verkündet: Nachdem die Stadt überraschend die Möglichkeit erhielt, das sich in ihrem Besitz befindliche Gebäude auch selbst zu nutzen, soll dort schon bald eine Kindertagesstätte entstehen.

Doch neu ist die Idee, in dem Haus Kinder zu betreuen, nicht, wie sich nun herausgestellt hat. Das weiß unser Leser Walter Schaffner, mittlerweile 90 Jahre alt, aus eigener Erfahrung. Ging er doch Anfang der 1930er Jahre selbst in jenem Forsthaus in der Mörfelder Landstraße 61 in den Kindergarten. „Der wurde von der Tochter des damaligen Försters Hess geleitet", berichtet er. 15 bis 20 Kinder dürften es damals gewesen sein, so genau weiß Schaffner das nicht mehr. Aber Namen von Kameraden aus dieser frühen Zeit hat er noch parat: Kurt Klingler, der Sohn des damaligen Metzgers, ging ebenso mit ihm in den Kindergarten wie Brigitte Klock, Tochter des früheren Arztes in der Bahnstraße. Und noch eine andere Geschichte hat der Senior parat – wohnte er doch seinerzeit in der Altstadt, in der Frankfurter Straße: Jeden Morgen marschierte der kleine Steppke allein bis zum Lutherplatz, wo ihn die Kindergärtnerin erwartete, um dann gemeinsam mit weiteren Kindern quer durch die ganze Stadt zu laufen. Und nachmittags wieder zurück. Denn das Eltern-Taxi gab es damals noch nicht.

Nun also kehren die Kinder ins Alte Forsthaus zurück. Wenn das kein gutes Omen für die neue Einrichtung ist, meint Ihr Tobias

Auszeit auf dem Bauernhof

Egelsbach – Ein Nachmittag auf dem Bauernhof bietet Menschen mit Demenz Abwechslung und erinnert viele an ihre Kindheit. Die Seniorenberatung der Gemeinde veranstaltet am Dienstag, 8. Oktober, wieder einen Ausflug auf den Birkenhof, Büchenhöfe 16, für Menschen mit Demenz und ihre Angehörigen. Ihren Fähigkeiten und Interessen entsprechend können die Teilnehmer bei der Versorgung der Tiere helfen, den Hofladen besuchen oder einfach das Hofleben beobachten – das alles unter fachkundiger Begleitung. Der Aufenthalt von 15 bis 16.30 Uhr bietet außerdem Gelegenheit, Menschen in einer ähnlichen Lebenssituation kennenzulernen. Die Teilnahme kostet acht Euro pro Person, Anmeldungen nimmt die Seniorenberaterin Ann-Katrin Adams unter ☎ 06103 405153 entgegen. jrd

Positive Weichenstellung

REGIONALTANGENTE WEST Planungsgesellschaft für Bahntrassen-Verlängerung

VON MARKUS SCHAIBLE

Langen – Positive Signale für eine Verlängerung der Regionaltangente West (RTW) bis nach Langen: Im Ausschuss für Umwelt, Bau und Verkehr der Stadtverordnetenversammlung gab sich der Geschäftsführer der RTW-Planungsgesellschaft, Horst Amann, als klarer Unterstützer des Wunsches zu erkennen. Und er zeigte Politikern und Verwaltung auf, was getan werden muss, damit die Anbindung Langens an die Nahverkehrstrasse auch eine Chance auf Realisierung hat.

Die wichtigste Information für die Langener Akteure dabei: Auch wenn das aktuell laufende Planfeststellungsverfahren für den Abschnitt Süd 1 (bis Buchschlag) die Verlängerung nicht beinhaltet, kann diese hinterher in einem separaten Antrag eingearbeitet werden und dann immer noch im Gesamtzeitplan realisiert werden.

Zwar hatte Amann nicht – wie erhofft – die um die Südverlängerung erweiterte Nutzen-Kosten-Untersuchung (NKU) dabei, da die Zahlen noch bei den zuständigen Stellen von Land und Bund zur Prüfung liegen. Doch auch ohne diese waren seine Aussagen klar positiv: „Der volkswirtschaftliche Nutzen ist gegeben, die NKU wird durch die Erweiterung Langen zusätzlich stabilisiert." Und: „Der Nutzen-Kosten-Index kann verbessert werden." Dieser muss über 1 liegen, damit das Projekt rentabel ist und bezuschusst wird. Ohne Langen liege er bei 1,16, sagte Amann auf Nachfrage, mit der Anbindung der Stadt werde er auf 1,23 oder 1,24 steigen.

Die planerische und betriebliche Machbarkeit sei bereits durch Gutachten bescheinigt. „Die Fortführung der RTW bis Langen ist somit grundsätzlich möglich", betonte Amann.

Wichtig ist ihm, dass keine Beeinträchtigung der Planfeststellung für Süd 1 erfolgt. Denn obwohl die Einwendungsfrist noch bis 19. Oktober (für Träger öffentlicher Belange nur bis heute) läuft, sehe es im Augenblick sehr gut aus. „Die Einwendungen sind bis zur Stunde ‚beherrschbar', das lässt mich hoffen, dass wir mit einer Runde [bei der Offenlage der Pläne; Anm. der Red.] auskommen", so Amann. Und deshalb sei er zuversichtlich, im Laufe des kommenden Jahres einen Beschluss durch das Regierungspräsidium Darmstadt zu erhalten.

„Wir müssen Süd 1 zu Ende bringen, dann Langen dranhängen, ansonsten würden wir sinnlos Zeit verlieren", so der RTW-Geschäftsführer. Dennoch müsse relativ rasch eine Entscheidung über die Verlängerung getroffen werden, da eine finanzielle Förderung nur in Verbindung mit dem Gesamtprojekt erfolgen könne.

> **„Der volkswirtschaftliche Nutzen ist gegeben, die Nutzen-Kosten-Untersuchung wird durch die Erweiterung Langen zusätzlich stabilisiert.**
>
> Horst Amann
> RTW-Planungsgesellschaft

Zeitlich sei das alles darstellbar: Für ein erforderliches EU-weites Ausschreibungsverfahren für die Planung rechnet Amann mit sechs bis acht Monaten. Die eigentlichen Planungsarbeiten auf Grundlage der Machbarkeitsstudie dürften etwa 18 Monate dauern. Da es aber im Gesamtprojekt Stellen gebe, an denen umfangreiche Bauarbeiten nötig sein, werde selbst bei idealem Verlauf vor 2026 kein Zug auf der Gesamtstrecke rollen. Und in diese lange Gesamtbauzeit würden auch die geringen Arbeiten für die Verlängerung reinpassen.

Eines machte der RTW-Geschäftsführer aber auch deutlich: „Langen wird Kosten haben" – egal, ob die Stadt selbst Gesellschafter wird oder sich wie bisher vom Kreis vertreten lässt. Und es sei wichtig, sowohl gegenüber dem Kreis als auch den übrigen Gesellschaftern Initiative zu ergreifen und schriftlich die Erweiterung des Projektbereichs zu beantragen. Dies müsse schnell geschehen, damit in der kommenden Gesellschafterversammlung darüber gesprochen werden könne. Dann sei ein Beschluss im zweiten Quartal 2020 möglich.

„Das schaffen wir", betonten Erster Stadtrat Stefan Löbig und Fachbereichsleiter Carsten Weise unisono und kündigen Gespräche an – sehr zum Wohlwollen der Kommunalpolitiker. Für Langen heißt es nun hoffen. Die Chancen scheinen auf jeden Fall gut zu stehen – denn Amanns Fazit liest sich wie folgt: „Die Projekterweiterung wird sowohl vom Kreis Offenbach wie auch der RTW GmbH begrüßt."



Vom Kreis Offenbach in den Taunus: Die Regionaltangente West ist ein ambitioniertes Projekt – und Langen möchte als Südende mit dabei sein. Immerhin: Technisch ist die Verlängerung auf den bestehenden Gleisen kein Problem. Und rentabler wird die RTW durch den Anschluss der Stadt auch. FOTO: HÄSLER

Alle unter einem Dach

Lokalpolitiker aus Südkorea informieren sich im ZenJA über das Prinzip Mehrgenerationenhaus

VON JULIA RADGEN

Langen – Ein Betreuungsraum für die Jüngsten, ein Lesesaal für Schüler, ein Familiencafé und ein Spieletreff für Senioren – das Zentrum für Jung und Alt (ZenJA) vereint Angebote für alle Generationen unter einem Dach. Das gibt es in Südkorea noch nicht. Um mehr über das Prinzip Mehrgenerationenhaus zu erfahren, besuchte deshalb eine Delegation aus der Provinz Chungbuk das ZenJA. Die zwölf Männer und Frauen gehören dem Ausschuss für Politik und Sozialwesen des Provinzrates an und legten auf ihrer viertägigen Deutschlandreise einen Stopp an der Zimmerstraße ein.

Monika Maier-Luchmann führt die Gäste durchs Haus. „Das hier ist unser Babyraum – hier treffen sich die Eltern mit ihren Kindern zum Reden und Spielen", erklärt die ZenJa-Koordinatorin und führt die Südkoreaner in das Zimmer. Alles, was sie sagt, wird von dem mitgereisten Dolmetscher übersetzt. Die Gäste schauen sich neugierig um, nicken anerkennend. Dann geht es schon zur nächsten Tür: Maier-Luchmann zeigt den Betreuungsraum für die Krippenkinder. „Normalerweise schlafen hier bis zu zehn Kinder", erklärt sie. Doch gerade ist der helle Raum leer, sodass die Südkoreaner in Ruhe das Spielzeug und die selbst gebastelte Wanddekoration betrachten können. Hinter der nächsten Tür spielen ein paar ältere Damen gerade Karten. „Normalerweise sind wir die Bridgegruppe, aber heute spielen wir mal was Anderes", erklärt eine von ihnen den freundlich lächelnden Gästen aus Fernost. „Bei uns in Korea wird auch viel Karten gespielt", kommentiert der Übersetzer grinsend.

Die südkoreanischen Kommunalpolitiker – bereits die zweite Besuchergruppe aus dem Land – haben beim ZenJA angefragt, ob sie das Haus besichtigen können. „Im Moment gibt es in unserer Region so etwas noch nicht – jede Generation hat ihre eigene Einrichtung", erklärt Sang-Don Park, Vorsitzender des Ausschusses. So könne keine Kommunikation – beispielsweise zwischen Senioren und Kindern – stattfinden. „Aber wir bereiten gerade Anträge für ein Mehrgenerationenhaus vor und holen deshalb Informationen ein", so Park.

Deswegen interessieren sich die Besucher auch für die Finanzierung – und fragen Maier-Luchmann nach Schwierigkeiten. „In der Anfangsphase war die Politik zurückhaltend, es hat fünf Jahre gedauert, das Haus auf den Weg zu bringen", gibt sie zu. Und erklärt daraufhin das Prinzip der deutschen Fördertöpfe, aber auch, dass das ZenJA Geld durch Kurse einnimmt. „Seit 13 Jahren gibt es uns jetzt und wir arbeiten immer noch mit viel Freude", betont Maier-Luchmann – und erntet dafür bewundernde „Ooohs" von den Gästen.

Aber auch einige praktische Tipps bekommen die Südkoreaner mit auf den Weg: „Wir achten darauf, dass wir alle Räume für mehrere Sachen nutzen können – sie nicht nur einen Zweck erfüllen und ansonsten leerstehen", sagt Maier-Luchmann. Nach gut zwei Stunden verabschieden sich die Gäste. Nicht ohne Geschenke aus ihrer Heimat zu überreichen und – ganz wichtig für Koreaner – den fast schon zeremoniellen Austausch der Visitenkarte jedes Einzelnen.



Karten spielende Senioren im einen Zimmer, Säuglinge im nächsten: Monika Maier-Luchmann führte eine Delegation aus Südkorea durch das ZenJA. Die Lokalpolitiker wollen in ihrer Heimat ein Mehrgenerationenhaus realisieren. FOTO: KEGLER

IN KÜRZE

Mit Handy am Steuer – das wird teuer

Langen – Weil in der Dunkelheit das Handydisplay hell leuchtete, hat eine 28 Jahre alte Frau aus Bad Nauheim eine Ordnungswidrigkeitsanzeige kassiert. Einer Streife der Langenselbolder Autobahnpolizei fiel durch das Licht im Fahrzeuginnern am Dienstagabend gegen 20.30 Uhr auf, dass die Frau auf der A 661 am Steuer ihres Fiat 500 das Mobilgerät verbotenerweise in der Hand hielt. Nach dem aktuellen Bußgeldkatalog wird ein „Handyverstoß" laut Polizeipressestelle in der Regel mit 100 Euro und einem Punkt im Verkehrszentralregister geahndet. Bei wiederholten Verstößen hat die Bußgeldstelle allerdings auch die Möglichkeit, von diesem „Regelsatz" abzuweichen und ein höheres Bußgeld festzulegen. ble

Kitabasar auch mit Spielzeug

Langen – Die Kita Hegweg, Hegweg 17, veranstaltet am Samstag, 21. September, wieder ihren Herbstbasar. Diesmal werden Kleidung und Spielzeug angeboten, der separate Spielzeugbasar entfällt. Zwischen 14 und 16 Uhr (Schwangere ab 13.30 Uhr) können die Besucher Kleidung für Herbst und Winter, Sportbekleidung, Kinderwagen, Playmobil, Lego, Spiele, CDs, Bücher und mehr erstehen. Es gibt auch ein Kuchenbüffet. jrd

Bayerische Nachkerb

Egelsbach – Die Egelsbacher feiern kräftig weiter: Am Sonntag, 22. September, ist Nachkerb. Ab 11 Uhr gibt es beim bayerischen Frühschoppen im Zelt auf dem Sportgelände am Berliner Platz Oktoberfestbier, Blasmusik und zünftige Köstlichkeiten. Passende Musik kommt von den Original Egelsbacher Dorfmusikanten. Der Eintritt ist frei. jrd

Nova Brasil spielen nicht

Langen – Das für Sonntag, 22. September, geplante Konzert von Nova Brasil im Kulturhaus Altes Amtsgericht muss wegen Erkrankung eines Musikers entfallen. Die Gruppe sei in dieser Besetzung nicht spielfähig. Der Auftritt wird voraussichtlich im kommenden Jahr nachgeholt, teilt die Musikschule mit. jrd

Weißwürste bei der Jakobusgemeinde

Langen – Die katholische Kirchengemeinde St. Jakobus feiert am Sonntag, 22. September, ihr Oktoberfest in der Thomas-von-Aquin-Kirche an der Berliner Allee 39. Nach dem Gottesdienst um 10.30 Uhr beginnt der Frühschoppen. Es gibt Weißwurst, Haxen und Leberkäs, ab 13.30 Uhr dann Kaffee und Kuchen. jrd

IHR DRAHT ZU UNS

Redaktion Langen 06103 31085-
Frank Mahn, Ltg. (fm) -21
Markus Schaible (ble) -22
Holger Borchard (hob) -23
Julia Radgen (jrd) -25
red.langen@op-online.de

Bahnstraße 11
63225 Langen

<2019. 9. 20일자, 독일 랑겐신문 기사내용 번역>

모두가 한 지붕아래

- 율리아 라드겐 기자 -

랑겐 다세대센터는 아기들을 돌보는 공간부터, 학생들을 위한 독서실, 가족카페 및 어르신들의 만남의 장소까지 한 지붕안에서 모든 세대들이 만나서 교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

이는 대한민국에는 아직 없는 개념이다. 보다 더 많은 다세대 센터에 대한 경험치를 얻기위해 충청북도의 연수단은 다세대센터를 방문하였다.

10여명의 신사숙녀로 구성된 이 도의회의 정책복지 위원회는 독일에서의 4일 체류 일정 중 시간을 내어서 침머스트라세에 위치한 이곳을 들렸다.

모니카 마이어 루흐만은 연수단에 건물을 소개하였다. “이곳은 우리의 베이비룸이며, 이곳에서는 부모와 자식들이 시간을 보내고 여러 놀이를 즐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며 그녀는 연수단을 방안으로 안내하였다.

그녀가 말한 모든 것은 동석한 직원에 의해 번역되어졌으며, 손님들은 설명을 들을 때 마다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다음 공간으로 이동하였다.

마이어 루흐만은 유아를 돌보는 공간을 소개하였다. “대개 열 명까지의 아이들이 이곳에서 잘 수 있다” 라고 그녀는 설명하였다. 아울러 바로 연수단이 보다 더 아이들이 직접 그린 벽 그림과 각종 놀이기구들을 잘 관찰할 수 있도록 옆의 밝은 활동공간이 비워졌다.

다음의 방문 장소는 몇몇의 할머니들께서 카드게임을 즐기시는 공간이었다. “보통 우리는 친목그룹이었으나, 오늘은 다른 방식으로 즐길 것이다.” 라고 어르신 한분이 매우 친절하게 말씀하셨다.

그러니 멀리 동양에서 온 연수단의 한분은 웃으면서 “한국에는 보다 더 많은 종류의 카드게임이 존재한다.” 고 답하였고, 통역하는 직원 또한 웃으면서 이를 설명해주었다.

대한민국의 지방의원들은 다세대센터 관계자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다. “당신들도 이러한 우리의 시설과 유사한 곳을 지역에 만들 생각이 없는가요.” 그러자 박상돈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지역에는 각 세대별로, 특정 목적을 위해 모일 수 있는 공간은 존재하나, 모든 세대가 공유하는 곳은 아직은 없다.” 고 답하였다.

따라서 어르신들과 청년들간의 교류를 위한 어떠한 공간은 아직 없다는 얘기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다세대 센터의 지역 내 도입에 대한 많은 검토와 고민을 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 정보를 얻고자 방문하였다.” 고 첨언하셨다.

따라서 방문객들이 이곳의 재정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마이어 루흐만에게 이곳을 운영하며 겪었던 어려운 점들에 대해 물었다.

“초기단계에서 많은 정치인들은 이 계획에 회의를 가졌고, 따라서 이 계획이 본 궤도에 오르는데, 그들의 공감대를 얻는데 오년씩이나 걸렸다” 고 그녀는 설명하였다.

그리고 독일의 정부보조 방식과 구조에 대해 설명해줬으며, 특히 다세대 센터는 여러 강좌를 통해 수익창출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줬다.

“13년 전부터 우리는 언제나 이 일을 즐기면서 기쁨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고 마이어 루흐만은 강조했다. 그리고 이 말에 방문자들의 큰 감탄과 박수를 받았다.

아울러 방문단은 실질적인 운영 노하우에 대해서도 전수받았다. “우리는 여러 용도로서 많은 작은 방들을 잘 사용하고 있다.” 고 마이어 루흐만은 말했다.

그들 고향땅의 전통을 담은 선물과 함께, 명함을 교환하는 의전적인 시간을 갖는 것으로 마무리된 2시간의 방문 후 연수단은 떠났다.

참고3 유럽 기관방문시 정책복지위 홍보자료

▣ 정책복지위 공무국외출장 기간 동안 유럽 기관 방문시, 관계자에게 방문목적을 설명하고 도의회를 홍보하기 위해 자체 제작한 홍보물

Communicating parliament,
Agreeable council

Communication



Empathy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Policy and Welfare Committee

A world of coexistence,
A happy future,

Chungcheonbuk-do Provincial Council
Will make this come true.



Communicating parliament,
Agreeable council

Contents



04 Greetings from the Chairperson
05 Policy and Welfare Committee
06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History
09 Council Composition
10 Council Functions
11 Council Operation





12 Open Council
13 Voices of Residents
14 Major Bill Handling Procedures
15 Council Secretariat
15 Contact Info



■
Greetings from the Chairperson

Korea Government is also dreaming "Good Country for welfare" like you.



Hello? My name is Park Sang-Don.
I work as a Chairperson of the Policy and Welfare Committee at Chungcheong-buk Provincial Council in Korea.

I am the leader of the European visit delegation.
Our delegation consists of nine members, including government officials and six members of the Policy and Welfare Committee.
Our duty is to deliberate and vote on the welfare budget that are related to the elderly, the disabled, the women and etc.
It is corresponds to one third of the whole budget of Chungcheongbuk-Do.
In addition, this committee is the standing committee which criticizes current policies and propose new ones to meet the social flow.
I think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raining is to understand the atmosphere there.
And I think it is very important to learn how to build a system there.
Although the social, cultural, and national systems of Korea and your country are different, comparing Korea's system, we are going to look for the welfare policies for people and make sure which is available in Korea.
We look forward to seeing, listening and learning a lot in your country.

Thank you for the warm hospitality you sent to our delegation.
We will learn more to meet your hospitality. Thank you very much.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Chairperson of The Policy and Welfare Committee
Park Sang-Don

Policy and Welfare Committee

Bill review sessions and petition reviews, etc. falling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Women's Policy Division, Planning and Management Office, Health and Welfare Office, Chungbuk Provincial College, Public Health and Environmental Research Institute, Chungbuk Research Institute, Chungbuk Human Resources Development Foundation, Chungbuk Haksa, Cheongju Medical Center, and Chungbuk Medical Center



Chairperson
Park Sang-don



Vice-chairperson
Choi Kyeong-cheon



Committee members
Park Hyung-yong



Committee members
Shim Gi-bo



Committee members
Yook Mi-seon



Committee members
Lee Sang-wook







01 Visit and inspection of Chungbuk Provincial College
02 Visit to Public Health and Environmental Research Institute
03 2018 first half major operations status report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History



Jungang Elementary School auditorium used as the first council building



2nd. General meeting



1st. Photo of council opening

1952. 5. 29 — 1st council opened — No. of council persons: 28
1956. 9. 1 — 2nd council opened — No. of council persons: 30
1960. 12. 20 — 3rd council opened — No. of council persons: 26
1991. 7. 8 — 4th council opened — No. of council persons: 38
1995. 7. 12 — 5th council opened — No. of council persons: 40



3rd. Standing committee meeting



4th. Opposition to opening doors to rice imports



5th. Participation in gold drive for economic recovery

The history of the provincial council that grew by providing leading improvements for resident welfare and regional development at the forefront of local governments is the barometer of Chungbuk's modern history.



4th. Joint rally for installation of Osong Station for Honam Express Train



11th. Chungcheongbuk-do Council opened

1998. 7. 9 — 6th council opened — No. of council persons: 27
2002. 7. 9 — 7th council opened — No. of council persons: 27
2006. 7. 4 — 8th council opened — No. of council persons: 31
2010. 7. 7 — 9th council opened — No. of council persons: 35
2014. 7. 7 — 10th council opened — No. of council persons: 31
2018. 7. 5 — 11th council opened — No. of council persons: 32



7th. All council persons visited site damaged by Typhoon Ru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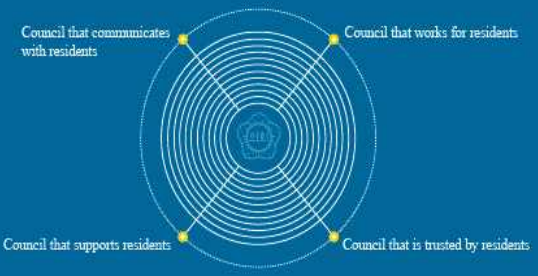
9th. Opposition rally on the dispersed arrangement of the science belt



8th. Signing of statement urging for a fair selection of the advanced medical complex



10th. Rally to stop development of the Munjangbae Hot Springs



"Residents are always at the center of the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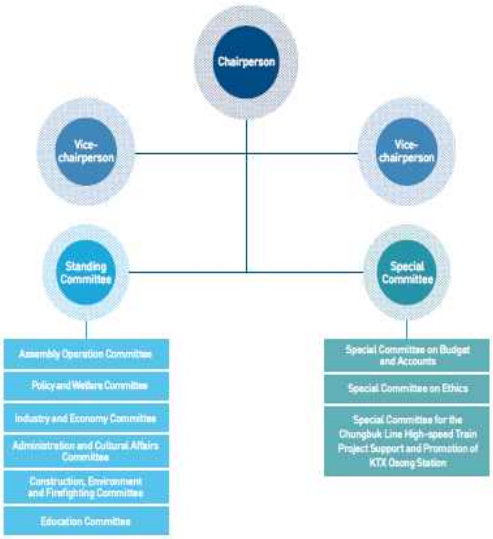
The 11th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is the representative institute of 1.63 million provincial residents and it will uphold the will of the residents and work for the happiness of residents and the development of Chungbuk.



Council Composition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that communicates and harmonizes to provide for the dreams and hopes of residents.

The 11th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is comprised of a total of 32 people including 29 members elected in their districts and three selected as proportional representatives. Their term-limits are for four years (July 1, 2018 – Jun 30, 2022). It is divided into the Standing Committee and Special Committee headed by the chairperson and vice-chairperson who represent the council.



Council Functions

We will listen to the will of the people and respond with policies.



Enactment, revision and abolition of ordinances

As the representative institute of residents, the council enacts ordinances within the scope of law and it can also revise or abolish ordinances depending on changes in circumstances.

Auditing and examination of administrative work

Administrative work audit is conducted for all works of Chungcheongbuk-do and Chungcheongbuk-do Office of Education twice a year during ordinary meetings.
For specific matters among administrative work, they can be investigated through a vote at the general meeting.

Review and confirmation of budgets and approval of payments

Annual budget plans are compiled by the government and superintendent of education and are reviewed and confirmed by the council.
The implemented budget requires account approval so that it can be used efficiently without wasting taxes.

Reception and handling of petitions

Opinions or suggestions on provincial administration or requests to make corrective actions when the rights or interests of residents are violated are handled as petitions, and petitions that placate the conditions are reviewed and the results are notified to the petitioner.

Other resolutions

- Levying and collection of usage fees, commissions, allotments, provincial taxes, or subscription fees
-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funds
- Acquisition and disposition of major assets
- Installation, management and disposition of public facilities

Council Operation

The cradle of dreams and hopes
Foreward base that pioneers the future of Chungbuk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that works dynamically

Ordinary meetings and extraordinary meetings

The provincial council holds two ordinary meetings every year and extraordinary meetings as needed. The total number of annual meetings is to be less than 130 days, but it can be extended by up to 20 days through a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General meeting

The general meeting is comprised of all council persons and it makes all final decisions for the provincial council. Meetings can be opened with the presence of at least 1/3 of registered council persons and unless otherwise specifically regulated in the Local Government Act, a resolution can be passed through the approval by majority votes when at least half of registered council persons are in attendance. Its main functions are to confirm decision-making schedules and to make final resolutions on bills reviewed by each Standing Committee.



Open Council

Honored residents! The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s doors are always open.

You can sit in to watch meetings held at the council and we invite you to check on council news through various channels.

Council homepage and social media

A homepage and Facebook account are being operated to promptly share information on council operations and activities, while also communicating with residents.

- homepage : http://council.chungbuk.kr
- facebook : http://www.facebook.com/chassembly

Live feeds and recordings of meetings

General meetings and Standing Committee meetings can be viewed live or through recordings via the internet or your personal smart device.

- Connect to internet broadcast page (http://tv.council.chungbuk.kr)

Auditing and visiting the council

All residents are eligible to audit any general meeting or committee meeting after receiving invitations for various meetings. The various facilities, including the main conference room, are open to all residents.

- Auditing and visiting inquiries : +82-43-220-5155

Issuing council publications

'Chungbuk Administration' has been issued to provide information on administrative activities and pending issues. Chungbuk Administration is available at customer service centers of each local government and they are provided free of charge to residents who wish to subscribe.

- Subscription inquiries : +82-43-220-5123

Youth council classroom

A youth council classroom is being operated so that youths can experience the roles and activities taken on by local councils.

- Inquiries : +82-43-220-5133



Voices of Residents

The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listens to each and every voice of its residents.

Petitions

When wishing to share opinions or suggestions towards provincial projects or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a petition form can be submitted through the introduction of a council member. The petition form must include the petitioner's address and name, and the goal and purpose of the petition in detail and be attached with an introduction form provided by a council member.

• Inquiries: +82-43-220-5154

Suggestion

When submitting any suggestion, an introduction from a council member is not necessary and it can be submitted in various formats such as suggestions, opinions, complaints, inquiries, pleas, etc. A suggestion must include the suggesting member's name and address and the contents must be written clearly and accurately.

• Inquiries: +82-43-220-5154

Resident Stand

Residents can freely share their opinions through a provided 'Resident Stand' in the council's homepage.

Provincial Council homepage [http://council.chungbuk.kr] →Resident participation →Stand



Major Bill Handling Procedures

Provincial administration is handled with a meticulous oversight of experts.

General bills including ordinance plans

Motion
Governor, superintendent of education, committee, registered council persons 1/5 or more

↓

Review by Standing Committee

↓

Vote at general meeting
Attendance of majority of registered council persons and approval by majority of present council persons

↓

Transfer
Transfer to head of organization within 5 days of the date of the resolution

↓

Announcement
Announced by the head of the organization within 20 days (for ordinance plans)

Budget plan processing

Compile and submit budget plan (governor, superintendent of education)
Submit to council 50 days prior to fiscal year(for ordinance plans)

↓

Preliminary review (Standing Committee)
Explanation of proposal by overseeing department, Q&A

↓

General review (Special Committee on Budgets and Accounts)
The council cannot increase itemized amounts or add new items to the budget or spend without the consent of the governor (superintendent of education)

↓

Review, resolution (General Meeting)
- Resolution 15 days before starting fiscal year
- The chairperson sends the approved budget plan to the head of the organization within a time span of 3 days.

Review of petitions

Submit petition form (application)
Introduced by council person and state the reason and purpose of the petition within the form being considered for submission

↓

Send to Standing Committee for review

↓

Review and vote by general meeting

↓

Send to head of organization
Attach petition opinion

↓

Report handled results to the provincial council

↓

Notify to the petitioner

Approval of accounts

Drafting account statement and request for approval
- Governor (superintendent of education) shall draft account form within 90 days after closing accounts.
- The council can attach audit opinions to the appointed accounts inspection committee and request approval from the provincial council.

↓

Preliminary review (Standing Committe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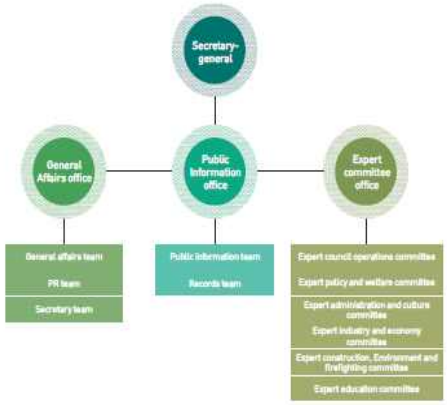
General reviews (Special Committee on Budget and Accounts)

↓

Review, resolution, approval (General Meeting)

Council Secretariat

The Council Secretariat provides systematic support in light of meaningful council activities.



Important phone numbers of the Chungcheonbuk-do Provincial Council

Department		Administration 220
Chairman's office		5000 ~ 02
Vice-chairman's office		5003 ~ 04
Secretary's office		5006 ~ 08
Democratic Party representative's office		5257 ~ 58
Liberty Korea Party representative's office		5255 ~ 56
Secretary-general's office		5102
General affairs office	· General affairs team	5111 ~ 17
	· PR team	5121 ~ 29
Public information office	· Public information team	5151 ~ 58
	· Records team	5161 ~ 70

Department		Administration 220
Assembly Operation Committee	operations	5011 ~ 15
	legislation	5171 ~ 73
Welfare Policy Committee		5021 ~ 24
Administration and Cultural Affairs Committee		5031 ~ 35
Industry and Economy Committee		5041 ~ 44
Construction, Environment and Firefighting Committee		5051 ~ 55
Education Committee		5061 ~ 64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Policy and Welfare Committee

82 Sangdang-ro (Munhwa-dong), Sangdang-gu, Cheongju-si, Chungcheongbuk-do 28515
TEL. +82-43-220-5023 Fax. +82-43-220-5029 http://council.chungbuk.go.kr

참고4 방문국가별 주요 현황

1 독일 (Germany)

□ 개 요

○ 정식명칭은 독일연방공화국(Federal Republic of Germany)이고, 영어로는 Germany이다. 북쪽으로 북해・발트해(海)에 면하고 덴마크와 접하며, 동쪽으로 폴란드・체코, 남쪽으로 오스트리아・스위스, 서쪽으로 프랑스・룩셈부르크・벨기에・네덜란드와 접한다.

○ 국경선 안쪽으로 알프스산맥・라인강・다뉴브강・슈바르츠발트산맥이 자리하고 있다. 행정구역은 16개주(Land:구동독지역 5개주)로 되어 있다. EU(European Union:유럽연합)의 창설국이며 EU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이다.

○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가운데 하나로, 자동차와 철・강철 제품을 수출한다. 1871년 비스마르크가 통일 독일제국을 건설하였다.

○ 제1차 세계대전 패배 후 많은 영토와 모든 식민지를 잃었다. 히틀러가 1939년 폴란드를 침공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이 유발되었다. 히틀러는 600만 명의 사람을 조직적으로 학살한 홀로코스트를 자행했다. 1949년 동서로 분할되었다가 1990년에 통일되었다. 현재 EU 회원국 간의 결속을 통해 서유럽과의 정치적・경제적 통합을 지향하고 있다.

□ 일반현황

수도	베를린
인구	8,229만 명 (세계 17위)
면적	3,571만ha (세계63위)

종교	개신교(27%), 로마가톨릭교(29%)
GDP	3조9,638억만달러(17년, 세계4위)
언어	독일어





2 벨기에 (Belgium)

□ 개 요

○ 정식명칭은 벨기에왕국(KingdomofBelgium)이고, 영어로는 벨지움(Belgium) 이며, 북부와 동부는 네덜란드·독일, 남쪽은 룩셈부르크, 서쪽은 프랑스와 접하고 북서부는 북해(北海)에 면하고 있음

○ 북쪽의 네덜란드와는 지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관계가 깊어 이 두 나라를 저지국(TheLowCountries)이라고 부르기도 함

○ 유럽에서 가장 작은 나라의 하나로, 네덜란드와 함께 유럽에서 인구가 가장 조밀한 지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1948년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와 함께 베넬룩스(Benelux)를 결성한 것을 비롯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유럽연합(EU)에도 가입하였음

○ 행정구역은 10개주(province/provincie), 3개구(region/gewesten)로 이루어져 있음

○ 1516년 에스파냐의 영토가 되었고 18세기초에는 오스트리아, 1789년 부터는 프랑스의 지배를 받다가 워털루전투 뒤 네덜란드에 병합되었음.

○ 1830년 8월에 독립하여 1839년 런던회의에서 영세중립국으로 보장받았음

□ 일반현황

수도	브뤼셀
인구	1,149만 명 (세계78위)
면적	305만 3천ha (세계138위)

종교	카톨릭(75%), 기타(25%)
GDP	4,927억만달러(17년, 세계25위)
언어	네덜란드어, 프랑스, 독일





3 네덜란드 (Netherlands)

□ 개 요

○ 네덜란드의 정식 국명은 네덜란드 왕국(KingdomoftheNetherlands)으로 전체 면적은 41,526km^{2}로 북해와 독일, 벨기에의 국경과 맞닿아 있고, 라인 강, 마스 강, 스헬데 강 등 세 개의 큰 강줄기가 흐르고 있음

○ 국토의 6분의 1은 바다보다 낮은 지대를 간척하여 만든 땅으로, 대부분 목초지나 농지로 활용되고, 있으며 수도는 암스테르담이지만 정부는 헤이그에 있음

○ 북해와 인접해 있어 연평균 기온 10℃의 선선한 해안 기후이지만, 비와 바람이 많아서 체감 온도가 낮아 북유럽 국가들에서 볼 수 있는 추운 기후를 보이며, 한반도 면적의 5분의 1밖에 안되는 작은 나라임

○ 유럽 서부에 있는 입헌군주제 국가이다. 1515년부터 에스파냐의 통치를 받으며 신교 탄압을 받아왔고 1566년 독립전쟁을 감행해 1579년 1월 독립을 선언했으나 1648년에야 완전 독립이 승인되었다.

○ 국토의 25%가 바다보다 낮은 나라로 세계에서 인구밀도가 높기로 유명하며 높은 경제 수준과 안정된 정치로 선진국 대열에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럽경제공동체(EEC, 현재 EU)의 창립국이다. 행정구역은 12개 주(provincie)로 이루어져 있다.

□ 일반현황

수도	암스테르담
인구	1,708만 명 (세계68위)
면적	415만 4천ha (세계132위)

종교	카톨릭, 개신교 등
GDP	8,262억만달러(17년, 세계18위)
언어	네덜란드어





참고5 주요 정책별 유럽선진국 주요현황

1 독일 성평등 정책 및 마더센터 운영현황

<충북여성재단 이현주 연구원 제공>

1. 독일의 성평등 제도, 정책, 사업 소개

가. 독일의 여성정책 기구[1)]

1)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BMFSFJ,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 독일의 연방차원에서 여성의 권익과 성평등에 관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중앙부서 부재
  : 여성 권익과 성평등 업무는 현재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에서 담당

- 독일의 연방 여성정책담당 부서는 1950년 연방 내무부의 '여성의 헌법상 권익과' 에서 1994년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의 '평등국' 으로 발전함
  : '여성' 이란 명칭이 연방정부의 중앙부서에서 나타난 것은 여성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였기 때문

<표 1> 독일 가족부의 명칭 변화

연도	가족부의 명칭
1953	가족문제부(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nfragen)
1957	가족·청소년문제부(BM für Familien- und Jugendfragen)
1963	가족·청소년부(BM für Familie und Jugend)
1969	청소년·가족·보건부(BM für Jugend, Familie und Gesundheit)
1986	청소년·가족·여성·보건부(BM für Jugend, Familie, Frauen und Gesundheit)
1990	가족·노인부, 여성·청소년부(BM für Frauen und Jugend, BM für Familie und Senioren)
1994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약칭 BMFSFJ)

1) 참고자료 : 황혜신(2008), 박선영 · 송효진(2014)

2) 독일 연방의회 여성가족노인청소년 위원회(Deutscher Bundestag, Ausschuss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 독일의 여성가족 관련 최근 현안 - 저출산 문제의 대책으로서 부모수당의 확대(Elterngelt + α) 및 여성임원할당제

(1) 부모수당 확대 방안(Elterngelt + α)

- 현재 유럽에서도 가장 출산율이 낮은 국가들 중 하나인 독일은 최근 기존 부모수당(Eltern Gelt)을 확대하는 방안(Elterngelt + α)을 논의 중임.
  : 기존의 Elterngelt는 14개월. 새 제도인 Elterngelt + α는 2년으로 확대하고 파트타임(근로시간의 50% 이상)인 부모에게도 혜택이 가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

(2) 여성임원할당제

- 2016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의 감독이사회에 30%이상을 여성으로 할당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법안에서 할당 비율을 30%로 한 이유 - 연구결과 적어도 30%이상의 여성이 임원단에 있어야 남성중심의 분위기가 변화할 수 있고, 중립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함. 이때의 여성은 그냥 여성이 아니라 여러 배경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어야 함

나. 독일 성평등담당관 제도[2)]

1) 성평등담당관(Gleichstellungsbeauftragte) 제도: 사업장 내 성평등 관련 업무 전담

가) 성평등담당관(Gleichstellungsbeauftragte)의 종류

(1) 소속에 따른 분류

- 성평등담당관(Gleichstellungsbeauftragte)
  : 독일 연방정부나 주 정부의 100인 이상 부서에서 근무
  : 여성노동자들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불평등한 상황에 처하거나 조직 내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

- 성평등담당관(Gleichstellungsbeauftragte) 또는 여성담당관(Frauenbeauftragte)
  : 지방자치단체 소속
  : 여성노동자의 평등을 위한 지원, 지역 내 여성 주민과의 상담 등을 담당
  :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친화적인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역할

2) 참고자료 : 황수옥(2018)

나) 성평등담당관(Gleichstellungsbeauftragte)의 제정

- 독일에서 2001년 제정된 성평등실현법에서 규정

- 연방 공공기관, 법원, 군대, 간접적으로 공공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기업에서 실시하도록 의무화

- 업무와 관련하여 내부조직 내에서의 독립성
: 이러한 담당관제도는 업무의 특성상 특정 부서에서만 처리하기 어렵고 여러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하고 이를 조정할 사람이 필요할 때 활용 됨.

다) 성평등담당관(Gleichstellungsbeauftragte)의 업무

- 성평등담당관은 성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받는 불이익과 직장 내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평등대우법과 성평등실현법에 따라 업무를 실행하고 지원·감독할 책임

- 여성지원계획, 여성취업지원, 여성과 관련된 지방자치의 계획의 심사, 자격화를 위한 조치에 대한 계획, 교육 또는 경제에 대한 지역의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여성의 문화적 활동(문화보수, 도시순회, 전시) 가시화,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 아동을 위한 탁아와 육아소와 관련된 업무

<표 2> 독일 성평등담당관

<table>
<tr><th>구분</th><th>소속</th><th>명칭</th><th>업무</th></tr>
<tr><td rowspan="2">소속에 따른 차이</td><td>• 연방정부
• 주정부의 100인 이상 부서</td><td>성평등담당관 (Gleichstellungsbeauftragte)</td><td>• 여성노동자의 불평등한 상황 해결
• 조직 내에서 성폭력 문제 해결</td></tr>
<tr><td>• 지방자치단체</td><td>성평등담당관 (Gleichstellungsbeauftragte) /여성담당관 (Frauenbeauftragte)</td><td>• 여성노동자의 평등을 위한 지원
• 지역 내 여성 주민과의 상담
•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친화적인 정책을 수립하도록 도움</td></tr>
<tr><td>전반적 업무</td><td colspan="3">• 성평등담당관은 성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받는 불이익과 직장 내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평등대우법과 성평등실현법에 따라 업무를 실행하고 지원·감독
• 여성지원계획, 여성취업지원, 여성과 관련된 지방자치의 계획의 심사, 자격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 여성의 문화적 활동 가시화,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 아동을 위한 탁아와 육아소와 관련된 업무</td></tr>
</table>

다. 독일 출산지원정책[3]의 현황 및 내용

1) 모성보호 및 출산지원정책

- 독일은 기본법 제6조에 모성에 대한 보호를 규정
  : 임산부의 경우 임신기간 동안 그리고 출산 후 4개월까지 해고가 제한
  : 모성보호법에 의해 위험한 작업에서의 취업이 금지, 야간근로 및 휴일 근로, 연장근로도 금지
  : 임산부의 경우 모성수당(Mutterschaftsgeld)의 지급 요청 가능
- 모성보호휴가제도
  :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으로 구분
  : 산전후 휴가는 출산 전후 각각 6주와 8주의 모성휴가를 법으로 보장. 단 조산이나 쌍생아의 경우는 12주의 모성보호기간이 보장
  : 육아휴직제도는 자녀가 3세에 도달할 때까지 부모시간 제도 사용 가능.
  부모시간동안 부모는 주당 30시간까지 시간제 노동 가능(2007년부터 부모시간제도는 부모휴직수당제도로 대체)
  : 모성보호정책의 일환으로 소득에 따라 출산비 지급, 이사비용 및 교육지원, 세금면세혜택

- 모성보호정책 외 임신 및 출산지원정책 : 세금공제와 주거비지원
  : 세금공제는 자녀양육공제와 가족세금공제로 구성. 경제적 지원은 수당지급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금공제 정책은 큰 의미를 찾기 어려움(아동수당과 육아수당을 중심으로 가정 내 모성 역할을 지원하는 정책이 주를 이룸)
  : 세금공제 외 주거비지원정책을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 소득의 수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주거비 지원. 가족의 소득을 간접적으로 지원해줌으로써 주거비가 차지하는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정책

〈표 3〉 모성보호 및 출산지원정책

<table>
<tr><th>항목</th><th>대상</th><th colspan="2">내용</th></tr>
<tr><td>모성보호</td><td>임산부</td><td colspan="2">• 임신기간과 출산 후 4개월까지 해고제한
• 위험한 작업에서의 취업이 금지, 야간근로 및 휴일 근로, 연장근로도 금지
• 모성수당(Mutterschaftsgeld) 지급</td></tr>
<tr><td rowspan="3">모성보호 휴가</td><td>출산 전후</td><td>산전후 휴가</td><td>• 출산 전후 각각 6주와 8주의 모성휴가를 법으로 보장 (단 조산이나 쌍생아의 경우는 12주)</td></tr>
<tr><td>자녀 3세까지</td><td>육아휴직제도</td><td>• 육아휴직제도는 자녀가 3세에 도달할 때까지 부모시간 제도 사용 가능
• 부모시간동안 주당 30시간까지 시간제 노동 가능</td></tr>
<tr><td colspan="3">모성보호정책의 일환: 소득에 따라 출산비 지급, 이사비용 및 교육지원, 세금면세해택</td></tr>
<tr><td rowspan="2">임신 및 출신지원 정책</td><td rowspan="2">소득별</td><td>세금공제</td><td>• 자녀양육공제와 가족세금공제로 구성
아동수당과 육아수당을 중심으로 가정 내 모성 역할을 지원하는 정책이 주를 이룸</td></tr>
<tr><td>주거비지원</td><td>• 세금공제 외 주거비지원정책을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
• 가족의 소득을 간접적으로 지원해줌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경감 정책</td></tr>
</table>

3) 참고자료 : 박채복(2018)

2) 양육 및 자녀교육정책: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 아동을 위한 직접적인 현금지급수당의 종류로는 아동수당(Kindergeld), 아동수당보조금(Kinderzuschlag), 아동세금공제(Kinderfreibetrag)로 구분

가) 아동수당

- 아동수당은 자녀가 18세가 될 때 까지 지급되는 수당
  : 소득수준에 따라 25세까지 연장해서 지급이 가능
- 아동수당은 자녀를 둔 가정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
  :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자녀양육 비용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
  : 아동수당은 아동에 대한 양육 및 교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여 부모의 소득과 무관에게 모두에게 지급

나) 아동수당보조금(Kinderzuschlag)

- 자녀의 양육이 곤란한 저소득층과 빈곤층에 지급되는 보조금 형식의 지원금
  : 아동수당보조금은 아동수당과는 달리 소득이 너무 높거나 낮아도 청구권이 없으며, 지급 여부는 복잡한 절차를 통해 결정
  : 가정의 소득이 생계를 유지할 정도는 되지만 자녀양육으로 재정적 어려움과 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는 가정 중 실업급여Ⅱ에 의존하지 않는 경우 아동수당보조금이 지급
- 아동수당보조금은 총 3년 간 지급

다) 아동세금공제(Kinderfreibetrag)

- 소득이 높은 사람과 가족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아동세금공제 형식으로 세금공제 혜택을 주는 것
- 아동수당의 세금감면혜택이 거의 없는 고소득자의 경우 아동수당 대신 아동세금공제를 받음

라) 양육수당

- 자녀양육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통해 자녀의 양육과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화
- 양육수당은 2001년 이후 출생한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부모에게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양육비가 지급. 주당 30시간미만의 취업이 허용
- 양육휴가의 기간이 3년으로 확대. 자녀양육을 위한 부모의 양육휴가의 제도화
  :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출산과 자녀양육을 위한 양육휴가 사용, 직장복귀 및 재취업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짐.
  : 양육휴가동안여성 시간제 근로 보장과 양육휴가 사용 이후 직장복귀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짐.

<표 4>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항목	목적	지급 기간	지급 대상	기타
아동수당	자녀를 둔 가정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	18세까지 (소득수준에 따라 25세까지)	부모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	
아동수당보조금	자녀의 양육이 곤란한 저소득층과 빈곤층에 지급	3년간	가정의 소득이 생계를 유지할 정도는 되지만 자녀양육으로 재정적 어려움과 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는 가정 중 실업급여Ⅱ에 의존하지 않는 경우	
아동세금공제	소득이 높은 사람과 가족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아동세금공제 형식으로 세금공제혜택	18세까지 (소득수준에 따라 25세까지)	고소득자	
양육수당	자녀양육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통해 자녀의 양육과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화.	-	부모에게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양육비가 지급	주당 30시간미만의 취업이 허용

3) 육아휴직제도: 부모휴직수당제도

- 부모휴직수당제도
  : 자녀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휴직하는 부모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
  : 여성의 일과 가족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

- 양육휴가제도에서 부모시간제, 그리고 부모휴직수당제도로 개혁
  : 성평등정책을 근간으로 자녀의 양육을 부모 공동책임으로 하여 아버지의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권장
  : 육아와 노동의 조화 및 양립을 통해 출산과정에서도 여성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 출산 후 빠른 직장복귀를 가능하게 지원 → 경력단절 완화, 일과 가족양립을 가능하게 하여 출산율을 높이려는 정책

- 부모휴가수당제도는 12개월 이외 2개월이 추가되는 12+2months 방식으로 운영
  : 부모휴직수당은 자녀의 출산 후 최대 14개월까지 지급
  : 쌍생아의 경우는 둘째 아이에 대하여 300유로가 더 지급
  : 추가되는 2개월은 아버지 할당제(daddy months). 아버지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
  : 14개월 동안 부모휴직수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부모가 교대로 자녀를 양육해야 함.
  : 결과적으로 2006년에 3.3%에 불과했던 아버지 부모휴가 사용률이 2009년에는 19.5%로 증가, 2013년에는 24.6%로 증가

- 부모휴직제도 운영
  : 부모휴직제도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녀 모두가 신청할 수 있는 무급 휴가청구권
  : 부모휴직제도는 일부 기간만 혹은 전 기간을 선택하여 유연하게 사용 가능
  : 부모휴직은 자녀가 3세가 되는 날까지만 부여되며, 산전후휴가 역시 부모휴직에 삽입되어 적용. 다자녀의 경우 매 자녀에 대하여 부모휴직을 청구 가능

4) 아동보육서비스

-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배경, 해결하는 과정은 국가마다 차이가 존재
  : 국가의 여성친화적인가 아닌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를 제공
  : 출산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보육과 양육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높음.
  :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정과 성역할분리에 입각한 젠더평등 정책을 국가가 개입하여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출산율이 높음.
  : 국가에 의해 지원되는 보육시설의 여부는 출산율에 영향

- 독일
  :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을 높이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독일정부는 3세 이상 아동에 대한 공적영역에서 보육서비스를 확대
  : 일하는 여성을 위한 반일제・전일제 운영을 추진하여 아동보육서비스의 확대정책을 추진
  → 2006년과 2015년 사이 15세-65세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60%에서 67%로 증가. 특히 2세 및 3세 아이를 둔 여성의 경우 2015년 경제활동참여율이 각각 43%, 58%로 2006년의 32%, 41%에 비해 크게 증가. - 주당 20시간에서 36시간 사이의 시간제 근무가 증가한 결과
  : 특히 0세부터 3세까지 영유아동에 대한 공적 보육시설의 확대는 여성 특히 기혼여성의 노동권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지원되어야 한다고 인식

<표 5> 육아휴직제도 및 아동보육서비스

항목		대상	내용
육아휴직제도	부모휴가 수당제도	자녀 출산 후 최대 14개월	• 12개월 이외 2개월이 추가되는 12+2months 방식 • 추가 2개월은 아버지 할당제(daddy months) →아버지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 • 14개월 사용 시 부모가 교대로 자녀를 양육해야 함 • 쌍생아의 경우는 둘째 아이에 대하여 300유로 더 지급
	부모휴직 제도	자녀 3세	•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녀 모두가 신청할 수 있는 무급 휴가청구권. • 부모휴직제도는 일부 기간만 혹은 전 기간을 선택하여 유연하게 사용 가능
아동보육서비스		3세 이상 아동	• 공적영역에서 보육서비스를 확대 • 일하는 여성을 위한 반일제・전일제 운영을 추진하여 아동보육서비스의 확대

라. 독일의 일 · 가정양립 및 저출산 정책[4)]

1) 지역 공동의 가족친화도시 조성 노력 및 독일의 저출산 대책 법적 프레임

가) 하이델베르크 가족연합

(1) 하이델베르크 가족연합 소개 및 역할

- 2007년 3월 창설된 네트워크, 현재 150개 기업, 공공・행정・정책기관, 가족 친화경영에 관심 있는 시민 등 총 230개 이상의 주체가 파트너로 참여

- 하이델베르크에서 직장과 가정의 조화, 네트워크를 통한 구체적 솔루션 및 서비스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가족연합은 다양한 워킹그룹을 두고 프로젝트와 이벤트를 개최

- 가족친화경영에 관심 있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위한 네트워크 플랫폼 기능

- 지역가족연합은 정기돌봄서비스(짜투리시간, 방학, 응급 돌봄) 보완, 가족돌봄 등의 트렌드와 발전상파악, 기업 브랜드로서 가족친화경영 강화, 전문인력 확보 및 연계 지원 등의 활동

- 하이델베르크 가족연합에는 다양한 워킹그룹이 활성화. (듀얼 커리어(Dual career), 양육, 방학 중 양육, 직장과 가정의 조화, 직장과 가족간병의 조화 운영 중)

- 가족연합의 주요사업
  : 방학직업체험(청소년을 위한 직업 관련 방학프로그램)
  : 방학티켓(고용주를 위한 쿠폰모델)
  : 온라인베이비씨터거래소(구인구직) 운영
  : 기업교육프로그램 ‘연합 가족돌봄 A-Z’ 운영
  : 기업내 돌봄전문가 교육
  : 소책자 ‘하이델베르크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발간
  : 아빠 캠페인 ‘남성을 위한 직장과 가정의 조화, 부모기간이상으로!’
  : 이동전시프로그램 ‘직장과 가정의 조화’ 운영
  : 듀얼 커리어 구인구직 제공 : 지식기관의 온라인구인구직사이트 운영
  : 파트타임 직업교육기관 연계 : 가족친화적 직업교육모델
  : 재취업 희망여성을 위한 서비스 : 이력서 점검 및 상담

- 연합라운지(Bündnis-Lounge)와 연합토크(Bündnis im Gespräch)
  : 가족연합의 대표적인 행사
  : 포럼에서 가족연합 참여기관은 전문가 및 다른 가족연합의 참여기관과 최신 테마에 관해 토론

4) 참고자료 : 양정선・정형옥・최윤선(2017)

- 기업에게 주는 다양한 혜택
  : 네트워크를 통한 160개 이상의 가족연합 파트너와의 경험교류
  : 가족연합의 다양한 솔루션 접근 및 가족연합 로고사용 허용
  : 직장과 가정의 조화에 관한 최신정보 제공 및 관련 행사 참가

- 돌봄 현황
  : 독일은 현재 250만 명이 직업과 가족돌봄 서비스 받음.
  : 2050년에는 450만 명이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할 것으로 전망
  : 돌봄을 주로 부담하는 사람은 가족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
  : 여성은 돌봄 때문에 직업 활동을 포기하기도 하므로 '직업과 가족돌봄의 조화' 기업과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발전을 담보하기 위한 주제

(2) 부모수당 지급

- 출산율과 관계
  : 독일의 출산율은 10년 전 1.39명, 현재 1.50명으로 증가
  : 출산율과 노동력은 긴밀히 연결- EU와 기업들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
  : 아동을 돌보고 가족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지원하는 것이 가족연합의 설립 목적

- 독일 연방의 가족지원
  : 가족지원 - 아동수당, 아동비과세, 아동보조금, 한부모 부담경감, 양육비 선지급
  : 가족지원제도의 강화 - 부모수당, 돌봄기간 근로시간 단축 및 휴직 제도 등 운영
  : 부모수당은 14개월까지 지급 가능(세후 급여의 65%, 1,900유로 상한)
  : 반일근로자를 대상으로 28개월까지 지급하는 '부모수당 플러스' 수당도 있음.
  : 가족돌봄기간 24개월, 이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돌봄기간 동안 6개월까지 휴직도 가능
  : 부모수당은 10년 전부터 생겼는데 이때부터 출산율이 올라감.

(3) 아빠의 육아휴직

- 엄마만 육아에 참여하는 경우엔 12개월만 지원되지만 아빠도 엄마와 번갈아 육아 휴직을 신청한다면 14개월까지 휴직이 가능, 육아를 담당하는 엄마 혹은 아빠는 월급의 65%를 지급

(4) 방학 지원

- 법적으로 방학이 14주, 근로자의 휴가는 30일: 그 차이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
  : 정부에서 상품권(바우처)을 기업에게 주고, 기업이 직원들에게 나눠 줌.
  : 어린이들이 부모 소득에 상관없이 방학 동안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

(5)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노력

- 직업과 직장에서 가족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세미나를 운영
  : 이 프로젝트 네트워크의 경우 주정부 주도로 만들어짐, 현재 700개 이상 지역연합이 있고,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연계되어 가족친화적인 정책을 실행
  : 기업인식을 바꾸기 위한 교육을 실행하고 가족친화적인 복지 지원이 이루어지면 고용주는 직원에게 좋은 인상과 신뢰 있는 기업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음.

- 이런 과정을 통해 모든 주·지역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

2) 여성의 직업기회 창출을 위한 원스탑 서비스

가) 만하임 성평등위원회

- 연방 기본법과 바덴뷔템베르크주의 기회균등법에 근거를 두고 설치된 조직
  : 연방 기본법 3조 2항에는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가 실제적으로 관철되는 것을 지원해야 하고 현존하는 불이익을 제거하는데 영향을 미쳐야 한다.” 고 규정
  : 주 기회균등법에는 “인구 5만이상의 모든 시군 및 자치단체는 여성지원과 사회적인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한 명의 성평등 위원을 임명해야 함.
  : 성평등위원은 관청내부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훈령에 구속되지 않는다.” 고 규정

(1) 행정 내부와 도시공동체로 업무 구분

- 역할 분담
  : 만하임 성평등위원회 내부평등부와 시민평등부로 나눠 업무를 수행
  : 내부평등부는 만하임시청 내부의 여성 기회균등을 위한 업무
  : 시민평등부는 행정 외부의 여성 기회균등을 위한 업무

- 성평등위원회의 역할
  : 직원개발 및 선발, 사업장에서의 성폭력 예방, 전문상담, 가정, 돌봄, 직업의 조화, 가이드라인 제시 등의 업무
  : 대외적으로는 여성문화예술위원회 운영, 정책위원회 운영, 민간 및 공공영역에서의 여성폭력 예방, 성매매, 인신매매, 강제결혼 예방, NGO 관리, 여성과 직업 등의 역할
  : 이런 업무 수행을 원활하기 하기 위해 정치권, 행정권, 도시공동체에 최신 성평등 관련 발전, 테마, 질문에 대한 정보를 주고 상담을 진행. 남녀 기회평등을 촉진하는 프로젝트와 조치를 현실화하고 행정내부와 도시공동체에 명백히 요구

(2) 시청 내 여성 우대정책 지원

- 내부평등부
  : 직원의 평생교육을 담당, 직원 채용 시 남녀 똑같은 능력을 가졌을 경우 여성을 우선하는 정책을 지원
  : 여성공무원이 성희롱, 성적따돌림, 성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지원하며, 인력을 개발하고 표준 행동방법 개발에 협력하고, 시 · 주정부 · 연방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인 연계를 맺고 건설적인 협력 프로그램을 진행

(3) 시청 외 여성 지원

- 시민평등을 위한 활동
  : 여성 정치가와 공동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공공과 개인영역에서 여성폭력에 대한 심리 상담사를 배치하고 여성 일자리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NGO단체를 지원
  : 가정폭력, 빈곤으로 인한 성매매, 인신매매, 강제혼인에 대항하는 주체를 지원, 상담소 운영과 사회봉사자 중계 역할
  : 여성 리더 배출을 위해 대학 진학을 돕고 강연 기회를 제공

(4) 직업 상담 제공 직업센터 운영

- '여성과 직업' 담당 부서를 설치, 바덴뷔템베르크 주정부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12개 '여성 직업센터' 중 하나인 만하임-라인-넥카-오덴발트의 여성 직업센터 (Kontaktstelle Frau und BerufMannheim-Rhein-Neckar-Odenwald, 이하 '직업센터') 운영에도 참여

- 주요 테마
  : 직업 오리엔테이션, 경력관리계획,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 일자리 찾기, 입사 지원, 육아휴직 복귀, 재정·후원가능성, 직장과 가정의 조화 등
  : 직업센터는 성평등위원회와 네트워크를 구축, 구조적으로 여성의 직업기회를 개선하는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기업에게는 가족 친화적 인력정책의 지원자 역할
  :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만 중립적인 위치에서 일하고 있으며 고객의 요구와 기업 및 노동시장의 요구에 방향을 맞춤

- 성평등 상담전화 '여성과 직업 컨텍포인트' 운영
  : 목적은 직업생활에서 여성의 성평등을 지원하고, 기업을 위해 여성 전문인재의 잠재력을 발굴하며, 직장과 가정의 조화를 위한 동기부여를 하는 것
  : 여성이 쉽게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전화 직업 상담을 해주는 프로그램

- 직업주기별 체계적인 상담 추진
  : 컨텍 포인트에서는 여성 직업과 관련된 거의 모든 문제를 상담
  : 상담오리엔테이션, 행사, 세미나, 워크숍, 프로젝트, 출판 등의사업도 수행. 연령,
  : 학생 및 졸업생, 직장초년 여성, 재취업 여성, 자영업자 및 창업 여성, 여성 경영진 등 다양한 여성들이 이곳에서 직업주기별로 자문

(5) 직업 진출 위한 네트워크 구축

- 직업적인 네트워킹 기회에 대한 정보와 성공적인 네트워킹 팁을 제공
  : 경제·지역시설의 담당자와 개인적인 교류 및 대인관계 기회 제공
  : 다양한 위원회, 워킹그룹, 네트워크 등 참여
  : 연구소, 기업, 직업소개소, 노동청, 대학 등과 특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 이들 네트워크와 정보 교환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

2. 독일마더센터[5] 소개

가. 설립배경

- 독일은 과거 낮은 출산율[6],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만 3세까지는 엄마가 키워야한다'는 모성 중심의 전통적인 양육관이 팽배한 사회였음. 1990년 통일 이후, 가족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재개혁, 자녀수당 상향조정, 육아수당 및 육아휴직 확대 등 현금지원이 늘어났고, 2005년 메르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연방부모휴직수당제도 강화, 3세 미만 아동을 위한 보육시설 확충 등 변화가 일어남.

- 다양한 가족정책이 마련되기 이전인 1980년 초, 여성 풀뿌리 관련 부모교육 과정에서 '마더 센터'에 대한 아이디어가 도출되었고, 이후 독일 청소년 연구소(German Youth Institute)에서 관련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마더센터'라는 명칭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음.

- 현재 독일 내 약 400여 개의 '마더센터'가 운영 중이며[7], 마더센터에서 활동했던 여성들의 경험을 담은 책자가 국제적으로 확산되면서 전 세계 25개국 1,000여 곳 이상에 설치됨. 초기 출산센터로 시작하였으나 1990년 노인세대 사업까지 확장, 2002년 주와 연방정부의 협조로 다세대주택으로 확장된 상태임.

나. 마더센터의 운영철학 : 자조(Self-help)와 역량강화(empowerment)

- 모든 활동은 개인이 자발성과 적극성에서 기인하고 있음. 엄마와 여성, 지역주민, 시민사회가 가진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도와가며 향상시켜 개인의 행복을 높이고 지역사회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임.



[표 6] 마더센터 운영 철학

5) 독일 마더센터는 한국형 마더센터의 성장가능성을 탐색하고자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2015)에서 발간한 '2015 마을살이 작은연구'와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 방안을 마련하고자 서울시여성가족재단(2015)에서 발간한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방안 연구'에서 참고하여 정리함.
6) 독일의 합계출산율: 1994년 1.24명, 2006년 1.33명, 2013년 1.41명으로 회복상태, 한국의 합계출산율: 2006년 1.12명, 2013년 현재 1.19명
7) 독일 내 마더센터 400여 개, 마더센터를 모델로 한 다세대하우스 500여 개

다. 주요특징

- ‘누구나 능력을 갖고 있다’ 라는 전제 하에 서로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문화이며, 누구든지 한 가지 장점만 있다면 마더센터에 와서 그것을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특히 독일의 마더센터는 기성 전문가와 차별화된 방식으로 엄마들이 생활전문가로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고 스스로 조직, 기회와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격려했으며 평범한 지역의 엄마들이 스스럼없이 마더센터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함.

- 마더센터는 ‘열린 공간’으로 ① 카페형, ② 중단 없는, ③ 세대통합, ④ 지역 공동거실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용대상은 싱글맘에서 육아맘, 아이와 남성, 다문화 가정, 청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여러 세대를 아우름. 마더센터는 ‘자조(Self-help)’와 ‘역량강화(Empowerment)’ 라는 운영철학을 가지고 세대 통합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마더센터 공간을 통해 시간제 돌봄, 벼룩시장, 조산원, 세미나실 등 다채로운 마을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

- 마더센터는 이주여성, 한부모, 미혼모 등에 대한 기성 사회의 선입견이나 차별 없이 누구나 함께 식사를 하고 쉴 수 있었으며, 서로 배우며 자녀양육을 도와주고 가사노동으로 지친 여성들의 육아를 보조하기도 하였음. 이는 ‘마더’라는 용어가 시사하는 성별분업, 즉 여성에게 ‘엄마’라는 이유로 돌봄을 전가하는 듯한 이미지를 해체하는 지점으로, 엄마에게 돌봄을 전가하기보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돌봄 노동의 양을 일부 해소시켜 주고 지지/지원하는 역할로 구성됨. 마더센터는 기본적으로 여성의 양육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가장 기본적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시간제 일자리와 여성들의 자원봉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표 7〉 마더센터의 특징

- 센터에서 여성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능력과 재능으로 참여한다.
- 근본적으로 개별 여성들이 센터에 무엇을 기여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 동시에 ‘휴식, 재충전’은 나쁜 단어가 아니다.
- 엄마들은 지지받고 안정을 취할 필요가 있다.
- 센터에서 풀뿌리 여성들은 전문가이다. 전문가와 협력도 중요하다.
- 센터에서 일하는 엄마들은 임금을 받는다.
- 기존의 전문가적 방식과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구성하기 위해 자조활동 경험이 있거나 다른 사람과 나누는 풀뿌리 일에 자신감과 믿음이 있는 발기인 그룹을 결성한다.
- 훈련과 세미나에서의 사색이 실질적인 일을 만들고, 일상적인 경험이 센터에서 필수적인 지지 구조이며, 배움의 과정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다른 마더센터 엄마들 간 교류는 매우 생산적이고 자극이 된다.

라. 운영방식 및 재원

1) 운영방식

- 독일의 마더센터가 지원하는 활동들은 이미 국내에서도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로 관 주도의 한부모지원센터,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보육지원센터, 여성취업센터 등과 민간 주도의 공동육아 어린이집, 재활용가게, 마을도서관, 지역아동센터 등에 해당하지만, 국내의 기관들은 주로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한정된 전문분야의 활동에 그치는 반면 독일 마더센터는 여성들이 서로의 재능으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간임.

- 즉, 마더센터라는 공간은 전문가와 수혜자 입장에서 한정된 특정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지역여성들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로 생활전문가[8]로 일컬어지는 지역여성이 이웃여성을 돕는 유연하고 지속가능한 장소임. 이러한 활동 방식은 사업의 주체와 객체의 간극을 허물어내면서 마더센터의 모든 회원들이 열쇠를 공유하기도 하고, 품앗이 공동육아를 통해 다른 아이의 엄마가 되기도 하며 이웃 여성의 가사노동을 지원하기도 함.

〈표 8〉 마더센터의 운영전략

○ **공동 공간(마을 거실)**
- 열린공간으로 운영되는 공동공간은 카페형으로 이루어졌으며 중단 없이 운영(시간의 제약을 뛰어넘음)되고 세대 통합이 가능하며 지역의 공동거실로 활용도가 높음. 또한 엄마들의 일상생활의 경험이 전문성으로 인식되고 가치있는 일로 인식되기도 한다. 특히 여성들이 배움의 중요성에 대해 자각하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스스로의 기술과 자원을 축적하며 잠재되었던 리더십을 개발하고 있다.
○ **의사결정구조에 참여**
- 풀뿌리 여성들이 정치참여를 하도록 하고, 지역사회 여성들이 그들을 지지, 지원하는 시스템을 유지하도록 만들어 지방정부의 여성참여를 성공적으로 해오고 있다.
○ **지역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자본 증대**
- 마더센터는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평화를 만들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에게 개방적이고 안전하며, 서로 돌봐주는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의식을 강하게 만들고 유지시키고 있다. 이러한 건강한 지역공동체 의식은 사회적 통합과 사회의 민주적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 **일상생활의 전문가**
- 지역사회의 여성들은 우리 환경이 어떠해야 하는지, 사용자들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일상생활에서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공보육제도, 질 높은 놀이터, 안전한 교통조건, 가족친화적 도시/주택 기획과 같은 분야에 지역사회

8) 독일 마더센터의 '전문가'에 대한 정의는 기성 전문가와는 차별화된 생활전문가를 지칭한다. 마더센터의 '전문가'는 ① 내용과 조직에서 유연하며, ② 연령과 세대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③ 전통적인 위계질서나 의식이 낮고 방문자들을 고객으로 보거나 대하지 않는다. 또한 ④ 서로 온전한 사람으로 느끼고, 감정을 열어놓고 보여주며 센터를 위해 개인의 책임감을 요구한다. ⑤ 청소활동은 자발적이고, 무임금 참여와 같은 자원 활동을 수행한다(최정은, 2015;11).

리더십이 발휘되도록 한다. 마더센터는 가족/아동친화적 사회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육아 이슈, 지역사회 관심 사안들을 국가적 캠페인과 정책으로 연결하여 강령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 **홈 서비스로**

- 아이와 노인들을 위한 픽업, 에스코트 서비스, 수위와 유지관리 서비스, 식사와 쇼핑 서비스 같은 서비스들이 마더센터에서 개발되었다. 이것은 모든 세대의 이웃들 간에 만남을 만들어 내고 있다.

○ **빈곤과 사회적 배제의 감소**

- 마더센터는 위기가정을 위해 지역사회망을 만들어서 그들의 사회적배제와 소외를 줄이고 있다. 식당에 갈 돈이 없거나 문화를 누릴 수 없는 가족들은 마더센터 내의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 패배감, 부끄러움, 위축감 등 같은 부정적 감정들은 센터의 분위기 속에서 중화된다.

○ **파트너십**

- 마더센터 운동의 역사는 풀뿌리주민, 학자, 전문 연구기관, 정부간 성공적 파트너십을 만들어냈다. 마더센터는 마을의 중요한 연결망이며 다양한 분야의 지역이슈에 그들의 관점을 제시하기도 한다.

○ **마더센터 모델의 확산을 이끈 주된 전략**

- 문화적 차이에 상관없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회에서의 '역사적 요구' 임을 어필하며, 풀뿌리 지역주민과 전문가들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이다. 또한 스토리텔링 형식의 자료와 정보를 만들어 배포하고, 면대면 교환프로그램, Peer learning event, 지역 간, 국가 간 네트워킹을 촉진하는 것이다.

2) 재원

- 독일의 마더센터는 설립배경과 운영철학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풀뿌리여성 운동의 결과물로 철저하게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이러한 조직이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독일의 마더센터의 재원은 100% 시민기부금으로 운영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공적자금을 지원받으며 독일 연방정부의 보육정책에 따라 차이가 있음. 기금은 연간 5만유로에서 40만유로까지 차이가 컸으며, 지방정부에서 건물임대를 포함한 일부지원을 받는 곳과 정부에서 전액을 지원받는 곳 등으로 나뉨(이소헌, 2011; 문유경, 2012; 최정은, 2015).

- 비록 독일의 마더센터는 정부의 공적자금을 지원받고 있지만, 그들의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의 논리와 구조를 통해 그들을 규정하려는 정부의 경영관리와 끊임없는 전문가성의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항해 오고 있음.

- 공적자금에 대한 이러한 딜레마는 풀뿌리운동조직에서 시작한 지역단체/기관들이 자발성과 유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는 중요한 논의지점임.

마. 주요활동

- 쉼터/교류(매일 100인분의 요리가 준비, 가장 중요한 일은 교육하는 것), 상담/정보

- 서로배움/교육

- 이웃과 지역공동체 서비스(아이돌봄, 성인돌봄, 중단없는 카페, 지속적인 교육, 세탁, 이동, 쇼핑 등 홈서비스, 아이~노인프로그램, 소규모 소기업 창업 등)

- 자원활동/가족친화 일자리(전일제 전업맘, 전일제 워킹맘의 제약에서 벗어나 임금을 받고 활동)

- 이웃네트워크센터, 지역공동체 발전, 정치참여를 이끌어 냄.

마더센터의 4무(無)→4유(有)

○ 수직체계→팀활동: 매일 30-40명 여성 방문, 스스로 프로그램 설계 및 활동

- 마더센터는 잘 교육을 받고 일한 전문가들로만 채워져 있지 않다. 여성 스스로가 가진 재능과 경험들 모두 제 가치를 인정받는다. 엄마들은 시간제로 일하고, 팀을 꾸려 운영을 살피고, 적어도 일주일 단위로 만난다. 팀의 일은 센터 운영을 협의하고, 엄마들이 자조 프로그램을 하도록 동기 부여를 한다. 팀 활동은 센터 참여자들의 관용과 연대 분위기 발전에 기여한다. 팀 모임을 통해 스스로의 행동을 반추해보고 단체의 역동성을 배운다. 팀 활동을 통해 갈등 해소를 위해 적정한 행동과 기술을 배운다.

- 마더센터는 매일 30-40명의 여성들이 방문하고, 아이까지 포함하면 2배 이상 모인다. 어린 자녀를 둔 엄마, 한부모, 이민여성, 워키맘 등 다양하다. 적극적인 참여자는 100-150명, 방문자수는 300-500명 규모다. 카페에서 일하고, 아이돌봄서비스는 시간당 비용을 내고 모든 여성들은 벼룩시장, 기타과정, 다림질, 수선, 바느질, 마사지, 아이 체조, 점심, 세금 조언 등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마더센터 프로그램은 일상적으로 방문하는 30-40명의 여성들 스스로가 설계하고 활동한다. 여성 모임 구성은 당사자의 의지나 가족의 사정에 따라 1년간 유동적으로 움직인다. 활동하는 엄마들은 센터와 일에 대해 한 달 단위로 협의하고, 이 모임뿐 아니라 팀 모임도 모든 엄마들에게 열려 있다.

○ 시간제약→100개 열쇠: 언제든지 열려있는 공간

- 마더센터는 약 100개 열쇠가 있다고 한다. 이는 매일 센터에 방문하는 여성들이 언제든 오갈 수 있는 공간임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말이기도 하다. 이처럼 마더센터에는 아이를 둔 엄마들의 리듬에 맞춰있어, 고정된 일정이 없다. 카페 문은 매일 열지만, 엄마들은 시간이 허락될 때 참여한다. 자주 열리는 과정, 세미나, 서비스, 레크레이션 활동 등이 참여 혜택이다. 아이를 데려온다고 부담이 있거나 비용도 들지 않는다. 모든 일들의 핵심은 언제나 들를 수 있는 '중단 없는 카페' 라는 점이다. 일하는 엄마들이 아이와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고, 다시 일을 시작하는 엄마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어려움을 덜어준다. 마더센터 초창기에는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되어 시간제약도 뒀다. 엄마와 지역 여성들의 요구와 무관하게 문을 여닫는 시간이나, 돌봄이 이뤄져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었다. 엄마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마더센터는 '중단없는 카페'로 방향을 바꾸게 되었다.

○ 전문가→생활전문가: 엄마들이 전문가

- 마더센터는 엄마들이 전문가다. 마더센터는 기성의 전문가와 차별화된 생활전문가가 있고, 전문가에 대한 정의도 새롭게 썼다. 모든 일들은 그들 스스로가 조직하고, 센터 운영을 기획하고 경영한다. 마더센터에서의 활동과 교육과정이 역량강화를 뒷받침되면서 평범한 엄마들이 진정한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다.

○ 재원→공적보조금: 카페운영, 벼룩시장, 판매와 서비스에 연간 보조금 8천 만원 필요

- 마더센터의 일상 활동 범위는 전문 상담 기관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다. 특히 협소한 시간과 자금을 생각한다면 경이로운 수준이다. 자금과 공간은 마더센터 운영의 필수 조건이다. 뮌헨에서 첫 3년은 19.6평 내외 아파트를 센터로 삼고, 방 하나는 카페로 다른 방은 놀이방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이후에는 32평으로 옮겨 아이 놀이방, 카페, 사무실로 나누고, 지하는 판매, 이발소 등으로도 활용했다. 카페운영, 벼룩시장, 판매와 서비스 등 마더센터 운영에는 연간 보조금 6만유로(연간8천만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공공기관과 비교해볼 때 비용 대비 효과는 놀랍기는 하나, 마더센터는 보조금 없이 운영되기는 어렵다.

3. 독일 마더센터 사례

가. 독일 잘츠기터(Salzgitter) 마더센터

1) 소개

- 독일 북부 잘츠기터 마더센터는 독일최초로 설립되어 3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마더센터 중 규모가 가장 큰 곳임. 처음 마더센터를 만들 당시 조부모, 부모, 아이들이 함께 만나는 '열린공간'(거실)을 생각하고 만들었고, 특히 '어머니들의 공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함. 공동육아 공간 및 어머니 공간을 만들어 엄마가 아이를 다른 곳에 맡기지 않고 데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포인터였음. 즉,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면서 자기계발이 가능한 곳에서 돌봄 부담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마더센터 태동의 배경임.

2) 공간운영

- 잘츠기터 마더센터 설립비용의 대부분은 외부로부터 후원을 받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림. 열린공간, 즉 'open'을 테마로 하여 건물 주변에 울타리와 벽이 없고 건물 또한 투명한 유리로 외부에 공개되어 있음. 특히, 아이들을 위한 공간과 노인을 위한 공간 사이 닫히 문 없이 모두 오픈되어 있어 활동을 공유할 수 있음. 또한 한 지붕아래 카페, 키즈 카페(아이들봄)가 있으며, 아이들 80명까지 수용이 가능함. 노인을 위한 공간, 상담, 교육, 직업교육(젊은층), 집안일(청소, 세탁) 공간이 함께 있음.

-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잘츠기터 센터로 3층 400평 규모로, 건물 내 100개 방이 있음. 이 방 곳곳에서 다양한 클래스가 진행되며 정해진 수업도 있지만 즉흥적으로 만들어 져서 운영되기도 함.

- 마더센터의 공간은 시, 협회에서 빌려주거나 구해주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마더센터와 같은 건물이 건립됨으로써 주변 여건이 좋아지는 효과가 생겨 지역의 땅을 가진 사람들이 이러한 센터를 지원해주는 사례도 있음.

3) 재정운영

- 정부지원을 안 받으면 부담해야 할 비용이 높아지지만 지원을 받으면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이 생겨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진입장벽이 생기는 우려가 있음. 현재 마더센터 운영에 있어 재원은 정부지원보다 민간지원이 더 많음. 프로젝트 펀드 형태도 있으며 아동교육을 위해 집집마다 받는 양육수당을 기부하는 경우도 있음.

- 매일 600명이 방문・이용 중으로 이들에게 점심식사(유로)를 제공하고 얻게 되는 수입이 있고, 프로그램 활동비의 일부를 비용으로 부과하여 얻는 수입과 같이 자체 수익도 있음.

- 또한 법적근거를 둔 등록 육아센터(유료)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유형의 육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때 등록육아센터는 시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자체수익이 발생하게 됨. 그 외 기업을 찾아가 후원을 받기도 함. 재정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후원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함.



[그림 87] 잘츠기터 마더센터 전경과 활동모습

출처: <서울마을이야기> Vol.35호(2015.11.25.)

<표 9> 대형규모의 마더센터 재원구성 예시

(단위: 유로)

수입	414,000	지출	414,000
Support mean	108,700		
Donations	20,000	인건비	292,500
Grants Governments	40,000	운영비	121,500
Project Funds	75,300		
Revenues	70,000		

4) 인력

- 잘츠기터 마더센터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는 공동체 대표 혼자서 시작하다 6명을 모았고, 초기 6명을 중심으로 주변 입소문을 통해 인력을 점차 확대해감. 처음에는 주민 호응이 별로 없었으나 점점 확대해 나갔으며, 창립 이후 여러 기관들과 연결되어 유명세가 높아짐.

- 마더센터의 운영은 기본적으로 서로 평등한 위치에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운영하고 있음. 현재 운영인력의 구성은 full-time job 6명(매니저, 아이돌봄, 가족돌봄, 요리 등), part-time 15명(호스트), 자원봉사자 120명임. 이들이 매일 약 600여명의 마더센터 이용자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5) 최근 지향

- 향후 마더센터가 지향하는 모델은 아이와 어르신(특히, 치매)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기능을 더욱 확대하는 것임. 독일은 고령화가 심해 노인돌봄 욕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및 간병인이 부족한 실정임. 부모는 자신의 부모와 아이들을 동시에 돌봐야하는 이중부담이 생기게 되는데 마더센터는 이러한 문제를 지역사회 안에서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음. 즉 대가족의 확대된 형태(아이들+성인+어르신)가 마더센터이 기능이 되는 것임.

- 마더센터의 지향은 세대가 어우러져 생애주기별 가족을 둘러싼 이슈가 마을 안에서 일상을 공유하고 공동체적 방법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고, 그들의 필요를 제공하면서 평등한 문화가 있는 곳이 마더센터의 지향임.

나. 슈투트가르트 부모자녀센터(EKIZ, Eltern-Kind-Zentrum)

- EKIZ에는 영유아보육실, 아동 긴급 보호소, 재활용가게, 카페, 식당, 작은 도서관, 스포츠실, 댄스실, 공작실 등의 시설이 있음.

1) 제공 서비스

- 문화강좌서비스

: 노래, 인형 만들기, 요가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강좌들을 무료 혹은 적은 수업료로 제공. 종종 열린 수업을 제공하고 있어 누구나 참관할 수 있음, 강좌나 강연을 신청 가능.

- 아동돌봄서비스

: 부모자녀센터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서비스로 정규 아동돌봄 서비스를 이용가능,
또는 열린 아동돌봄 서비스를 이용 가능.

: 교육학을 전공한 직원과 일상 전문가가 지도.

- 가정상담서비스

: '조언과 실행'이라는 사무실을 설치,

: 가정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상담하는 상담서비스도 제공.

2) 자발적 재능기부

- 정해진 일자리는 얼마 되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일을 하고 자발적인 일들도 보수(수당 또는 무료 음식, 돌봄, 교육)를 지급.

3) 세대가 공존하는 세대통합주택 활용

- 세대통합주택

: 세대통합주택이란 것은 젊은 세대와 나이 많은 세대가 한 공간에 있을 수 있는 올 제너레이션 센터(All Generation Center)를 의미.

: 세대통합주택을 통해 세대 간 통합을 촉진하고 가족친화적인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다고 함.

: 건물의 맨 위층에 양로시설, 할머니, 할아버지도 센터에 와서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같이 어울림

4) 역할

- 센터는 외국인 여성들의 구직을 위한 전진기지 역할.

  : 이런 외국인 엄마들이 이곳에서 조금씩 일을 하면서 독일어도 배우고, 독일의 직업에 익숙해질 수 있음.

- 센터도 관련 전공 학생들의 실습장 역할

  : 여러 학교 학생들이 이곳에 와서 6~8주 동안 실습.

- 경력증명서 발급

  : 센터에서 일한 여성들에게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고 다시 직업을 찾을 때 도움.

4. 국내 마더센터: 춘천여성협동조합마더센터, 소금꽃마을마더센터[9)]

- 현재, 국내 마더센터의 현황 파악은 어려운 상황이나 독일의 마더센터를 통해 한국형 마더센터를 설립하고자 했던 일부 센터(예: 춘천여성협동조합, 소금꽃마을센터, 관악구 행복마을마더센터 등)의 발간 자료를 통해 국내 마더센터의 운영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음. 독일의 마더센터와 국내 일부 마더센터를 비교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9) 2017년 서울시 관악구에 행복마을 마더센터가 운영을 시작함. '자조'와 '공동체'라는 가치철학으로 난곡엄마학교(도예, 수공예, 전례놀이 등 전업맘과 경력단절 여성들의 사회진출 기회 제공 및 재능기부를 위한 엄마학교), 학부모강좌(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강좌, 아동 청소년 및 자녀소통과 학부모 성장을 위한 강좌), 마을공방(도예, 수공예 등 지역 여성들의 취미와 특기 개발을 공방 운영), 여성 안심마을 만들기, 통통체조교실, 학교야놀자, 청소년 달빛밥상(드루와), 주말학교, 아동폭력 예방 네트워크 등의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현재 공적지원 및 운영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파악은 어려움.

<표 10> 마더센터의 국내외 사례

구분	독일 마더센터	춘천여성협동조합 마더센터	소금꽃마을 마더센터
시작 시점	1985년	2013년	2014년
가치와 철학	• 자조(help-self) • 역량강화	• 자조 • 공동체	• 자조 • 공동체
공적 지원	• 공간 • 제반 세금	• 마을기업 3년 지원 • (공간 리모델링 등에 사용)	• 공동육아활성화지원사업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운영체계	• 300~500여명 방문 • 적극참여 100~150명 활동 • 10여명 내외 팀 단위로 활동	• 대표와 상무이사, 운영이사회, 조합원 등 250여명(출자금 1600만원) • 주1회 운영이사회→확대이사회 로 개편 예정 • 밴드 수시 소통, 블로그 운영, 소식지 발간	• 11명의 회원(월1만원 회비) • 운영진 회의, 안건 토의 • 회원 품앗이 활동 • 밴드 소통, 블로그 개설 계획
활동 프로그램	• 요리, 상담 • 생활서비스 • 여성 역량강화 프로그램 • 아동과 노인 돌봄 • 세대 간 이해와 지원 • 지역사회와 국내외 정치 이슈 참여	• 인문학, 문화예술, 비폭력대화 등 성인 프로그램 • 여성, 사회 이슈 공동 대응 • 지역사회와 네트워크, 노동복합 공동구매	• 책읽기, 숲놀이, 흙놀이터, 아빠와 육아 등 육아 활동 중심 • 지역공동체 활동 참여 • 나무그늘 내 활동 프로그램 참여, 손뜨개, 인형만들기, 치즈케익 등 핸드메이드 제품 판매 등 협업
참여자	• 엄마, 여성, 아이, 가족, 지역 사회, 국제여성(이민자 등)	• 춘천여성회 조합원 • 여성, 가족, 비혼, 지역시민사회 단체	• 나무그늘 조합원 • 여성, 엄마, 아이, 가족
재정	• 대표1인 시간제 임금 보장 • 활동 운영비 일부 • 자발적 후원 • 공공사업 수행	• 카페 수익으로 1.5인 인건비 감당 • 여성회에서 2명 인건비 지원 • 비정기적 후원 • 네트워크, 공공사업 수행	• 월 1만원 회비 • 모두 자원활동 참여 • 공공사업 수행
향후 과제	• 재정자립 • 자원활동 참여 유인 • 사람, 지역공동체 지속	• 재정자립 • 교육 강좌 확대 • 조합원 월 회비제로 전환 모색 •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계획	• 공간 안정화 • 회원 확대 • 활동가 인건비 지원 • 회원 역량강화

5. 독일 마더센터 관련 시사점

가. 돌봄공동체(예: 마더센터)측면

- 독일 마더센터의 시초는 육아문제를 지역사회 안에서 해결하고자 하는데서 출발했지만 육아이슈를 중심으로 가족, 이웃, 커뮤니티 관계를 재편하고 세대간, 이주민과 국적이탈자, 서로 다른 인종을 가진 가족들간 지원하는 등 일상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연대하고 있음(조막래・김한별, 2015).

- 이러한 점에서 비춰볼 때, 충청북도 내 돌봄관련 공동체 발굴을 위한 노력 및 공적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돌봄' 뿐 아니라 다양한 이슈를 공유할 수 있고, 개인 간, 개인 및 조직 간 교류와 협력이 가능하도록 기회 제공이 필요함. (⇒풀뿌리 사업 강화)

나. 공간측면

- 마더센터라는 공간 안에서 지역사회 주민들은 일・쉼・삶과 관련된 상당부분이 활동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히 활동의 안정성 및 지속성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재생산하고 확대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조막래・김한별, 2015).

- 다양한 방식의 공간지원이 필요함. 독일의 마더센터와 같은 '열린공간'으로서의 공간이자 지속가능한 커뮤니티로서의 공간 확보를 통해 여성, 남성, 아이, 노인 등 대상구분 없이 필요한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필요함. (⇒예: 기존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활용)

다. 공동체 운영구조 측면

- 공동체가 구성될 경우 안정적인 운영구조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함.

참고문헌

<논문 및 저서>

김은경(2008). “독일의 성인지 예산제도의 법적 근거 및 내용”. 「유럽연구」, 26(2), 243~266.

박선영, 송효진(2014). 「해외출장 결과 보고서-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Ⅱ)」.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영도 외(2007). 「주요국가의 입법평가 관련제도(Ⅲ): 독일의 입법평가제도」. 한국법제연구원.

박채복(2018). “독일 출산지원정책의 젠더적 함의”. 「통합유럽연구」, 9(1), 189-216.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2015). 「2015 마을살이 연구」.

양정선, 정형옥, 최윤선(2017). 「프랑스 독일 일·가정양립 및 저출산 정책관련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여성가족부(2018). 「성별영향평가 지침」.

원소연(2012). 「입법평가 적용사례 연구: 독일 연방행정부의 입법평가서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조막래, 김한별(2015). 「서울시 공동육아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방안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차선자 외(2016). 「입법의 성평등영향분석을 위한 분석방법 및 지침개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홍완식(2009). “독일의 입법평가: 독일 국가규범통제원의 활동과 성과를 중심으로”. 「입법평가연구」, 33-53.

황수옥(2017). “간접차별금지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구제방법과 절차”. 「산업관계연구」, 27(2), 113-140.

황수옥(2018). “직장 내 성폭력 구제 제도와 개선방안-독일의 성평등담당관(Gleichstellungsbeauftragte)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8-5.

황혜신(2008). 뉴질랜드와 독일의 여성정책 기구 비교. 서울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445-464.

BMFSFJ(2007). *Working Aid, Gender Impact Assessment: Gender Mainstreaming in the Preparation of Legislation.*

EiGE(2016). *Gender Impact Assessment: Gender Mainstreaming Toolkit.*

Frey, R.(2008). Institutionalising Gender mainstreaming: Tools in Berlin and Germany. *GSPR,* 1: 46-54.

Quinn, Sheila(2016). “Europe: A Survey of Gender Budgeting Efforts,” IMF Working Paper 16/155 (Washington, DC: IMF).

ZIG(2013). *Gender Analysis: Frequently Asked Questions.*

<기타자료>

여성가족부(2019). “양성평등/가족” 홈페이지 자료실 http://www.mogef.go.kr/sp/geq/sp_geq_f002.do

충북도청(2019). 「2019년도 영성정책관 주요업무계획」 홈페이지 자료실 https://www.chungbuk.go.kr/www/contents.do?key=1410

2 독일 시민대학 개요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 김인록 팀장 제공>

Ⅰ. 시민대학 개요

❑ 독일의 시민대학

○ 독일 최초의 시민대학: 홈볼트아카데미로 1878년 Max Hirsch가 대학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학문적인 내용을 연속적인 강의형태로 전달하기 시작

○ 시민대학이란 공식명칭은 1902년 베를린의 적십자사에 설립된 평생교육기관에서 최초 사용

○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적자원 개발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평생교육기관의 역할 담당

○ 교육을 통한 국가의 민주화 실현 및 국민들의 자아실현을 위한 교육 담당

○ 독일 최대의 성인교육 제공기관으로 900개 이상의 시민대학과 3,000여개 학습장을 운영하고 있음

- 연간 600만명 이상 시민대학 프로그램 참여
- 연간 60만개 이상 시민대학 프로그램 개설

○ 독일의 시민대학의 우리나라 시군구의 평생학습관 또는 주민자치센터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시민대학의 추진체계는 연방정부 차원의 독일성인교육협회(DVV), 주정부 차원의 시민대학연합회, 기초단위의 시민대학(VHS)으로 이루어져 있음

	국가		광역		기초
독일	독일성인교육협회	⇄	시민대학연합회	⇄	시민대학
	⇅		⇅		⇅
우리나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시도평생교육진흥원	⇄	평생학습관

○ 시민대학은 독자적인 교육센터를 설립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교통이 편리한 시내에 마련된 행정사무소에서 성인교육 등록 및 학습상담 등을 지원

○ 시민대학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에 분포되어 있는 다양한 기관에서 교육이 실시됨
예) 교육센터(별도 설립), 도서관, 지역 내 학교시설 등

○ 이론 교육이 아닌 경우에는 지역사회의 승마장, 시립수영장, 시립축구장, 볼링장 등을 대여하여 다양한 체험교육을 실시

❑ 독일 시민대학 관련법 개관

○ 1919년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 148조에 시민교육기관의 설립을 명시하면서 시민대학의 설립 제도화

○ 1969년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노동촉진법이 제정

○ 1970년대 주 별로 지방정부 내의 성인교육 기관과 단체를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한 성인교육법 혹은 계속 교육법 시행

○ 1996년 직업계속교육조성법 제정. 직업자격을 취득하는 자에게도 장학금 지급

○ 2000년 유럽연합정상위원회 '2010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경쟁력 있는 지식기반 경제공간으로 탈바꿈' 천명

○ 2001년 유럽연합위원회 '평생교육 공간으로서의 유럽 만들기' 발표문발표

○ 2002년 유럽연합협의회 '유럽 평생교육 결의안'을 발표

○ 2004년 연방정부와 16개 주정부는 평생교육전략으로 유년부터 노년까지의 모든 삶의 단계에서 평생교육의 본질에 주목하고 비형식적 학습을 평생교육에 포섭, 학습자 주도의 평생교육, 직능개발, 평생교육의 네트워크화, 기회 균등교육 등을 강조

Ⅱ. 시민대학 발전사

❑ 독일 시민대학 역사

○ 독일 시민대학은 프랑스 혁명 이후 자유·평등사회의 건설을 목적으로 역사·문화적 과정 속에서 현재의 모습으로 발달해 왔음

○ 19세기 중반 : 수공업자협회 등이 조직되어 근로자를 위한 직업교육 등의 활성화

○ 1919년 바이마르 헌법 : 일반 성인의 교육을 담당하는 시민대학이 국가의 진흥을 받으며 성인교육기관으로 자리 잡기 시작

⇒ 시민대학의 출발점은 국가의 민주화를 위한 국민교육임

⇒ 시민대학 설립과 발전의 핵심은 "교육을 통한 민주화"로 민주화를 위한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임

❑ 시민대학 발전단계

○ 첫 번째 단계(1900~1918):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한 범국민교육으로서의 민족교육

○ 두 번째 단계(1918~1933): 바이마르 공화국의 유지와 좌절과 관련된 성인교육의 역할

○ 세 번째 단계(1933~1945): 성인교육은 국민계몽과 선전을 위한 도구로서 활용

○ 네 번째 단계(1945-1970): 1945년에서 1960년대 말까지 민주주의 재건을 위한 성인교육

⇒ 독일 시민대학은 정치체제에 따라 시기적으로 서로 다른 형태로 발전

⇒ 시민대학은 시민들의 성장과 국가발전 및 개인의 능력개발, 세계관 정립, 국제 감각 확립, 그리고 교육을 통한 국가의 민주화 실현 및 국민들의 자기실현을 위한 교육 담당

⇒ 이를 통해 독일의 시민대학은 시민교육을 위한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고 있음

❑ 시민대학의 3대 특징

○ 개방성: 사회계층, 수입, 환경, 문화 배경과 무관하게 누구나 등록 가능하며, 저렴한 수업료와 다양한 할인제도의 시행으로 경제적 진입장벽이 매우 낮은 편임

○ 접근성: 전국에 그물망처럼 퍼져있는 각 시민대학들은 시민들이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초, 중등학교, 기타 파트너 기관 등의 공간을 활용해 접근성을 극대화하고 있음

○ 통합성: 시민대학의 주요 구성원은 다수의 외국인, 이민자 수강생들과 강사진들이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음(수화통역서비스 제공)

⇒ 현재 독일의 시민대학은 특히 기존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했거나 아예 받지 못한 사람들을 평생교육의 장으로 이끌어 내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음

⇒ 시민대학은 독일사회를 지켜주는 교육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음

Ⅲ. 시민대학 거버넌스

❑ 독일성인교육협회(DVV, Deutscher Volkshochschul-Verband)

○ DVV는 연방 16개 주 시민대학연합 본부로서 독일의 성인교육기관을 대표하여 독일 연방단위의 평생교육 정책 조정 및 해외 지원 활동 전개

◈ 역할 및 기능

○ 독일시민대학협회는 1949년 독일연방의 16개 주 단위 시민대학연합이 창설된 이후 뒤이어 1953년 독일의 성인교육 중심기관인 시민대학의 연합 조직으로 설립

- DVV는 시민대학 연합활동 및 정책 지원과 국제협력기구로 구성됨

○ 연방단위 시민대학연합회의 대표기구로서의 DVV 역할

- 대표자 역할 및 정책적 환경 조성
- 상호 소통 중재자 역할
- 시민대학 운영의 원칙 방향 제시
- 교육의 질적 개선 노력
- DVV 연합 활동으로 시민대학 표준안을 제공, 관련 실무자, 강사 등을 위한 연수 실시

○ DVV International의 국제협력ㅍ사업은 30년 전부터 시작되었으며, 시민대학 대부분이 함께 참여

- 대상은 청소년과 성인으로 대상을 나누어 접근하고 있으며 연방정부 경제개발협력부에서 100% 재정 지원
- 시민대학 내 ‘글로벌 학습’ 과정을 지원하는 교육과정으로 세계시민교육, 국제이해 교육의 일환임
- 주 내용은 인권, 세계환경, 소비자, 이주 난민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으며, 전체 920개 시민대학 중 200개 시민대학이 참여하고 있음
- 기본 사용 언어는 독일어 사용하며, 특별한 경우에만 영어 사용

❑ 헤센 시민대학 연합회(HVV, Hessischer Volkshochschul-Verband)

○ 헤센주 시민대학의 연합회로서 헤센주 내 32개 시민대학을 대표하는 기관

◈ 역할 및 기능

○ 지역 시민대학과 평생교육단체가 요구하는 바를 주 정부에 전달하고, 주 정부의 정책방향을 다시 현장에 전파하는 역할 담당

- 즉 지역과 주정부 간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함

○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새로운 정책을 검토하고 현장에서 반영할 수 있는 방향 설정

- 새로운 정책에 대한 전파와 이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및 현장 보급을 실시함

⇒ 실행은 현장의 역할이므로 HVV에서는 조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결정

⇒ HVV는 계획 수립, 연구, 강사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

○ HVV의 중점 운영 방향은 혁신, 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임. 특히, 시민대학 프록그램 운영을 위한 가능한 모든 기관, 단체를 연합하여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노력에 힘씀

○ HVV에서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 ·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각 시민대학이 이용하는 구조임

※ 시민대학은 규모가 작아 프로그램에 대한 직접적 네트워크 구축이 어려워 주로 강의 등 프로그램 운영에 집중하고 있는 점에서 HVV와의 차이로 볼 수 있음

◈ HVV의 특화 사업

Hessen Campus 사업: 헤센주 전체를 교육장으로

○ 헤센 주 전역에 20개의 교육상담소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생애설계 상담 제공

○ 이 외에도 시민대학 관계자 간의 정보교류를 위한 시민대학 박람회, 특정 주제에 대한 시민대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소개하기 위한 Innovation Day 등이 있음

Ⅴ. 시민대학 운영현황

❑ 시민대학의 운영 주체

○ 지자체 소속 : 55%
○ 공익법인 소속 : 32%
○ 목적연맹 소속 : 8%
○ 기타 사설기관 : 5%



※ 목적연맹 : 지방 자치 단체들끼리 공동 과제의 실현을 위한 조직된 연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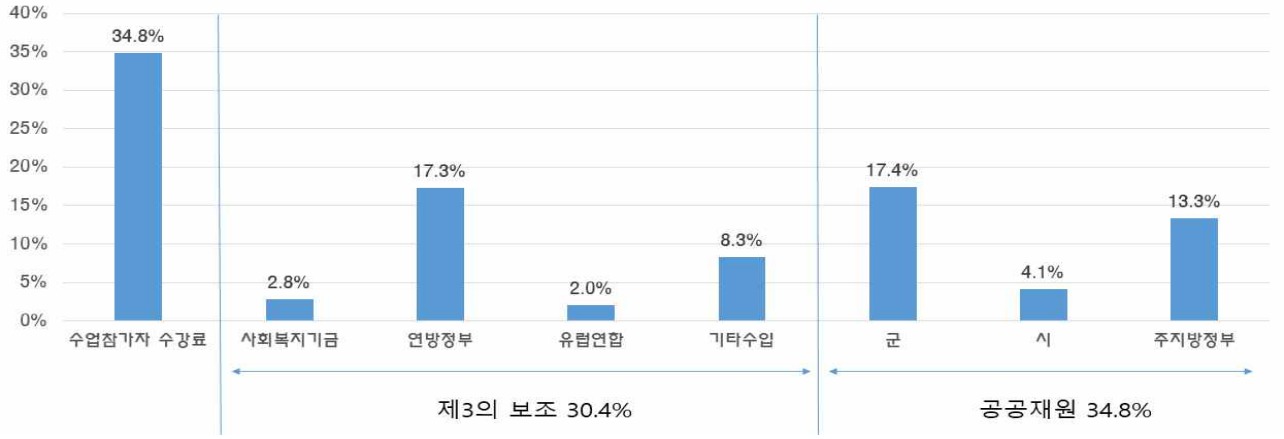
❑ 시민대학의 프로그램 분야

○ 6대 분야 공통 프로그램 및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으로 구성
○ 6대 분야 공통 프로그램
- 정치, 사회, 환경
- 언어
- 직업교육
- 문화 및 예술
- 건강
- 기초 및 학위교육

○ 현재 독일 시민대학 프로그램 중 가장 핵심은 이민자교육 중심의 사회통합 관련 프로그램임

❑ 시민대학의 재정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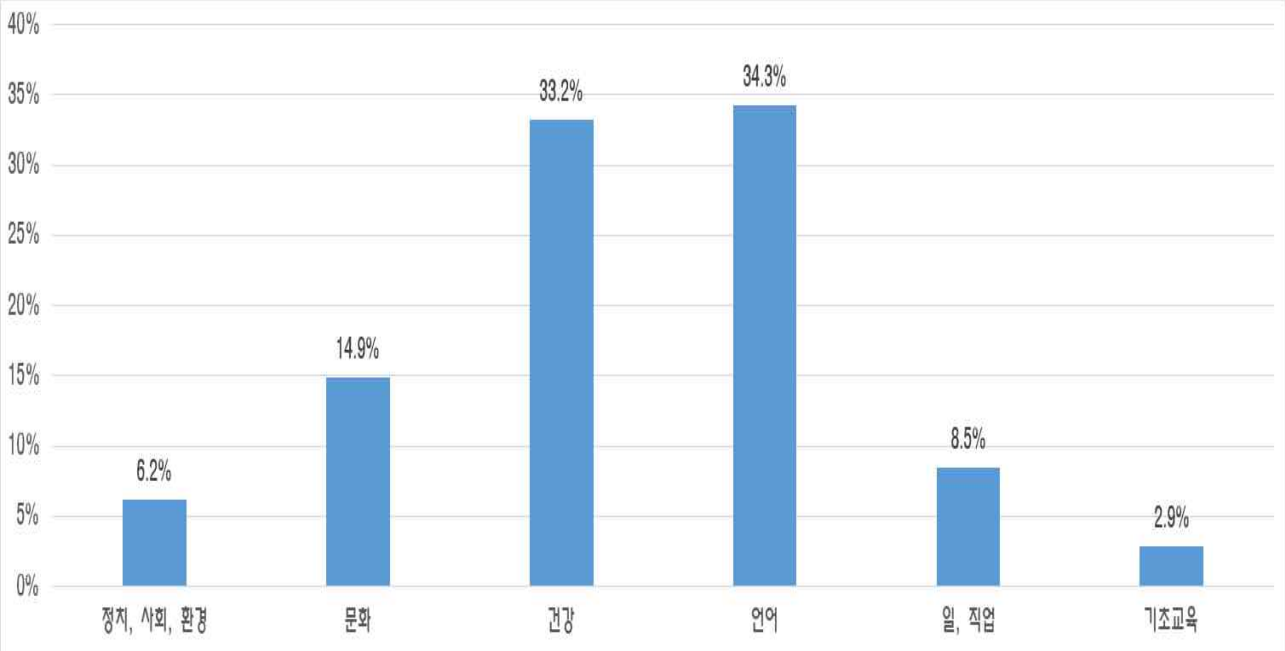
○ 시민대학의 재정 구조는 수업참가자의 수강료(34.8%)와 공공재원(34.8%), 제3의 보조(30.4%)로 이루어져 있음



자료: 2017년 시민대학 통계(2017 Volkshochschul-Statistik)

❑ 시민대학의 프로그램 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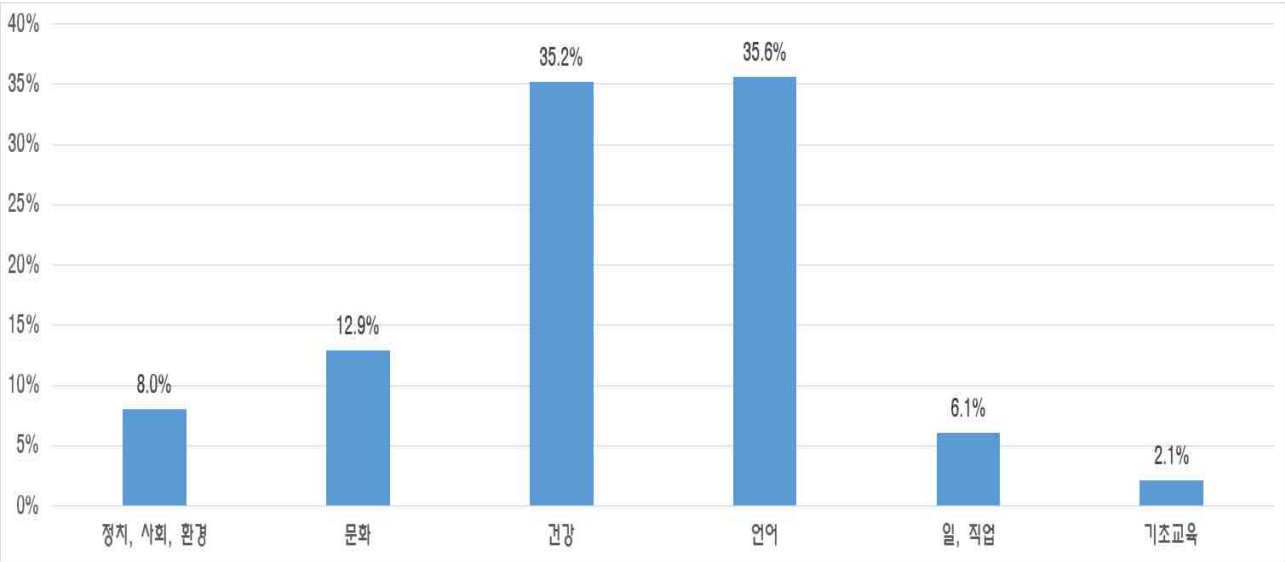
○ 시민대학의 프로그램은 언어(34.3%)와 건강(33.2%)관련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음



자료: 2017년 시민대학 통계(2017 Volkshochschul-Statistik)

❑ 시민대학의 프로그램별 참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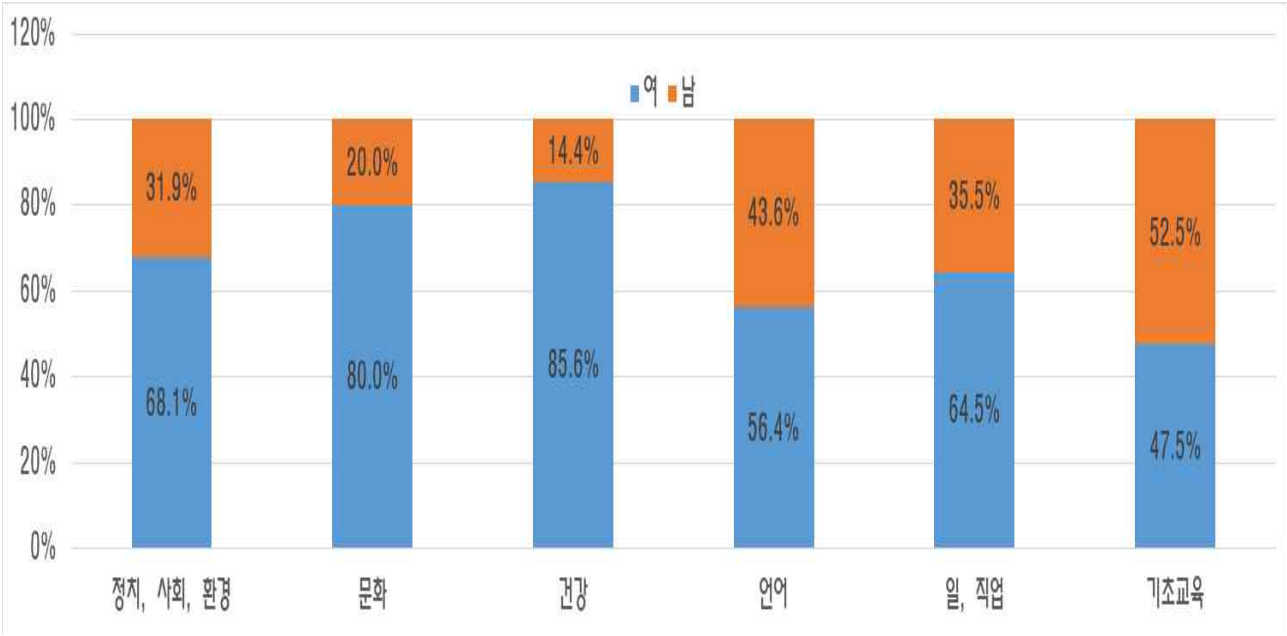
○ 시민대학의 참여현황은 건강(35.2%)와 언어(35.6%)관련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음



자료: 2017년 시민대학 통계(2017 Volkshochschul-Statistik)

❑ 시민대학의 프로그램별 참가자들의 성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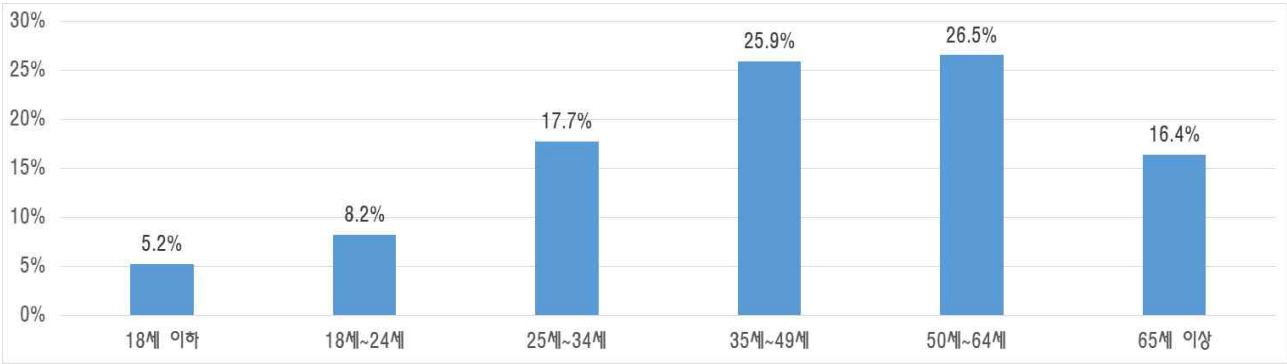
○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여성이 남성에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으나, 기초교육에서는 남성 참가자의 비율이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남



자료: 2017년 시민대학 통계(2017 Volkshochschul-Statistik)

❑ 시민대학 참가자들의 연령 분포

○ 시민대학 참가자들은 '50세60세'(26.5%), '35세~49세'(25.9%), '25세~34세'(17.7%) 순으로 나타남



자료: 2017년 시민대학 통계(2017 Volkshochschul-Statistik)

참고6 기타 도정정책 관련현황 자료

1 충청북도 치매관리사업 현황

□ 충청북도 치매관리사업 여건

❍ 노인 인구 현황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4	2025	2026	2035	2045
노인인구	인구	전국(명)	6,781,159	7,066,201	7,389,480	7,693,721	8,133,668	9,944,083	10,507,986	11,107,924	15,175,901	18,179,045
		충북(명)	235,762	244,520	255,013	264,590	278,170	341,908	360,787	383,729	537,966	662,048
	고령화율	전국(%)	13.27	13.79	14.40	14.85	15.65	18.94	19.97	21.08	28.72	35.61
		충북(%)	14.95	15.45	16.07	16.32	17.07	20.54	21.57	22.83	31.04	38.46

[출처]통계청(주민인구연앙인구, 2016-2018), 통계청(장례인구추계, 2019-2065) 인용.

○ 2018년 도내 인구 1,586,515명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 255,013명

- 충북 2016년 고령화율 14.95% 고령사회 시대 진입, 2018년 현재 16.07%

※ 고령화사회(7~14%), 고령사회(15~20%), 초고령사회(20%초과)

○ 2018년 전국 평균 고령화율은 14.40%, 충북(16.07%)은 광역시도 중 7번째

※ 전남(21.73%), 경북(19.40%), 전북(19.20%), 강원(18.34%), 충남(17.30%), 부산(16.61%) 順

❍ 치매유병 현황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4	2025	2026	2035	2045
치매인구	치매환자	전국	추정환자수	661,707	705,473	750,488	791,228	836,834	1,031,535	1,083,977	1,127,317	1,729,608	2,660,847
			유병률	9.76%	9.98%	10.16%	10.28%	10.29%	10.37%	10.32%	10.15%	11.4%	14.64%
		충청북도	추정환자수	24,909	26,388	27,913	29,365	30,878	37,238	38,791	40,154	60,552	97,256
			유병률	10.57%	10.79%	10.95%	11.1%	11.1%	10.89%	10.75%	10.46%	11.26%	14.69%

[출처] 치매유병현황: 중앙치매센터, 노인인구수: 통계청(주민인구연앙인구, 2017-2018) 통계청(장례인구추계, 2019-2045) 인용.

○ 2018년 전국 10.16% 보다 0.79% 높은 충북 치매유병율 10.95%

※ 급속한 노령화에 따른 치매노인 급증, 치매치료 관리비 등 사회경제적 부담 가중, 치매국가 책임제 선포 ⇨ 치매환자·보호자 서비스 강화 필요성 대두

□ 충청북도 치매관리사업 목표(추진방향)

비 전 :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충청북도 구현

핵심목표 : 치매관리사업 추진을 통한 치매 친화문화 조성

추진영역	추진과제	세부사업(21개)
Ⅰ. 지역사회 중심 치매예방 및 관리	1. 치매조기검진	① 치매조기검진 ② 치매환자 등록관리
	2. 치매예방관리	① 찾아가는 기억지키미 운영 ②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3. 치매인식개선	① 치매 파트너 및 선도기관 운영 ② 치매극복 실버합창대회 ③ 치매극복 도미걷기행사 ④ 치매극복 어울림 한마당
Ⅱ. 편안하고 안전한 치매 환자 진단·치료·돌봄	1. 치매치료 및 환자관리	① 치매환자 치료비 및 조호물품 지원 ② 치매전담형 시설확충 ③ 치매환자 실종예방사업 ④ 맞춤형 사례관리
	2. 치매환자 돌봄지원	①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 ② 치매환자 쉼터 운영 ③ 치매안심마을 조성 ④ 치매환자 공공후견인 지원
Ⅲ. 치매환자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	1. 치매환자 가족지원	① 치매환자 가족교실 운영 ② 치매환자 가족 자조모임 지원
Ⅳ. 연구·통계 및 기술을 통한 지원	1. 연구 기술 지원강화	①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② 치매관리사업 발전대회 ③ 치매종사자 교육 및 기술지원

□ 주요사업 현황

①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치매 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시군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치매 예방, 상담, 조기진단, 지원 체계 구축

□ 사업개요

○사업대상 : 14개 치매안심센터(시·군 보건소 직영)

○총사업비 : 12,739백만원(국비80% 10,191, 도비4% 510, 시군비16% 2,038)

○사업내용 : 치매상담, 등록, 검진, 쉼터 프로그램, 가족지원, 인식개선 홍보

□ 주요내용

○(**상담·등록**) 이용자의 건강상태, 서비스욕구 등 분석 후 치매안심센터 전산시스템에 상담내용 등록, 대상자별 맞춤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조기검진**) 치매환자 조기발견 및 예방·관리 제공을 위해 3단계 검진 실시

* 조기검진 절차 : (1차) 선별검사 → (2차) 진단검사(임상심리사 또는 간호사 수행 후 협력의사 판정) → (3차) 감별검사(협약병원, 영상 CT, 혈액검사 등)

○(**프로그램**) 인지건강별 맞춤 프로그램(예방, 인지강화교실, 치매쉼터) 이용

* 경증 치매노인도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전까지 치매쉼터를 이용하여 치매진행 지연 가능

○(**사례관리**) 지속적 사례관리(복약·건강관리, 적정 돌봄여부 등) 제공하며 독거 치매환자, 부부 치매환자 등 돌봄 취약 치매가구는 집중 사례관리 (최대 5년)

○(**가족 서비스**) 돌봄부담 분석 및 상담, 교육·자조모임·힐링프로그램 제공하며, 치매환자 및 가족, 지역주민이 교류할 수 있는 가족카페 운영

○(**지원 서비스**) ①치매 약제비·조호물품 지원 ②치매환자 실종예방을 위한 인식표 발급·지문 사전등록 ③자기의사결정권 보호 필요 치매노인 대상 공공후견

○(**치매안심마을**)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일상생활을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영위하며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마을 조성

②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 **충북 지역 치매관리 서비스 기획 및 자원조사, 전문인력 육성, 인식개선, 홍보·연구 사업 수행**

□ 센터현황

○ 위탁기간 : '16.12.27~'19.12.26(3년간) / 충북대병원 *설치일 : '13.12.27

○ 위　　치 :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67 지오빌딩 3층(개신동)

○ 직원현황 : 9명(센터장1, 사무국장1, 팀원7)　* 센터장:김시경(충북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총사업비 : 590백만원(국비[70%] 413, 도비[30%] 177)

○ 센터역할 : 충청북도 치매관리 연계사업 추진, 치매안심센터 및 유관기관 기술지원, 치매 전문인력 교육 등

□ 주요내용

○ 전문인력 교육

-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직무공통·직무심화교육
- 광역안심센터 합동워크숍
- 치매파트너 양성 및 유관기관 교육지원

○ 치매안심 기술지원:치매안심센터 평가지원, 시스템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인식개선·홍보 : 치매극복도민걷기행사, 인식개선공모전, 치매극복 방송광고, 도민홍보캠페인 등

○ 지역자원개발·연계

- 치매안심마을 발굴지원
- 찾아가는기억지키미운영지원
- 지역사회치매협의체 운영, 웹코트 프로그램 보급 등

③ 치매치료관리비 및 약제비 지원

■ **치매관리비 지원사업을 통해 치매 조기 발견 및 적절한 치료 및 관리를 유도하고 지원 대상자의 증상악화 및 경제적 부담 경감**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치매안심센터 등록 치매환자

○ 총사업비 : 1,026백만원(국비[50%] 513 도비[15%] 154 시군비[35%] 359)

○ 지원기준 : 보건소 등록 치매환자 중 만 6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

○사업내용 : 치매등록환자의 약제비·진료비 발생시 월3만원(연36만원)상한 실비 본인부담금 지원

④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

■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등급 외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기능 확대하여 환자 및 보호자의 부담 경감**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치매안심센터 등록 치매환자

○ 총사업비 : 992백만원(도비$^{20\%}$ 198, 시군비$^{80\%}$ 794)

○ 지원기준 : 50세 이상 장기요양등급 인지지원등급 및 등급 미신청자

○ 사업내용 : 재가노인복지시설 활용 치매환자 돌봄 서비스(주간보호·방문서비스·단기보호 서비스) 지원

⑤ 인지재활 프로그램운영(찾아가는 기억지키미)

■ **75세이상 독거노인 중 거동불편 등으로 치매안심센터 이용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개별 방문하여 치매조기검진, 치매예방 인지재활프로그램 제공으로 치매 안전망 확충**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인지저하 등이 우려되는 75세 이상 독거노인

○ 총사업비 : 140백만원(도비$^{20\%}$ 28, 시군비$^{80\%}$ 112)

○ 사 업 량 : 14개 치매안심센터

○ 사업내용 : 찾아가는 기억지키미를 통한 치매선별, 인지재활워크북, 치매예방체조, 사례관리 제공

* 찾아가는 기억지키미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생활관리사, 시니어클럽 일자리참여자 등 활용

⑥ 치매인식개선을 위한 실버합창제 개최

■ **어르신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노래를 주제로 한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전 도민 관심도 제고**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충북도민

○ 총사업비 : 20백만원(도비100%)

○ 사 업 량 : 1회(9월 예정)

○ 사업내용 : 실버합창제, 인식개선 홍보부스 운영

- 참가자격 : 60세이상 어르신, 40명 이내로 구성된 실버합창단

⑦ 치매노인 공공후견 지원

■ **공공후견인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자기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노인의 신체 및 재산 보호와 재활을 도모하기 위함**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노인

○ 총사업비 : 9,318천원 (국비80% 7,454 도비4% 373 시군비16% 1,491)

○ 사업내용 : 후견심판 대상자 발굴, 후견심판청구 비용지원, 공공후견인 활동지원, 관리 감독

□ 2019년 치매관리사업 예산 현황 (당초예산 기준)

사 업 명	보조기관	예산액(천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합 계		15,243,784	10,906,512	1,076,401	3,260,871
①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시군 치매안심센터	12,466,250	9,973,000	498,650	1,994,600
②광역치매센터 운영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	590,239	413,167	177,072	-
③치매치료관리비(약제비) 지원	시군 치매안심센터	1,025,782	512,891	153,867	359,024
④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	시군 치매안심센터	992,195	-	198,439	793,756
⑤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시군 치매안심센터	140,000	-	28,000	112,000
⑥치매중풍 극복 실버합창제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20,000	-	20,000	-
⑦치매노인 공공후견 지원	시군 치매안심센터	9,318	7,454	373	1,491

2 충청북도 평생교육 사업현황

Ⅰ. 기본개요

❑ 목 적

○ 일등경제 충북 실현을 위한 일자리 맞춤형 평생학습생태계 구축

○ 일·생활의 균형있는 삶을 위한 평생학습 문화확산으로 도민행복지수 증진

❑ 주요사업

○ 충북평생교육진흥원 기능강화

○ 일자리 연계 및 시민의식 제고 등 프로그램 지원

○ 시·군 및 대학 참여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 예산현황

항 목	예산액(천원)	비고
계	**775,000**	
충북평생교육진흥원 운영	525,000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100,000	
시군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60,000	
청년세대를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60,000	
도민평생교육지원(평생학습도시 조성)	30,000	

❑ 평생교육진흥원 현황

○ 설치근거 : 충청북도 평생교육 진흥조례(2011.2.11. 제정)

※ 충북연구원 지정('14. 4. 20, '17. 4. 20 재지정/ 3년 단위)

○ 인 원 : 7명(겸직2, 전임 5)



○ 예 산 액 : 525백만원(운영비 273, 사업비 252) ※ '18대비 5% 증액

○ 주요업무 : 평생학습 정책 개발, 프로그램 개발, 종사자 연수 등

Ⅱ. 주요사업

❑ 충북평생교육진흥원 기능강화

1.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 기능강화(법인화) 방안 연구

○ 기　　간 : ‘19. 5. ~ 10월

○ 사 업 비 : 15,000천원(진흥원 연구조사 예산 활용)

○ 수 행 자 :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산학협력단

○ 주요내용

- 타 시·도 진흥원 설립·운영 사례조사 및 시사점 도출
- 진흥원 단계적 발전방안 연구
  · 진흥원 실태 및 현황 분석, 단기 및 중기발전 방안(조직, 예산 등)
  · 장기발전 방안(법인 설립/ 단독 또는 타 기관 통합 등)
- 유관기관과의 기능적 연계를 위한 역할 조정과 운영방안 제시

○ 추진일정

- ‘19. 8.　　: 중간보고
- ‘19. 10.　　: 최종보고

2. 제1회 충청북도 평생학습 박람회 개최

○ 주　　제 : 배움으로 희망 충북, 일자리로 행복 충북

○ 개최일시 : ‘19. 7. 26.(금) ~ 7 28.(일) / 3일간

※ 제13회 향수옥천 포도·복숭아 축제와 연계 추진/ 개막식 7. 26.(금) 17시

○ 장　　소 : 옥천체육센터 일원

○ 규　　모 : 50개 기관 3,000여명(시·군, 대학교, 평생학습단체·동아리 등)

○ 주최/주관 : 충청북도/ 옥천군·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

○ 사 업 비 : 80,000천원(도비 30,000천원/ 군비 50,000천원)

○ 주요내용

- 기념행사(개막식), 부대행사(보이는 라디오 등), 컨퍼런스(정책세미나 등)
- 참가마당(평생학습동아리 경연대회, 홍보체험관 운영, 작품 전시 등)

3. 문해교육지원

○ 사 업 비 : 50.5백만원(국 10/ 도비 40.5)

○ 주요사업

- 문해 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및 역량 강화 교육 운영 : 2회 110명(1회/ 9월)
- 문해교육 기관 대상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 2개 기관
- 학력인정 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 운영 : 초등과정 25명, 9월
- 전국 시화전(작품공모전) 공모 : 4개 선정, 국가 시화전 제출(7월)
- 제2회 충청북도 문해한마당 개최 : 9. 20.(금), 진천화랑관, 600명

· 시낭송 경연대회, 시화전, 유공자 표창, 체육대회 등

※ 문해교육 전국대비 비교

(단위 : 명, 개)

구분	인 구 수 (20세 이상)	비문해자수 (인구수 대비 비율)	문해교육 기관수 (학력인정)	문해교육 교원연수 이수자 (학력인정)
전국	39,551,621	5,172,596/ 13%	264	4,083
충북	**1,223,604**	**225,613/ 18% (6위)**	**6 (12위)**	**82 (16위)**

- 비문해자 비율 30% 초과 : 5개 시·군(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4. 평생교육 네트워크 운영

○ 충북평생교육포럼 : 93명(평생교육 발전방안 모색 등/미니포럼, 7~12월)

※ '18. 2. 28. 창립/ 4개 분과

○ 자문위원회 : 18명(평생교육 관련 정책수립 및 시행 등 자문/ 8, 10월)

○ 실무협의회 : 15명(평생교육사업 추진 협의/ 수시)

❑ 일자리 연계 및 시민의식 제고 등 프로그램 지원

○ 6개 분야, 17개 사업, 110백만원

(단위 : 천원)

공모 분야	보조 사업자		지원금액	자부담
	기관명	프로그램명		
사업총계(6개 분야, 17개 단체·사업 지원)			**110,000**	**6,015**
행복한 삶을 위한 일자리 찾기	**계(4개)**		**20,000**	**1,755**
	㈜HRD한국평생교육원	행복한 인성 업GO, 친구랑GO	5,000	550
	충북여가포럼	여가지도자양성 및 역량강화교육	5,000	-
	목령종합사회복지관	다문화 "연꽃 사랑방"	5,000	1,200
	충주 열린학교	청소년금연금주예방교육강사 양성과정	5,000	5
인생이모작취업지원	**계(1개)**		**15,000**	**-**
	청주대학교	충북평생교육강사 역량강화프로그램	15,000	-
진로직업윤리교육 컨설턴트양성	**계(1개)**		**20,000**	**0**
	충북경영자총협회	신중년 사회공헌활동가 양성과정	20,000	0
소외계층 평생교육 지원을 통한 일자리교육 확대	**계(6개)**		**30,000**	**1,700**
	괴산두레학교	할머니 마을교사	5,000	1,000
	다사리학교	발달장애인 '자립농업'	5,000	600
	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함께하는 목공 DIY	5,000	-
	증평군장애인복지관	장애인 "바리스타 양성 교육"	5,000	-
	청주새날학교	중도입국다문화청소년의 생생교육	5,000	-
	평생열린학교	충주장성(충주장애인의성)	5,000	100
충청북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계(3개)**		**15,000**	**1,950**
	지역문화활력소 고래실	청암 송건호 청소년의 민주주의 언론	5,000	250
	제천참여연대	민주시민구하기 프로젝트	5,000	1,000
	충북 NGO 센터	민주시민 아카데미	5,000	700
기초소양 강화를 위한 기본 에티켓 아카데미 운영	**계(2개)**		**10,000**	**610**
	㈜국제청소년조직융합충북지부	Customer Satisfaction매너코칭 지도자	5,000	510
	청주지역사회교육협의회	매너코칭지도자 양성과정	5,000	100

❑ 시·군 및 대학 참여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 3개 분야, 15개 사업, 220백만원

(단위 : 천원)

공모 분야	보조 사업자		지원금액	자부담
	기관명	프로그램명		
사업총계(3개 분야, 12개 단체 15개 프로그램 운영)			**220,000**	**64,500**
시군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일자리 맞춤형)	**계(4개)**		**60,000**	**34,000**
	단양군	단양갬성여행 컨셉팅으로 내일을 job아봐!	28,000	18,000
	청주시	청춘디자인 COOK	10,000	5,000
	진천군	진천형 세이프가드 구축 사업	10,000	5,000
	괴산군	심리상담사 양성과정	12,000	6,000
청년세대를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일자리 맞춤형)	**계(6개)**		**60,000**	**30,500**
	단양군	단양군 청년 CEO MD교육과정	15,000	8,000
	청주시	창의융합 메이커 코딩 지도사 양성과정	10,000	5,000
	음성군	이모티콘 창작자 양성과정	8,000	4,000
	영동군	1인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과정	10,000	5,000
	괴산군	청년 문화예술기획자 양성과정	10,000	5,000
	충주시	청춘대로, 청춘드림	7,000	3,500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산업맞춤형)	**계(5개)**		**100,000**	**-**
	청주대	도시재생 및 마을만들기 활동가 양성과정	20,000	-
	교통대	웰라이프지도사 양성과정	20,000	-
	유원대	유튜브 동영상 편집 전문가 양성과정	20,000	-
	건국대	바른먹거리&식습관 개선 지도자 양성과정	20,000	-
	도립대	평생학습형 생산적 일손봉사자 양성과정	20,000	-

3 충청북도 보조기기센터 현황

□ 일반현황

○ 위　　치: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39-17 3층(충북재활의원)

○ 규　　모: 353.85㎡(92.5평)

○ 구　　성: 사무실, 상담실, 스마트룸, 전시실, 외부전시실, 개조제작실, 창고

○ 설 치 비: 430,000천원(국비 200,000 도비 200,000 자부담 30,000)

○ 운 영 비: 212,400천원(국비 106,200 도비 106,200) *2019년 예산

○ 정식개소일: 2013. 5. 30.

□ 인　　력 (6명)

계	센터장 (비상근)	실 장	팀 원	
			사회복지사	보조공학사(작업치료사)
6	1	1	1	3

□ 연　　혁

날　　짜	연　　혁
2013년 05월 20~21일	제1회 정보통신보조기기 체험전시회
2013년 05월 30일	충청북도보조기기센터 개소식
2013년 10월 13일	충청북도보조기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재정
2014년 01월 17일	제1차 충청북도 지자체 보조기기 교부사업 담당공무원 교육
2014년 03월 06일	2014 아름다운재단 장애아동.청소년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사업
2014년 05월 29~30일	제2회 정보통신보조기기 체험전시회
2014년 06월 09일	2014 s-oil 저소득 가정 학습용 맞춤보조기기 지원사업
2014년 07월 09일	제1차 충청북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심층상담원 양성교육
2014년 07월 31일	2014 코스콤 IT 보조기기 지원사업
2014년 12월 18일	영동군 보건소 보조기기 교육
2015년 02월 27일	제3차 충청북도 지자제 담당공무원 보조기기 교부사업 교육
2015년 03월 16일	2015 아름다운재단 장애아동.청소년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사업
2015년 04월 16~17일	제3회 정보통신보조기기 체험전시회
2015년 05월 07일	충북대학교 장애지원센터 장애인 대학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2015년 06월 03일	제1회 세미나 개최(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체계 활성화 방안 모색)
2015년 06월 18일	제2차 충청북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심층상담원 양성교육

2015년 06월 18일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통신보조기기 임대사업 선정(20,000천원)
2015년 11월 20일	음성군 보건소 보조기기 교육
2016년 01월 07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온누리 R-Bank 맞춤형 보조기기 사업 업무협약
2016년 02월 12일	제4차 충청북도 지자제 담당공무원 보조기기 교부사업 교육
2016년 03월 10일	2016 아름다운재단 장애아동.청소년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사업
2016년 03월 21일	2016 코스콤 IT 보조기기 지원사업
2016년 04월 21~22일	제4회 정보통신보조기기 체험전시회
2016년 05월 31일	제3차 충청북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심층상담원 양성교육
2016년 06월 16일	제2회 보조기기 세미나 개최(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보조공학 활성화)
2016년 09월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장구 적정관리 업무협약 체결
2016년 11월 24일	충청북도 교육청 보조기기 교육
2017년 01월 01일	충청북도보조기기센터 명칭 변경
2017년 01월 01일	HCN 후원 드라맥스, Mnet 등 14채널 홍보영상 송출(매달 1,100회 이상)
2017년 01월 01일	장애아동과 성인을 위한 차세대 의사소통보조기기(AAC) 지원사업 협력
2017년 03월 02일	푸르메재단 2017 장애아동이동편의 보조기구 지원사업 협력
2017년 03월 06일	장애아동 · 청소년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사업 협력
2017년 03월 24일	청주혜화학교 업무협약
2017년 03월 24일	월드비전과 함께하는 저소득 희귀질환아동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사업 협력
2017년 06월 01일	S-Oil 전국 장애 청소년 학습용 맞춤 보조기기 지원사업 협력
2017년 06월 0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장구 수리 및 관리 업무협약
2017년 06월 02일	한국전기공사협회 충북지회 전등리모콘 교체사업 업무협약
2017년 07월 10일	롯데복지재단 2017 장애아동 · 청소년 일상생활보조기기 지원사업 협력
2017년 07월 10일	롯데장학재단 2017 장애아동 · 청소년 학습증진보조기기 지원사업 협력
2017년 09월 01일	소식지 '꿈' 1,000부 발행
2017년 09월 01일	가정 내 조립식 경사로 지원사업 발굴 확보
2017년 09월 11일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인권보호센터 '희망동행' 32개 네트워크 기관 업무협약
2017년 09월 15~19일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이동보조기기센터 운영
2017년 09월 26일	한국피해자지원협회충북지부 업무협약
2017년 09월 26일	제 3회 세미나 개최 '사회통합을 위한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방안'
2017년 11월 3일	(주)폴리텍 이동보조기기 전동휠체어 외 14개 후원(1,300천원)
2017년 12월 04일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7년 차량지원사업 선정 '경차-레이'
2017년 12월 15일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8년 기능보강사업 선정 '아동청소년 이동보조기기 지원 사업' (2,000천원)
2018년 01월 02일	푸르메재단 2018 희귀난치 어린이 지원 사업 협력
2018년 01월 02일	푸르메재단 2018 장애어린이·청소년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 사업 협력
2018년 03월 06일	아름다운재단과 함께하는 2018 장애아동·청소년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 사업 협력
2018년 03월 08일	월드비전과 함께하는 저소득 희귀질환아동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사업 협력
2018년 04월 02일	푸르메재단 장애아동·청소년 이동보조기기 지원 사업 협력
2018년 04월 03일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 보조기기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
2018년 04월 10일	롯데재단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 협력
2018년 05월 01일	2018 에쓰오일 전국 장애 청소년 학습용 맞춤 보조기기 지원 사업 협력
2018년 06월 29일	괴산군노인복지관 어르신을 위한 보조기기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
2018년 08월 01일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8년 지정기탁사업 선정
2018년 09월 07일	케어메디칼 보조기기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
2018년 09월 21일	㈜라인의료기 보조기기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
2018년 11월 01일	제 4회 보조기기 세미나 개최

□ 2018년 사례관리 현황

(2018. 12. 31 기준/명)

구분	장애 유형							장애 등급				
	지체	뇌병변	지적	시각	청각	언어	기타	1급	2급	3급	4급	기타
인원	362	298	17	126	99	5	160	412	110	112	119	314

구분	보조기기 영역									
	휠체어 및 이동기기	감각	일상 생활	앉기 및 자세	주택 및 환경개조	컴퓨터접근	보완대체 의사소통	레저	자동차	계
인원	449	209	204	75	41	30	29	9	–	1,046

□ 2018년 실적 통계

(2018. 12. 31 기준/명)

구분	단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 계
서비스 전체실적	명	34	13	85	55	88	180	101	65	56	174	12	13	876
	건	44	19	119	79	101	207	117	81	63	179	20	17	1,046
콜센터	건	34	30	48	65	69	25	52	34	38	30	30	41	496
견학	건	1	0	4	1	1	0	0	3	3	2	0	0	15
	명	3	0	28	5	5	0	0	16	40	13	0	0	110
전문인력 교육	건	0	1	2	1.5	1	3.5	0	0	0.5	0	0	0	9.5
	명	0	50	26	150	50	82	0	0	15	0	0	0	373
홍보	건	3	1	8	3	4	1	2	0	1	5	4	1	33
지역사회연계	건	0	1	0	1	0	1	0	0	2	0	0	0	5
민간자원 연계/발굴	건	2	0	2	2	1	1	0	0	0	0	0	0	8

□ 서비스 영역별 보조기기 종류

서비스영역	보조기구
감각보조기구	 [시각-확대독서확대기]  [시각-휴대용확대기]  [시각-환소네]  [청각-골도헤드셋]  [청각-진동알람시계]  [청각-종옥장치]
앉기 및 자세	 앉기 관련 보조기구  서기 관련 보조기구  좌식 앉기 보조기구  벨트류  휠체어 액세서리  조절가능 작업테이블
휠체어 및 이동기기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스쿠터]  [보행보조차]  [스포츠형 휠체어]  [기립형 휠체어]
일상생활 보조기구	 식사-미끄럼방지접시  목욕 - 목욕용 의자  이동-원판부착이동판  화장의 - 단추끼우는도구  목욕 - 체약욕개  한손사용자용 손톱깎이판

서비스영역	보조기구
자동차 개조	 운전-핸드컨트롤러  운전-액셀 페달  운전-핸들보조손잡이  탑승-휠체어리프트  탑승-슬라이드업시트  탑승-이동경사로
컴퓨터 접근	 [키보드-미루키보드]  [마우스-조우스]  [스위치-무선스위치]  [키보드-입력보조도구]  [마우스-스마트나브]  [스위치-불고불기]
보완대체 의사소통	 [고로크]  [다이나박스]  [오케이톡톡]  [유비큐] [리플렉] [틱택]
레져활동 보조기구	
주택 및 환경개조	[칼 받침대] [마운팅 시스템] [음성인식환경조정장치] [경사로] [휘크스테이션] [침대형 마운팅 시스템]

참고7 주요 타시도 우수사례 소개(경기상상캠퍼스)

□ 사업개요

○ 추진배경 : 2003년 폐쇄된 옛 서울농생대를 모든 세대의 도민들이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

○ 위치/면적 :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66 / 152,070㎡

○ 사업방향 : 역사·전통존중, 원형보존, 주민친화, 공간개방

○ 사업규모 : 22개 공간 중 8개 공간 재생

○ 사업기간 : 2015. 1. ~ * '16.6.11 개관

○ 사 업 비 : 333억원(국비 101, 도비 232)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33,330		2,600	8,000	5,600	7,200	9,930
조성	**계**	**20,600**		**2,000**	**6,000**	**2,800**	**3,800**	**6,000**
	국비	10,100		800	3,000	1,400	1,900	3,000
	도비	10,500		1,200	3,000	1,400	1,900	3,000
운영	도비	**12,730**		600	2,000	2,800	3,400	3,930

* 공간재생 : 균특사업(산업단지, 폐산업단지 문화재생, 문체부) (**국비 50%, 도비 50%**)

** 공간운영(관리 및 프로그램) : **도비 100%**

□ 추진상황

○ '12. 8. 부지 교환 취득 (경인교대 캠퍼스 ↔ 서울 농생대 수원캠퍼스)

○ '14. 10. 서울 농생대 부지 활용계획 수립

○ '15. 1. 사업착수

○ '16. 6. 경기상상캠퍼스 개관, 운영

□ 공간조성

○ 리모델링 ('16) 2개동 → ('17) 6개동 → ('18) 7개동 → ('19) 8개동


생활1980
('16. 6. 개관)


생생1990
('16. 6. 개관)


청년1981
('17. 5. 개관)


공작1967 I,II
('17. 5. 개관)


플랫폼1986
('18. 5.개관)


교육1964
('19. 7. 개관 예정)


창생공간
('19 조성 예정)

(단위 : 억원, ㎡)

연번	건 물 명	조성연도	연면적	공 간 구 성
계	8 개소		16,197	
1	**생활 1980** (농원예학관)	'16	3,697	지역 문화 향유 및 생활문화 * 어린이책놀이터, 손살공방, 창업·창직공간, 사무실 등
2	**생생 1990** (농공학관)		2,997	생활문화 플랫폼 * 경기생활문화센터, 팹랩, 각종 공유공간
3	**청년 1981** (농화학관)	'17	2,977	일자리 창출 * 창업·창직공간, 디자인랩, 사진랩, 강의실
4,5	**공작1967 Ⅰ,Ⅱ** (농업공작실)		932	입주단체 창직활동 지원 및 각종 교육 * 목공, 자전거, 도색/건조, 뮤직랩 / 라이브클럽
6	**플랫폼1986** (대형강의실)	'17	1,310	각종 공연·창작·연습 공간 * 공연장, 창작연습, 전시실, 장업·창직공간 등
7	**제2문화창작소** (농업교육학관)	'18	1,234	교육 및 프로젝트 공간 * 다사리문화학교, 누구나학교
8	**창생공간** (임학임산학관)	'19	3,050	메이커 공간(제작실험실, 공동작업장 등) * '19 리모델링, '20 운영 예정

□ 추진성과 : 전국적 문화재생 성공 사례

○ ‘16. 6월 개관 후 54만 여명 방문

○ **직·간접 일자리 : 119팀 395명**

○ 도민 누구나 즐기는 복합문화 공간이자 세대별 생활문화 향유 확대

○ 다양한 주체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문화공유 실천

○ ‘17년 지역발전사업 우수사례 선정(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 ‘18년 한국리모델링 건축대전 준공부문 대상(대형강의실 → M3)

□ 운영실적

(‘19.5.31 기준)

구 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공간조성(건물수)	**7**	2	4	1	-
이용객	**541,899명**	52,955명	130,948명	247,866명	110,130명
일자리	**119팀 395명**	5팀 49명	37팀 109명	36팀 125명	41팀 112명
입주단체	63팀 145명	5팀 14명	29팀 65명	29팀 66명	통합
lab	15팀 43명		8팀 16명	7팀 27명	
문화기획자양성	95명	35명	28명	32명	모집중
프로그램	**153개 4,926회**	30개 399회	77개 1,092회	97개 3,626회	38개 1,663회
프로그램 이용자수	**146,551명**	7,645명	18,543명	61,240명	59,123명
생활문화동호회	**52개 669명**	-	-	44개 584명	52개 669명

□ 2019년도 공간별 세부사업 계획

① 생활 1981 : 지역문화 · 생활문화



3층	그루버 입주공간, 오픈키친, 강의실
2층	사무실, 청소년문화공간, 세미나실, 회의실
1층	북카페, 손살이공방, 체험장, 문화카페

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 및 공간지원
• 생활문화 프로그램 : 양봉, 텃밭, 요리, 그림책, 숲 체험 등 운영 • 청소년 및 학교 연계 프로그램 : 노동의 맛, 청소년 취미탐구생활, 청소년 취재단 • 동네장인학교 : 장인발굴 사업 연계 생활문화 프로그램 • 동호회 공간 지원 : 딸기살롱, 무궁화살롱 등 생활문화 동호회 공간 운영
생활문화 기반 조성 및 활동 지원
• 손살이공방 : 다양한 수공예 공방 지원 및 1일 클래스 및 심화 프로그램 • 손살이 장날 : 손살이공방 메이커투어 프로그램 • 문화카페 : 지역 로컬푸드로 건강한 먹거리 개발 및 제공 • 어린이책놀이터 : 어린이 및 가족단위 이용객을 위한 작은 도서관

② 생생 1990 : 생활문화 플랫폼



3층	창작공방, 공동작업실, 생활메이커 공간, 사무공간
2층	입주공방, 교육실, 생활문화 동호회 공간
1층	사무실, 요리실, 동네부엌, 커뮤니티 및 영유아 공간, 수유실
별관	도자·유리 랩, 경기팹랩

경기생활문화센터 조성
• 3층, 옥상, 별관 → 경기생활문화센터 조성
메이커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
• 경기팹랩 (별관) : 개인 아이디어의 프로토타입 및 완제품 제조·생산 • 특화공방(도자 및 유리) : 전문인력 선정 운영 • 생활메이커 공간 : 생활문화 활동 지원을 위한 공유 장비 제공
지역 협업
• 생활문화동호회 공간 및 활동 지원, 생활문화 매개자 양성 • 지역 장인발굴 프로젝트, 지역 주민 커뮤니티 공간 및 메이커 공간 운영

③ 제작, 실험, 창직·창업 : 청년1981, 공작1967 Ⅰ·Ⅱ

	→	청년 1981	2층	그루버 입주공간, 오픈라운지
			1층	카페, 부루잉랩, 디자인랩, 미디어랩, 그루버 입주공간
		공작 1967 Ⅰ,Ⅱ	1층	목공랩, 자전거랩, 뮤직랩, 건조/도색랩, 라이브클럽 등

문화기반 창직·창업 지원
• 그루버 네트워크 및 창업·창직 지원 · 입주반상회 / 워크숍 / 연구프로젝트 / 교육·컨설팅(콘텐츠진흥원 협업) · 그루버 생산품 외부 마켓 참가지원
다양한 메이커스 공간 운영
• 제작·창작 실험실 : 브루잉, 디자인, 사진, 목공, 자전거, 뮤직 · 일반인 대상 프로그램 / LAB협력 프로젝트 / 입주단체 기술워크숍 / 자유학년제 프로그램

④ 공간 1986 : 융·복합 문화 공간

	→	2층		그루버 입주공간(공연·미디어), 사무실
		1층		멀티벙커, 다목적 로비, 사무실

문화 공연, 협업, 창작 공간
• 열린 공연장·전시실 운영(창작자 및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 공간) • 다양한 장르·매체 간 협업· 지원, 융·복합 예술포럼 및 교육 • 각종 파티, 옥상공연 등을 통한 루프탑 활성화 • 공연·미디어 분야 그루버 입주공간

⑤ 교육 1964 : 문화예술교육, 문화기획자 양성

	→	2층	학습공동체실, 워크숍룸
		1층	도서관 및 대형강의실, 리빙랩, 워크숍룸, 오픈라운지

문화예술교육 및 문화기획자 양성

- 다사리문화학교 : 인문·문화·문화기획 교육 / 워크숍 / 학습공동체 / 공동프로젝트
- 청년 직장인 문화야학 <언감생심>
- 경기예술교육지원센터 입주
- 누구나학교 : 누구나 배우고 누구나 가르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생태학교 : 에너지전화, 생태전환, 먹거리자립, 적정기술 교육 등
- 시민인문학 : 예술, 과학, 문학, 사회 등 명사 초청 강연

⑥ 모두를 위한 놀이터 : 자연놀이터, 야외 공간

	→	사색의동산	포레포레, 주요행사 공간, 자연 휴식공간
		산책길	숲 체험프로그램

모두를 위한 놀이터

- 포레포레(4~9월, 6회) : 입주단체, 지역 생활문화장인 생산품 판매, 문화체험 등이 결합된 문화행사
- 모두의 놀이터 : 야외 수영장, 미로놀이터, 반려견 놀이터, 짚라인, 트리하우스 등
- 캠퍼스 산책길 정비 등

□ 경기상상캠퍼스 리모델링(재생사업) 실적

○ 리모델링 실적 : ('16) 2개동 → ('17) 6개동 → ('18) 7개동

연도	건 물 명	연면적	공 간 구 성
2016	생활 1980 (농원예학관)	3,696㎡	생활공방, 어린이책놀이터, 공유부엌, 각종 회의실, 다사리문화학교 등
	활생 1990 (농공학관)	2,997㎡	유리, 도자, 섬유공방, 전시실, 각종 문화활동 공간
2017	청년 1981 (농화학관)	2,977㎡	청년입주단체, 팹카페, 디자인랩, 사진랩, 브루잉랩 등
	공작1967 Ⅰ,Ⅱ (농업공작실)	932㎡	목공랩, 자전거랩, 도색/건조랩, 뮤직랩, 라이브클럽 등
	플랫폼 1986 (대형강의실)	1,310㎡	공연예술, 전시, 컨퍼런스, 멀티벙커, 스튜디오, 코워킹홀 등
2018	제2문화창작소 (농업교육학관)	1,234㎡	다사리강당, 청년 입주공간, 학습공동체실 등

○ 현장사진

◎ 농원예학관 ⇒ 생활 198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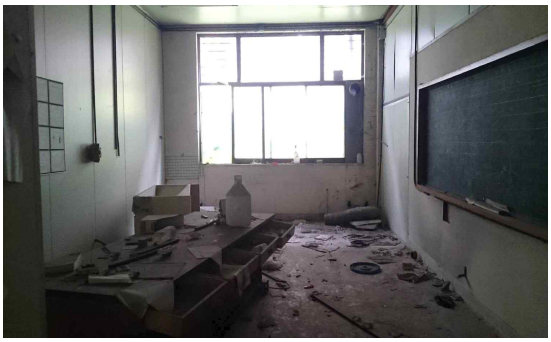


◎ ‘16년 농공학관 ⇒ 활생 1990





⇨





◎ ‘17년 농화학관 ⇒ 청년 1981





⇨





◎ ‘17년 대형강의실 ⇒ 플랫폼 1986





⇨





◎ ‘17년 농업공작실 ⇒ 공작 1967 Ⅰ, Ⅱ





⇨



